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인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이 용 식

<목 차>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장사시설 관련 정책검토	 10
제1절 장사시설 관련 개념	10
제2절 장사시설 관련 정책 추진배경	13
제3절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18
제4절 인천시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24
 제3장 장사시설 관련 현황검토	 34
제1절 전국의 장사시설 현황	34
제2절 인천시의 장사시설 현황	40
제3절 인천시의 기타 묘지 현황	58
 제4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이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	 68
제1절 전국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	68
제2절 장사문화에 관한 인천시 시민의식조사	78
제3절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	109
 제5장 인천시 장사시설 수요전망	 120
제1절 분석개요	120
제2절 사망자 추계	121
제3절 화장 규모 추계 및 수급진단	125
제4절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추계 및 수급전망	130
 제6장 장사시설의 순환 사용을 통한 수요 조절	 138
제1절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순환적 접근	138
제2절 개념의 정립 등	139
제3절 국내·외 우수 사례	150

제7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운영개선방안	190
제1절 인천가족공원의 운영개선방안	190
제2절 묘지의 운영개선방안	200
제3절 해양장의 활성화 방안	207
제4절 인천시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언	213
 참고문헌	 224
 부록	 230

<표 목 차>

<표 1-1> 연구수행흐름도	6
<표 2-1> 장사시설 관련 주요 개념	11
<표 2-2> 전국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14
<표 2-3>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과정	19
<표 2-4> 장사정책 주요 추진계획	21
<표 2-5>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정책과제	23
<표 2-6> 인천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24
<표 2-7>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25
<표 2-8>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26
<표 2-9>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26
<표 3-1> 전국 공설묘지 현황(2016년 기준)	34
<표 3-2> 전국 법인묘지 현황(2016년 기준)	35
<표 3-3>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2016년 기준)	36
<표 3-4> 전국 화장률 현황(2016년 기준)	37
<표 3-5>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2018년 기준)	40
<표 3-6> 인천가족공원 일반시설물 현황(2018년 기준)	42
<표 3-7>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현황(2018년 기준)	43
<표 3-8>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2018년 기준)	44
<표 3-9>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현황(2018년 기준)	45
<표 3-10>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2017년 기준)	48
<표 3-11> 인천시 공설묘지 현황(2017년 기준)	48
<표 3-12> 인천시 법인묘지 현황(2017년 기준)	49
<표 3-13> 인천시 개인묘지 현황(2017년 기준)	49
<표 3-14> 인천시 가족묘지 현황(2017년 기준)	50
<표 3-15> 인천시 종중·문중묘지 현황(2017년 기준)	50
<표 3-16> 인천시 봉안시설 현황 종합(2017년 기준)	51
<표 3-17> 인천시 공설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52
<표 3-18> 인천시 법인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53
<표 3-19> 인천시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54

<표 3-20> 인천시 기타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54
<표 3-21> 인천시 공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55
<표 3-22> 인천시 사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55
<표 3-23>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56
<표 3-24> 인천시 장례식장 운영형태별 현황	56
<표 3-25> 인천시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2017년 기준)	57
<표 3-26>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2014년 기준)	59
<표 4-1>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조사설계	68
<표 4-2>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응답자특성	69
<표 4-3>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 : 응답자특성별	70
<표 4-4>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 : 응답자특성별	73
<표 4-5>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 : 응답자특성별	74
<표 4-6> 장례 선호방법	76
<표 4-7>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조사개요	78
<표 4-8>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조사항목	79
<표 4-9>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응답자특성	80
<표 4-10> 희망하는 장사방법 : 응답자특성별	83
<표 4-11> 희망하는 장사방법 : 응답자특성별	85
<표 4-12>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특성별	88
<표 4-13>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구분	88
<표 4-14>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 : 응답자특성별	90
<표 4-15>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방향 : 응답자특성별	93
<표 4-16> 자연장에 대한 인지 : 응답자특성별	95
<표 4-17> 자연장 시설에 대한 찬반의견 : 응답자특성별	99
<표 4-18>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 : 응답자특성별	101
<표 4-1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 : 응답자특성별	104
<표 4-20>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	106
<표 4-2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조사개요	109
<표 4-2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조사항목	110
<표 4-23>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	110
<표 4-24>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112
<표 4-25>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114

<표 4-26>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116
<표 5-1>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연도별 계획인구	122
<표 5-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추계	122
<표 5-3>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기준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추계	124
<표 5-4> 인천가족공원 화장 건수 현황	126
<표 5-5>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화장시설 규모	127
<표 5-6> 인천시 관내 화장수요 연도별 추계	127
<표 5-7> 인천시 관내, 관외, 개장을 포함한 총 화장 수요 추계	128
<표 5-8> 인천시 화장로 수급 전망	129
<표 5-9>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안치방식 조사결과	130
<표 5-10> 인천가족공원 이용 실태	131
<표 5-11>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	132
<표 5-12>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 추계 : 대안 1	132
<표 5-13>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 추계 : 대안 2	134
<표 5-14> 화장 후 유형별 시설 수급	135
<표 6-1> 장사시설 수급관리의 제 수단	141
<표 6-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의 사용기간 규정	144
<표 6-3> 독일어권 도시들의 묘지 사용기간 비교	146
<표 6-4> 전국 주요도시 봉안당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 등 비교	147
<표 6-5> 스위스 루체른 프리덴탈묘지 묘역구분	151
<표 6-6> 무료페리서비스 이용신청자 유의사항	171
<표 6-7>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의 사용료	184
<표 7-1> 묘지일제조사 서식	201
<표 7-2>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주체별 역할분담방안	205
<표 7-3> 해양장 관련 법령 검토결과	210
<표 7-4>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	216

<그 림 목 차>

<그림 2-1> 장사 절차	10
<그림 2-2> 총인구수, 노인인구 수 및 사망자 수 추계(2016-2065)	13
<그림 2-3> 전국 화장률 추이(연도별)	15
<그림 2-4> 전국 화장률 추이(월별)	16
<그림 2-5>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17
<그림 2-6>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추이	17
<그림 2-7> 장사정책 기본방향	20
<그림 3-1> 전국 자연장지 현황(2018년 기준)	38
<그림 3-2> 전국 장례식장 현황(2018년 기준)	39
<그림 3-3> 인천가족공원 현황도(2018년 기준)	41
<그림 3-4>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44
<그림 3-5> 인천가족공원 합동분묘	44
<그림 3-6>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조감도	47
<그림 3-7>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2014년 기준)	58
<그림 3-8>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도(2014년 기준)	60
<그림 3-9>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주요사업계획(2010년 기준)	63
<그림 3-10> 봉안당(영종메모리얼파크) 설치 계획도(2013년 기준)	63
<그림 4-1>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상위 5순위)	70
<그림 4-2>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	72
<그림 4-3>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	74
<그림 4-4> 화장 및 매장에 대한 연도별 의견추이	75
<그림 4-5> 화장에 대한 지역별 선호비율	77
<그림 4-6> 인천시의 화장에 대한 연도별 선호비율	77
<그림 4-7> 희망하는 장례장소	81
<그림 4-8> 희망하는 장사방법	82
<그림 4-9> 희망하는 묘지유형	84
<그림 4-10> 희망하는 묘지유형 : 공설 및 사설묘지	84
<그림 4-11>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86
<그림 4-12>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87

<그림 4-13>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89
<그림 4-14>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	90
<그림 4-15>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방향	92
<그림 4-16> 재개발(공원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	94
<그림 4-17> 자연장에 대한 인지	94
<그림 4-18>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96
<그림 4-19>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 2017년 전국조사	97
<그림 4-20> 바람직한 자연장 시설형태	98
<그림 4-21> 자연장 시설에 대한 찬반의견	98
<그림 4-22> 해양장에 대한 의견	100
<그림 4-23>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	101
<그림 4-24>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	103
<그림 4-25>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	105
<그림 4-26> 종합장사시설 확충 시 어려운 점	107
<그림 4-27> 장사시설 설치 시 갈등요인 : 2017년 전국조사	107
<그림 4-28> 인천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08
<그림 4-29>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111
<그림 4-30>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	113
<그림 4-31>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115
<그림 6-1> 사람 몸의 자연 속 순환 흐름도	139
<그림 6-2>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교회묘지의 유골안치소	143
<그림 6-3>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만월당	148
<그림 6-4> 프리덴탈묘지의 정문	150
<그림 6-5> 스위스 루체른시립묘지의 공동봉안묘	152
<그림 6-6> 마인츠 시립묘지의 나무무덤	154
<그림 6-7> 마인츠 추모정원의 묘역	155
<그림 6-8> 독일의 익명 또는 공동묘역	157
<그림 6-9> 독일 츠비카우 중앙묘지의 공동봉안묘역 및 반익명공동묘역	158
<그림 6-10> 뮌헨 Waldfriedhof의 Baumgraber	159
<그림 6-11> 우드랜드 미네스룬드의 정상부	160
<그림 6-12> 말뚝 림함묘지의 미네스룬드	162
<그림 6-13> 스웨덴 욱케러 회뇌(Öckerö Hönö) 묘지의 미네스룬드	163

<그림 6-14> 노르웨이 오슬로의 알파세트 정원(Alfasetparken)	164
<그림 6-15> 케이프 콜린슨 화장장 추모의 정원	166
<그림 6-16>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화장시설 및 추모의 정원	167
<그림 6-17> 워홀섹 화장장 추모의 정원	168
<그림 6-18> 홍콩의 바다 산골 지정 해역	169
<그림 6-19> 무료페리서비스 선박	170
<그림 6-20> 일본 민간의 영대공양묘	173
<그림 6-21> 초기 영대공양묘	173
<그림 6-22> 최근 영대공양묘	174
<그림 6-23> 사이타마시 오모이테노사토 시영영원의 합장식묘지	175
<그림 6-24> 교토시 후카쿠사보엔의 합장식묘지	177
<그림 6-25> 이이모리영원의 합장식묘지	178
<그림 6-26> 이이모리영원의 합장식묘지 구조	178
<그림 6-27> 우리와리영원의 합장식묘지	180
<그림 6-28> 우리와리영원의 합장식묘지 구조	180
<그림 6-29> 도쿄 고다이라영원의 합장식묘지	181
<그림 6-30> 도쿄 고다이라영원의 수림형 합장매장시설 및 수목형 합장매장시설	182
<그림 6-31> 울산하늘공원 구조	183
<그림 6-32>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	184
<그림 6-33> 독일 마인츠 시립묘지 중 Waldfriedhof Mombach 묘지	185
<그림 7-1> 함안하늘공원 유족대기실	193
<그림 7-2> 울산하늘공원 유족대기실	193
<그림 7-3> 구미시 추모공원 옥상정원	194
<그림 7-4>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봉안당 내 창문	194
<그림 7-5>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기도문	195
<그림 7-6>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게시판	195
<그림 7-7> 서울시립 용미지 제1묘지 수목장지	196
<그림 7-8>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196
<그림 7-9> 인천시 해양장 실시 해역	208
<그림 7-10> 홍콩 해양장 관련 홍보 팸플렛	211
<그림 7-11>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뒤편	218
<그림 7-12>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지 길	218

<그림 7-13> 장봉리2공설묘지 입구	219
<그림 7-14> 장봉리2공설묘지 전경	219
<그림 7-15> 가상현실을 이용한 고인과의 대화	220
<그림 7-16> 김광석 홀로그램 공연	220
<그림 7-17> 스윗소로우와 유재하 홀로그램 공연	220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인구구조의 변화 및 국민들의 다양한 장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장사시설 수급 관련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화, 1인가구의 급증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와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등이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했던 문화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화장률이 2016년 기준 82.7%에 이르는 등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변화하였으며, 화장과 함께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8).
 - 이와 같이 장사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 자연장지 등과 같은 장사시설의 수급이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되지 못하거나 시설의 노후화, 관리미흡,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장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외에 다양한 장사방법 강구 및 장려, 관련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즉, 국가는 5년마다 묘지,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과 같은 장사시설의 수급 중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처럼 국가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장사시설 수급과 관련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임.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체계적인 장사시설 제공을 위함임.
 -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시설의 규모나 질을 고려하여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장사시설의 무계획적이고 부적합한 관리를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의 피해 등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보건위생 제고, 국토의 효율성 제고 도모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장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종합연구라 할 수 있음.
 - 장사시설 현황 분석,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추이분석, 인천시 시민의식 분석 등을 통해 인천시 장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수급전망을 검토하고,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전국 및 인천시의 장사시설 현황 및 정책분석
 -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 추정
 -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 분석
 - 인천시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본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장사 관련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며, 향후 장사 관련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장사시설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인천시 8구 2군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2년(5년)에 대한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관련사항,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 인천시 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전국과 인천시의 공설 및 법인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현황
 - 인천시 장사시설 이용 실태 분석
 -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 관련법규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장사문화에 관한 인천시 시민의식 조사
 - 설문개요 및 응답자 특성 제시
 - 조사결과 분석
 - 인천광역시 장사행정의 향후 추진방안 제시
- 장사문화에 관한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조사
 - 설문개요 및 고인의 특성 제시
 - 조사결과 분석
 - 화장한 유골 안치방법 등 분석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 추정
 - 시민의 장사수요분석
 - 연도별, 유형별 장사시설의 수요전망 및 공급추정
 -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의 수급분석 및 대책
- 장사시설의 순환사용 분석
 - 장사시설 순환의 개념 및 필요성 제시
 - 국외 장사시설 순환사용 사례분석
 - 인천시 장사시설 순환사용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중·장기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개선방안
 - 묘지·화장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인천가족공원 등 인천시 장사시설의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고찰,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됨.
- 문헌고찰 :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포함하여 국내·외 장사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법률 및 조례, 관련 홈페이지 등 분석. 이를 통해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관련 시책 비교분석 등 실시
- 데이터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인천통계연보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천시 사망률 현황 및 추이, 장사시설 수요전망 분석
- 설문조사 : 인천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및 인천가족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이를 통해 선호 장사방법·사유 및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인천시의 향후 장사정책 방향 등 분석
- 사례조사 : 국내·외 장사시설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
- 자문회의 : 사회복지대학 교수, 관련 연구자, 관련 기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과 관련된 시사점 및 정책방안 제시

3. 연구수행흐름도

<표 1-1> 연구수행흐름도



제 2 장

장사시설 관련 정책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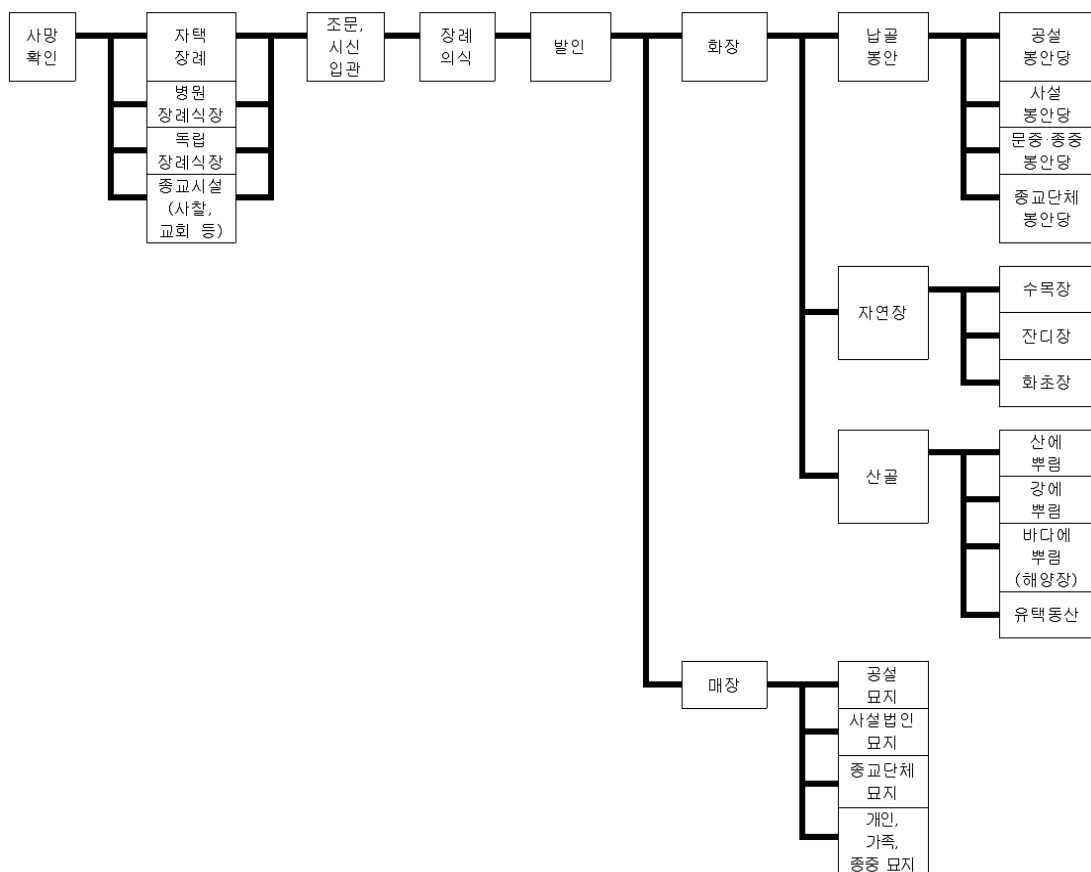
제2장 장사시설 관련 정책검토

제1절 장사시설 관련 개념

1. 장사 절차

- 장사 절차는 지역, 시기, 종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망확인 및 장례단계(조문, 시신입관, 장례의식, 발인) 후 시신이나 유골의 안치하는 과정을 거침(이기현, 2015).
- 장례단계를 치르는 장소,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및 안치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과정의 장사 절차를 거치게 됨.

<그림 2-1> 장사 절차



자료 : 이기현(2015) 바탕으로 재구성

- 안치방법 및 안치장소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일방적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 및 장소로 변환이 가능한 순환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였으나 일정한 안치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자연장 혹은 산골을 할 수 있음. 또한 매장을 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 혹은 자연장, 산골할 수 있음(개장).

2. 장사시설 관련 주요 개념

- 장사시설은 장례단계가 이루어지는 장례식장 및 장묘단계가 이루어지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모두 포함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과 같이 시신이나 유골을 장사하기 위한 시설로,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인 장례식장 또한 이러한 장사시설에 포함됨.
- 이 외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와 관련하여 주요 개념의 정의를 명시함.

<표 2-1> 장사시설 관련 주요 개념

주요 개념	정의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화장시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포함)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봉안시설	매장을 제외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의미함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함.

- 장사시설 관련 주요 개념 중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친환경적 안치방법 중 하나임.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방법으로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15.9%)로 조사되는 등 최근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8).
- 자연장과 함께 친환경적 안치방법으로 분류되는 산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 혹은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것을 의미함(국립민속박물관, 2014).
 -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로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 등이 활성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일정 시설 마련 및 유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봉안시설 등과 달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유골을 온전하게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산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그러나 현재 산골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명확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 산골장소로 유택동산이 국내 장사시설에서 마련되어 있음. 이러한 유택동산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지정된 장소이며, 지정된 유골함에 공동으로 유골을 뿌림. 그러나 현재 국내 유택동산의 경우 ① 해당 장사시설의 화장시설 이용자 중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② 해당 장사시설의 봉안당·묘지 등에 안치된 무연고자 중 이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③ 해당 장사시설의 봉안당·묘지 등 안치된 안치 유골 중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유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 산골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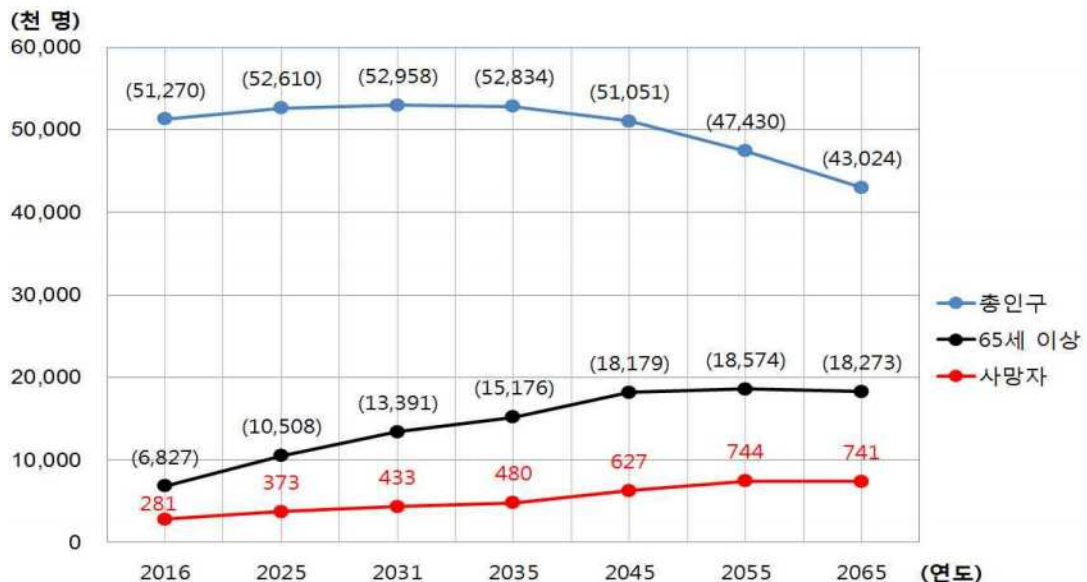
제2절 장사시설 관련 정책 추진배경

1.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총인구수는 2016년 기준 5,127만 명에서 2031년 5,295만 명이 된 후, 2065년 4,3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82만 명에서 2035년 1,517만 명, 2065년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6년에 사망자 수가 28만 명이었던 것에 반해 2035년에는 48만 명, 2065년에는 7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16년 대비 2065년에 사망자 수가 약 2.6배 증가하는 것임.

<그림 2-2> 총인구수, 노인인구 수 및 사망자 수 추계(2016-2065)

(단위: 천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8b)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12)를 바탕으로 구성됨. 단, 2016년은 실적치임.

-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서울시의 경우 사망자 수가 2015년 43,053명에서 2017년 42,900명으로 증가하였고, 조사망률 또한 2015년에 천 명당 4.3명이었던 것에서 2017년 천 명당 4.4명으로 증가함.
 - 인천시의 경우 사망자 수는 2015년 13,452명에서 2017년 14,300명으로 증가하였고, 조사망률은 2015년 천 명당 4.7명에서 2017년 천 명당 4.9명으로 증가함.
 - 2017년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56,900명)이며,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라남도(8.9명)임.
-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2-2> 전국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사망자 수 (명)	조사망률 (천 명당)	사망자 수 (명)	조사망률 (천 명당)	사망자 수 (명)	조사망률 (천 명당)
전 국	275,895	5.4	280,827	5.5	285,600	5.6
서 울	43,053	4.3	43,540	4.4	42,900	4.4
부 산	20,820	6.0	21,074	6.1	21,400	6.2
대 구	13,081	5.3	13,502	5.5	13,600	5.5
인 천	13,452	4.7	14,119	4.9	14,300	4.9
광 주	7,443	5.1	7,247	5.0	7,600	5.2
대 전	6,961	4.6	6,958	4.6	7,000	4.7
울 산	4,915	4.2	4,947	4.2	4,900	4.2
세 종	979	5.4	1,065	4.7	1,200	4.4
경 기	53,005	4.3	55,215	4.4	56,900	4.5
강 원	11,301	7.4	11,437	7.4	11,500	7.5
충 북	10,638	6.8	10,787	6.8	11,100	7.0
충 남	14,469	7.0	14,600	7.0	15,300	7.3
전 북	13,721	7.4	14,062	7.6	14,300	7.8
전 남	16,543	8.7	16,561	8.7	16,800	8.9
경 북	20,862	7.8	20,978	7.8	21,300	7.9
경 남	21,313	6.4	21,193	6.3	21,600	6.4
제 주	3,339	5.5	3,542	5.6	3,700	5.8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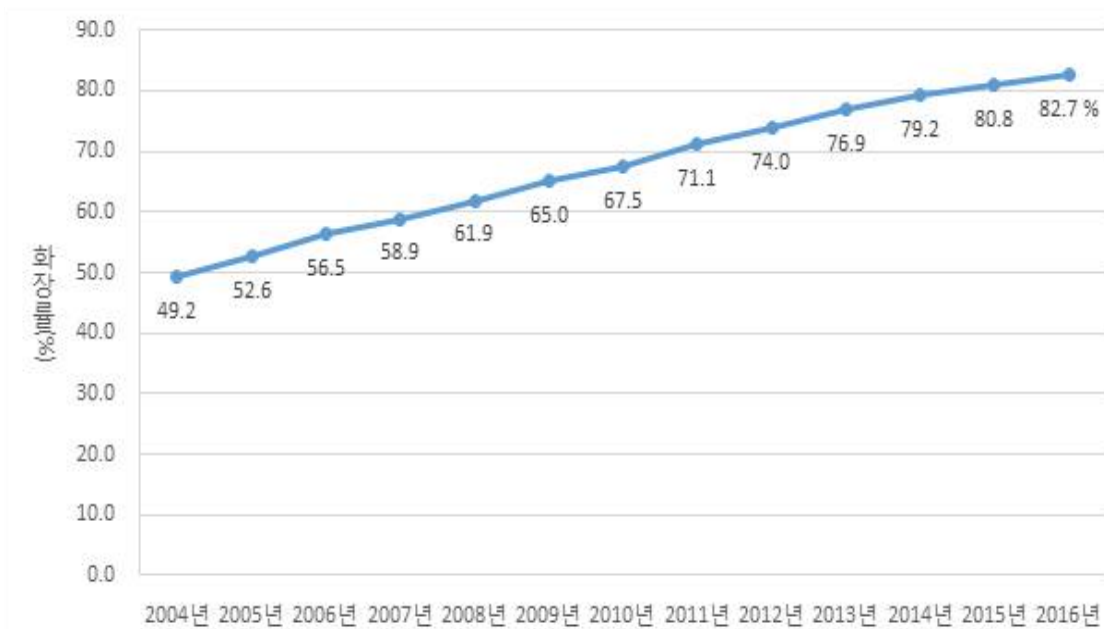
※ 조사망률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 수/해당 연도의 연앙인구X1,000”으로 산출함.

2. 화장률 증가에 따른 관련 장사시설 수요 증가

- 2004년 이전까지는 매장률이 화장률에 비해 높았으나, 2005년에 화장률이 52.6%로 기록되면서 주된 장사방법으로 정착함.
- 2005년 이후 화장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화장률이 82.7%에 이름.
- 월별 화장률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화장률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을 비롯하여 봉안당, 자연장 관련 시설과 같이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3> 전국 화장률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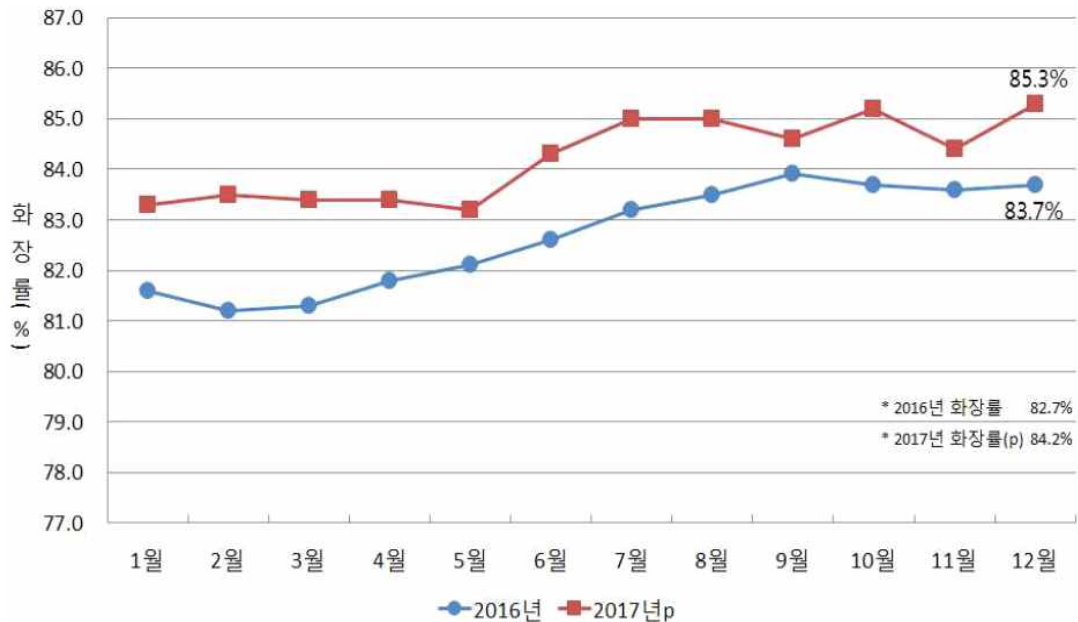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8)

<그림 2-4> 전국 화장률 추이(월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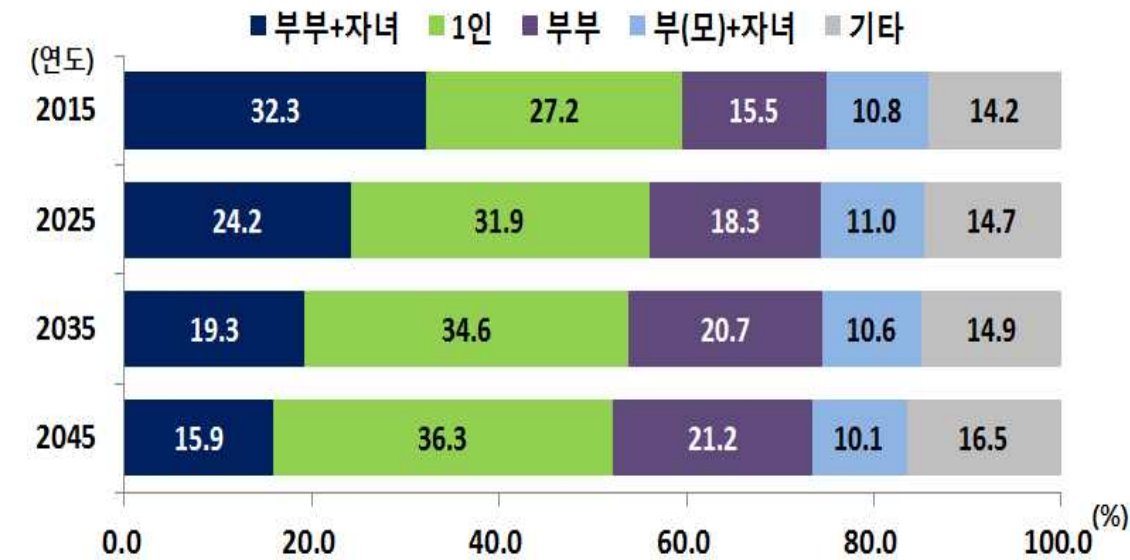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a)

3.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고독사 및 묘지 관리 문제 심화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부부+자녀 가구유형은 점차 감소하고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의 비율은 2015년에 전체 가구유형 중 27.2%였으나, 2035년에는 34.6%, 2045년에는 3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15년에는 20대, 30대 등 청년층의 비율이 높으나 향후 노년층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45년에는 70대가 21.5%, 60대가 15.0%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1인가구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독사(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후손 등의 부족으로 묘지 관리 및 장사시설 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5>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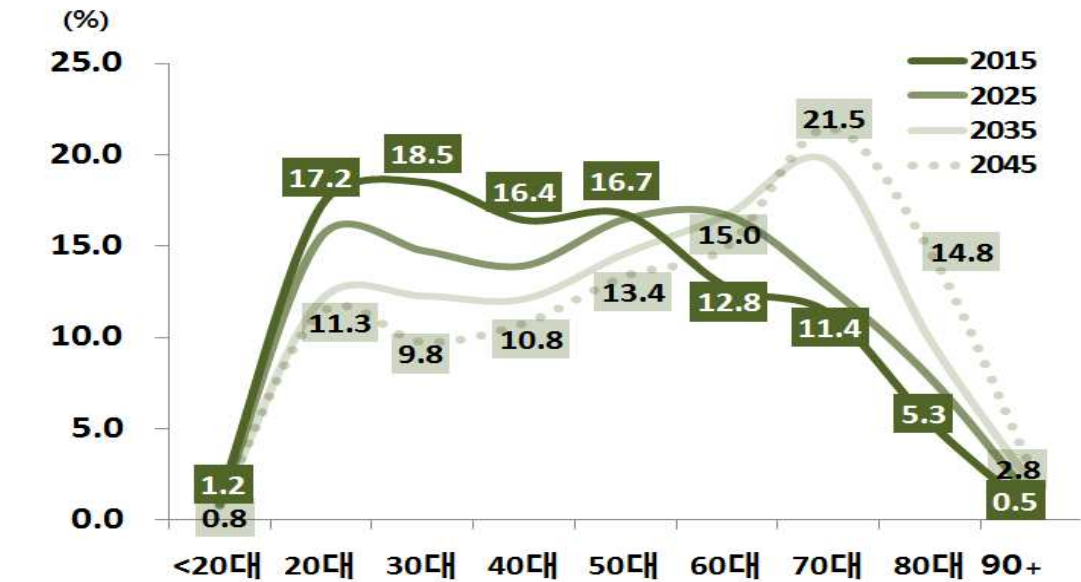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통계청(2017a)

<그림 2-6>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2017a)

제3절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1.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과정

- 1961년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
 - 1961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법률은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공설묘지· 화장장·봉안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사시설 구축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맞춤.
 - 2000년 이후의 법률은 장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확충 및 장사시설 설치·운영기준 보완에 대한 사항을 다룸. 또한 한시적 매장제와 자연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훼손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춤(김승희·이원학, 2014).
- 현재는 2000년에 마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여 장사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 관련 개념의 정의부터 매장·화장·개장·자연장의 방법 및 설치까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2018년 현재 가장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12.19. 일부개정, 2018.06.20. 시행)』의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등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강화함.
 - 이는 장사시설별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산정기준이 다양하고 미사용용품을 포함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공정·불법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에 대해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임.

<표 2-3>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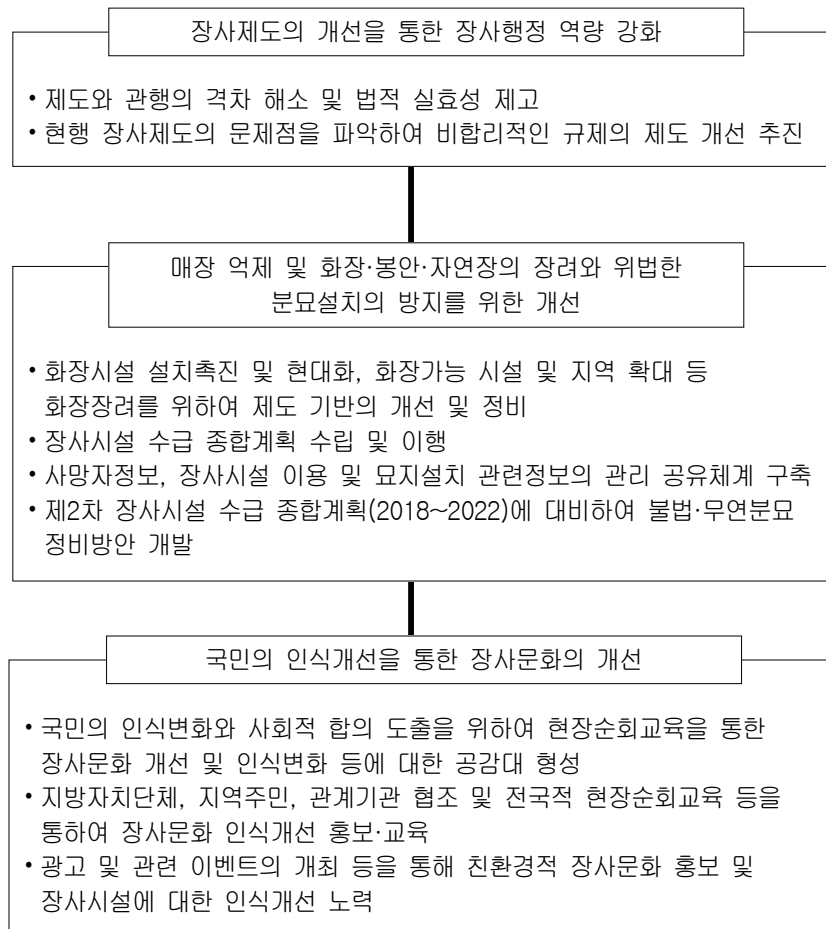
연도 (년)	법률명	구분	주요내용
1961	매장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화장은 사망한 때로부터 24시간 후 시행하도록 규정 • 매장·화장·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 • 시·군이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묘지설치 장소, 묘지면적, 묘지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 규정 •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허가제 도입
1968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명칭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시 •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지역을 명문화
197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당 점유면적 제한(개인 20㎡이하, 합장 25㎡이하) • 묘적부제도 법제화, 무연고 분묘정리를 위해 분묘의 일제신고제 도입 • 분묘 및 유골함의 형태,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시 규정 제시
198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골묘 도입 •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 규정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관리비, 사용료 규정
2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당 분묘면적의 제한(집단묘지 10㎡, 개인묘지 30㎡) • 한시적 매장제 도입(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 15년씩 3회까지 연장)
2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규정 •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20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 •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규정
20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검증 제도 도입
20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중 일부 지역내 조성 허용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2015년 1월부터 시행)
20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매장제의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
20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자료 : 메모리얼소싸이어티(2016); 김승희·이원학(2014)

2. 보건복지부 2018년 장사업무안내

-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사업무안내』를 통해 장사시설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장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법적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장사제도의 개선, 화장·자연장 등의 장려를 기반으로 한 제도정비,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림 2-7> 장사정책 기본방향



자료 : 보건복지부(2018a)

- 이와 같은 장사정책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5개의 추진계획을 제시함.

<표 2-4> 장사정책 주요 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성·접근성 증대 • 노후 화장로를 신형 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서비스 편의성 제고 •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 공설묘지 재개발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 격차 해소 (관내·관외 요금 격차는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서비스 증대
장례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호화·사치 장례 근절 및 검소하고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2018a)

○ 장사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는 330만 m²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시에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에 대한 사항을, 990만 m²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시에는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장사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거나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 수립,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묘지(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매장 혹은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등을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비용의 보조
 - 국가는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 조성,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3.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는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장사시설 수급 계획안을 제시함.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3-2017)에 대한 성과 및 평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비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성과
 - 화장로, 공설 자연장지 및 봉안당 등의 수를 계획보다 초과 수급달성.

- 자연장지 관련 규제 완화,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정 강화 등.

○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한계

- 전체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 수급은 문제가 없으나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실제 시설 이용 시 불편(예를 들어 경기북부의 경우 화장시설로 이동시 1시간 이상 소요됨).
- 기존 화장시설의 노후화 및 오염방지시설의 미비, 국민의 자연장 형태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고 잔디형 자연장지로 획일적 구성.
- 공설 및 사설 봉안당 간 사용료 차이 큼, 장례식장의 등록된 가격정보와 현장 가격 간 불일치 등.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표 2-5>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정책과제

비전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 공급 •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 • 화장을 90% + 자연장지 이용률 30% 달성
분야	과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의 수급 균형 달성 • 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확대 •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개발 • 친자연·수요자 맞춤 장사시설 조성 •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 도입 등 갈등관리 체계 고도화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및 지역별 수급계획 내실화 • 장사시설 평가제도 및 수목장림 인증기준 도입 • 변화된 장례문화 수용 • 장사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관련 인력 운영 개선 •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의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e하늘장사시스템 고도화 • 장사시설의 관리기준 내실화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 무연고 사망자·위안부피해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국민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 •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 • 친자연적 장례문화 대국민 홍보

자료 : 보건복지부(2018b)

제4절 인천시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조례”로 표기)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인천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표기) 제정하여 인천시의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장사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부터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사항까지 모두 다룸.
- 장사시설 규정 및 묘지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인천시 조례』 제1조).
 - 장사시설을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로 규정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인천시 조례』 제4조).
 -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에 맞추어 자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인천시 조례』 제4조).
-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인천시 조례』 제5조, 별표1)

<표 2-6> 인천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종류	명칭	위치
공설묘지	비조성 묘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외 17개
	조성 묘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화장시설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금마총,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만월당, 가족봉안묘, 평온당, 봉안당	
자연장지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유택동산	•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부속시설	• 장사문화홍보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료(『인천시 조례』 제8조, 별표2)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은 화장시설 사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관외주민이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혹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단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20조의2 제1항 제3호)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 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자연장지 이용할 시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2-7>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봉안당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가족봉안묘(16위)			사용료	1기	90년	8,800,000원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계단식가족봉안묘(8위)			사용료	1기	90년	4,400,000원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무연고			사용료	1기	10년	150,000원	-	
자연장지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	1기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	1기		10,000원	50,000원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비조성묘지·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 비조성묘지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설묘지를 의미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중구 영종공설묘지, 미추홀구(남구) 주안공설묘지, 연수구 옥련공설묘지 등이 비조성묘지에 해당하며, 기본 사용료는 3,600원, 기본 관리료는 17,800원임.

<표 2-8>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본금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한편 조성묘지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설묘지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사용하고 있는 묘지를 의미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서구 왕길조성묘지가 조성묘지에 해당하며, 관리료는 연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10년 단위로 징수함.

<표 2-9>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장사시설의 관리자(『인천시 조례』 제10조)

- 시장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서구 왕길조성묘지
- 관할 군수·구청장 : 나머지 기타 공설묘지

○ 장사시설의 재정 지원 및 민간자본유치

- 시비 보조 :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효율적인 묘지수급계획을 통해 장사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시비로 보조 가능함(『인천시 조례』 제23조).
- 민간자본 유치 :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함(『인천시 조례』 제24조).

○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

-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수목장의 수목 1그룹에 안장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4기 이상 8기 이내로 매꿀되도록 함.
- 사용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봉안시설의 안치단 규격 범위에서 위패 및 사진(10cm×15cm이하)에 한정하여 함께 봉안할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에 대한 분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되, 시장의 조성묘지 관리범위는 별초 및 축대관리에 해당함.

○ 공설묘지 내 분묘, 비석, 좌반의 규격 등(『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분묘 : 봉분식 또는 봉분이 없는 평장식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함.
- 비석 : 비석은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하되, 봉분식 비석은 가로 30cm, 세로 70cm, 두께 12cm, 평장식 비석은 가로 60cm, 세로 40cm, 두께 12cm로 함. 비석 높이는 좌반면에서 최고부분까지이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 일련번호 및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함.
- 좌반 :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하되, 가로 45cm, 세로 60cm, 두께 12cm로 함.

○ 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

- 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로 함.
- 개별표지는 사용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단, 수목장림 내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없음.
- 개별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포함하여야 함.

2. 인천시 2013-2017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천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현 인천연구원)과 함께 2013년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를 추진함.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시의 장사시설 현황,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및 수요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연구의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관련 주요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인천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장사시설 종류별 수급전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제시하는 것임(이용갑 외, 2013).

○ 연구의 내용

- 화장 중심 전국의 장사시설 분석
-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 현황 및 수요전망 분석
-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제시
-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등

○ 연구의 결과 및 개선방안제언

- 인천가족공원의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
 - 승화원의 고품격화 : 화장로 증설시 화장장 건물 면적을 확장함. 의전인력 채용을 통한 고품격 의전 프로그램을 도입함.
 - 승화원의 자연친화적 화장로 증설 : 화장장 증설 시 공해방지기술을 도입함.
 - 단기 안치공간 마련 : 화장 유골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마련함.
 - 공설 봉안당 안치 기간·조건의 강화 :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10년 후 재계약시 사용기간 및 조건을 강화함.
 - 고품격 자연장지 확대 및 개인 표시에서 공유개념으로 자연장지 전환
 - 유택동산의 고품격 산골장소로 전환
- 해양장의 활성화
 - 인천시민 대상 시민의식조사 결과 해양장 선호도가 10% 수준으로 조사됨.
 - 해양장은 봉안당, 자연장지의 안치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사방법임.
 - 따라서 민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해양장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장사방법의 하나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원묘지의 재개발
 - 시립 왕길묘지, 검단묘지공원, 영종공설묘지 등의 공원묘지를 가족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장사시설로 재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설묘지의 무연고 묘지 관리 및 소규모 자연장지화
 - 불법 및 무연분묘로 방치된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함.
 - 공설묘지의 무연분묘는 자연장지 혹은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함.
- 인천시 장사문화 발전방안
 - 건전한 장사문화 확대 : 시민교육강화, 언론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자연장·해양장·고품격 산골 등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장사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 가족친화적으로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함. 장사행정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함.

3. 강화군 2014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늘푸른장사문화원과 함께 2014년 『강화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시 군·구 차원의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제시함.
- 『강화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광역시의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의 장사시설 현황, 장사시설 수요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연구의 목적
 - 강화군 장사시설의 공급확충방안,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신산철 외, 2014).
- 연구의 내용
 - 강화군 일반현황 및 장사시설 현황 검토
 - 장사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사례 분석
 - 강화군민 대상 장사시설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 제시
 - 강화군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 연구의 결과 및 개선방안제언
 - 자연장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 : 자연장지 후보지의 기초현황 및 정책적·입지적·지형적·경관적·법적·경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향 : 강화군의 장사시설 조례와 관련하여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함.
- 공설 장사시설 운영방식 : 공설 장사시설은 기존 장사시설들과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직영, 위탁운영 등의 방식 중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식을 갖추어야 함.
- 공설묘지 관리·운영방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 분묘 처리 등과 관련된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설묘지 관리·운영방안 : 사설묘지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홍보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사설묘지 내 불법묘지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공설 봉안시설 관리·운영방안 : 1단계(장사시설의 공익성·수익성 간 상호관계를 확인) 및 2단계(경제적 효율성, 책무성 등 요인들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관리운영 방식 결정)로 구분하여 관리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함.
- 자연장지 관리·운영방안 : 자연장지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구축하고, 관리운영 매뉴얼 마련 및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함.

제 3 장

장사시설 관련 현황검토

제3장 장사시설 관련 현황검토

제1절 전국의 장사시설 현황

1. 묘지 현황

1) 공설묘지 현황

- 전국 공설묘지(공동묘지 제외)는 2016년 기준 총 34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체면적은 총 27,301,260㎡이며, 분묘설치기수는 496,886기임.
 - 분묘설치 예정기수는 736,567기이며 향후 분묘설치 가능기수는 239,681기임.
- 인천시는 2016년 기준 총 83개소의 공설묘지를 가지고 있음.
 - 인천시는 경기 다음으로 많은 공설묘지 수를 가지고 있으며, 묘지면적 또한 3,059,973㎡로 서울 다음으로 넓음.
 - 향후 분묘설치가능기수의 경우 2016년 현재 88,094기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음.

<표 3-1> 전국 공설묘지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구분	개소수	묘지면적(㎡)	분묘설치 예정기수(기)	분묘설치 기수(기)	향후 분묘 설치가능기수(기)
전 국	341	27,301,260	736,567	496,886	239,681
서 울	5	7,143,300	89,391	61,102	28,289
부 산	1	743,219	29,021	27,146	1,875
대 구	4	1,926,481	12,624	12,222	402
인 천	83	3,059,973	143,342	55,248	88,094
광 주	2	1,625,618	56,957	55,332	1,625
대 전	1	500,616	10,482	6,822	3,660
울 산	0	0	0	0	0
세 종	1	37,372	2,490	2,230	260
경 기	119	2,886,140	85,436	78,691	6,745
강 원	16	1,861,243	25,698	12,390	13,308
충 북	6	1,278,267	28,965	25,401	3,564
충 남	9	837,717	36,739	22,704	14,035
전 북	16	565,070	36,415	29,174	7,241
전 남	38	2,863,399	90,178	67,172	23,006
경 북	8	345,402	13,341	12,757	584
경 남	17	629,251	27,139	15,054	12,085
제 주	15	998,192	48,349	13,441	34,908

자료 : 보건복지부(2018c)

※ 인천은 공동묘지가 공설묘지에 포함됨.

2) 법인묘지 현황

- 전국 법인묘지는 2016년 기준 총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체면적은 총 38,652,480㎡이며, 분묘설치기수는 912,850기임.
 - 분묘설치 예정기수는 1,564,891기이며 향후 분묘설치 가능기수는 652,041기임.
- 인천시 법인묘지는 7개소이며, 묘지면적은 233,395㎡임
 - 분묘설치 예정기수는 31,196기, 분묘설치기수는 19,711기이며, 향후 분묘설치가 가능기수는 11,425기임.

<표 3-2> 전국 법인묘지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구분	개소수	묘지면적(㎡)	분묘설치 예정기수(기)	분묘설치 기수(기)	향후 분묘 설치가능기수(기)
전 국	153	38,652,480	1,564,891	912,850	652,041
서 울	-	-	-	-	-
부 산	5	1,492,727	49,135	38,867	10,268
대 구	7	423,515	11,200	7,101	4,099
인 천	7	233,395	31,196	19,771	11,425
광 주	2	57,225	3,160	3,160	0
대 전	1	9,904	8,242	930	7,312
울 산	2	535,403	33,792	26,764	7,028
세 종	1	357,797	26,500	8,554	17,946
경 기	51	14,919,911	406,538	277,946	128,592
강 원	8	1,913,957	77,127	42,411	34,716
충 북	7	2,142,517	78,459	48,396	30,063
충 남	7	2,503,164	106,853	70,744	36,109
전 북	6	1,123,610	48,207	16,345	31,862
전 남	5	992,097	90,726	22,433	68,293
경 북	21	5,681,430	263,939	147,753	116,186
경 남	15	6,147,520	325,841	178,146	147,695
제 주	8	118,308	3,976	3,529	447

자료 : 보건복지부(2018c)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1)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전국 화장시설은 2016년 기준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국에서 화장시설은 경북이 11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9개소, 강원 8개소, 전남 6개소 순임.
 - 전국적으로 2016년 한해 297,712건의 화장이 이루어졌음.

- 전국 봉안시설(봉안당 기준)은 총 414개소로 4,030,473구를 봉안할 수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1,444,83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음.

○ 인천시 화장시설은 2016년 기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시의 화장건수는 20,021건으로 전국 화장건수의 약 6.7%를 차지함.
- 인천시의 봉안시설은 10개소이며 봉안능력은 182,078구로 전국의 4.5%이고, 봉안 실적은 84,913구임.

<표 3-3>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구)

구 분	화장장		봉안당		
	개소수	화장건수(건)	개소수	봉안능력(구)	봉안수(구) (현재)
전 국	58	297,712	414	4,030,473	1,444,832
서 울	2	53,963	22	145,367	92,508
부 산	1	21,324	6	207,651	146,487
대 구	1	13,904	11	72,249	34,848
인 천	1	20,021	10	182,078	84,913
광 주	1	10,452	4	74,051	38,335
대 전	1	8,120	5	57,393	35,850
울 산	1	5,930	3	24,001	6,790
세 종	1	5,185	5	33,372	6,380
경 기	3	33,303	84	1,245,631	353,754
강 원	8	11,649	28	129,440	40,955
충 북	3	13,768	33	306,141	69,856
충 남	3	13,848	27	363,717	157,085
전 북	5	16,283	24	214,106	99,502
전 남	6	20,510	39	239,712	61,674
경 북	11	16,564	44	283,484	86,191
경 남	9	25,009	57	393,393	95,929
제 주	1	7,879	12	58,687	33,775

자료 : 보건복지부(2018c)

※ 화장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을 포함함.

※ 봉안당 개소수는 공설 봉안당, 법인 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을 적용함.

2) 화장률 현황

-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을 화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건수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기준 전국 화장건수는 232,128건임.

- 전국의 화장률은 82.7%로 사망자 중 대다수가 화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에서는 화장률이 90% 전후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 충북, 제주 등은 70% 전후 수준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화장률 차이가 있음.

○ 인천시의 화장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등의 화장을 제외하고 12,872건임.

- 인천시의 화장률은 91.3%로 나타남.
- 이는 92%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화장률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4> 전국 화장률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명, 건, %)

구분(명)	사망자수(명)	화장건수(건)	화장률(%)
전 국	280,827	232,128	82.7
서 울	43,540	38,107	87.5
부 산	21,074	19,396	92.0
대 구	13,502	11,167	82.7
인 천	14,119	12,872	91.2
광 주	7,247	5,840	80.6
대 전	6,958	5,819	83.6
울 산	4,947	4,460	90.2
세 종	1,065	822	77.2
경 기	55,215	48,068	87.1
강 원	11,437	8,803	77.0
충 북	10,787	7,704	71.4
충 남	14,600	9,962	68.2
전 북	14,062	10,950	77.9
전 남	16,561	11,946	72.1
경 북	20,978	14,942	71.2
경 남	21,193	18,834	88.9
제 주	3,542	2,397	67.7
지역미상	-	39	-

자료 : 보건복지부(2018c)

※ 화장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을 제외함.

○ 민간부문에 의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법적 허용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현재까지는 사설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16년에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대상에 화장시설이 포함됨. 이에 따라 화장시설 및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전보다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3. 자연장지 현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이 도입됨.
 - 자연장의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장례관련 단체, 시민사회 등에 의한 자연장 홍보, 국민들의 장례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비율보다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황임.
- 자연장에는 수목장, 평장, 화초장, 잔디장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해양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112개소의 자연장지가 있음.
 - 인천시는 5개소의 자연장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인천시가 가장 많은 자연장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임.
 - 도별 기준에서는 경기도가 41개소의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많은 자연장지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3-1> 전국 자연장지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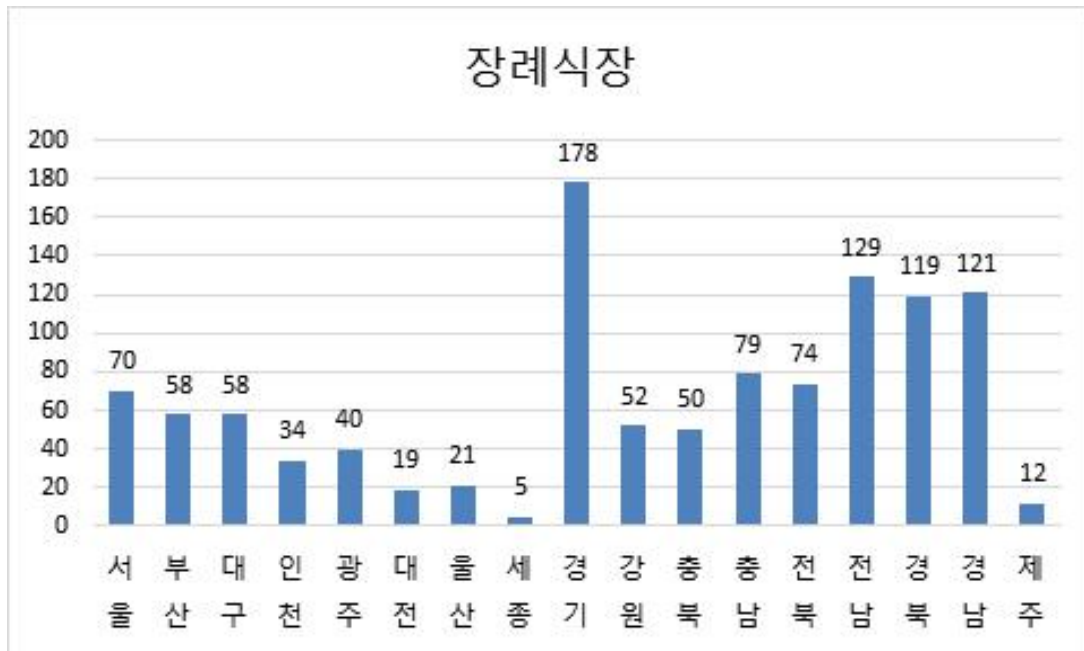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4. 장례식장 현황

- 병원장례식장은 1995년 의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장례식장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장례식장의 설치가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장례식장은 기존에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 크게 제한이 없었으나, 201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 장례용품 가격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음.
-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19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34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3-2> 전국 장례식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제2절 인천시의 장사시설 현황

1. 인천가족공원 현황

1) 인천가족공원 개요

- 묘지, 화장장, 봉안당 및 자연장지로 구성된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설 종합장사시설임. 인천광역시 도심인 부평구 부평2동 일대 1,680,694㎡(약 50.8만 평)에 위치함.
- 인천가족공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연혁을 가지고 있음.
 - 화장장 및 봉안당 : 1936년 남구(현 미추홀구)에 시립화장장을 설립한 후 1977년에 현재 위치인 부평구로 이전함. 화장로는 2011년 승화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재와 같은 20기를 갖추게 됨.
 - 묘지 : 1934년에 공동묘지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던 묘지를 묘지공원 형태로 하여 관리·운영함. 2006년에 부평묘지공원에서 인천가족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2006년 부평묘지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생태를 복원하고 시민공원화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친화 장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함. 그 결과, 현재는 체육, 문화, 공원, 생활시설을 갖춘 시민친화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2)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 인천가족공원은 약 168만 m²의 대지면적에 묘지관련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하여 설립됨.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에 위치하고 있어, 외곽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다른 시·도의 장사시설들과 달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음.

<표 3-5>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2018년 기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건축물 명칭	인천가족공원
대지면적	1,680,694 (㎡)	연면적	21,808.13 (㎡)	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	-
건축면적	11,804.54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992.27 (㎡)	건축물수	15동	주용도	묘지관련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건폐율	-	용적률	-	총호수	세대/호/가구	총주차 대수	549면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인천가족공원은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 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입구 부근에는 썸지공원, 가로공원, 자연학습장 등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그림 3-3> 인천가족공원 현황도(2018년 기준)



자료 : 인천시설공단 <http://www.insiseol.or.kr/>

-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인천가족공원은 총 22개소의 일반시설물을 갖추고 있음.
 - 일반시설물에는 묘지, 봉안당을 비롯하여 화장실, 약수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포함됨.
 - 묘지면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시설물은 화장장인 승화원임.
 -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시설물은 봉안당 중 하나인 금마총이며, 자연장지는 준공일이 2016년 5월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됨.

<표 3-6> 인천가족공원 일반시설물 현황(2018년 기준)

시설명		면적(㎡)	규모	준공일	비고
부평 공원묘지		1,688,729㎡	-	-	묘지 관련시설
왕길동 조성묘지		12,099.00㎡	-	-	
화장장	승화원	5,608.22㎡	지하1층 지상2층	2010.04.15.	
봉안당	추모의 집	2,248.00㎡	지하1층 지상3층	2003.01.04.	
	금마총	818.97㎡	지하1층 지상1층	2001.05.04.	
	만월당	3,701.00㎡	지하1층 지상3층	2010.10.18.	
	평온당	5,425.08㎡	지하1층 지상3층	2016.05.15.	
봉안당	회랑형봉안당	456.00㎡	-	2016.05.15.	
	외국인묘역	1,145.03㎡		2016.05.15.	
	자연장1	189.88㎡		2016.05.15.	
	자연장2	255.84㎡		2016.05.15.	
	자연장3	518.40㎡		2016.05.15.	
옥외 화장실	승화원화장실	58.78㎡	지상1층	2010.04.15.	
	금마총화장실	48.00㎡	지상1층	2001.05.04.	
	주차장화장실	73.53㎡	지상1층	2010.10.18.	
	쌈지공원	85.84㎡	지상1층	2016.05.15.	
	부령약수터	55.06㎡	지상1층	2016.05.15.	
	칠성약수터	85.84㎡	지상1층	2016.05.15.	
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1,915.98㎡	지하1층 지상2층	2010.10.18.	
상가		689.95㎡	지하1층 지상2층	2010.10.18.	
세월호추모관		504.53㎡	지하1층 지상2층	2016.01.13.	
경비실		16.59㎡	지상1층	2010.10.18.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3) 인천가족공원 시설별 세부현황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및 인천가족공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가족공원 시설별 세부현황을 검토함.

○ 묘지

- 면적 : 1,668,729㎡

- 구분 : 일반묘, 가족봉안묘, 계단식조성묘
- 안치규모 : 총 43,157기
 - 일반묘 : 36,041기
 - 가족봉안묘 : 3,765기
 - 계단식조성묘 : 3,351기

○ 화장시설(승화원)

- 면적 : 5,608.22㎡
- 층별시설 : 지하1층(카페테리아), 지상1층(유족대기실, 화장로, 관망실, 수골실 등), 지상2층(식당, 매점)
- 화장로 : 20기(1회차당 9기(예비 1기) 운영, 1일 처리능력 72기)
- 화장시간 : 오전 7시에 1회차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하여 화장을 실시하며, 생장은 1회차부터 8회차에, 개장유골은 9회차, 10회차에 화장함.
- 화장건수 : 2017년 23,783건이었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12,996건임.

○ 봉안시설

- 봉안당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추모의 집 등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온당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기준 세 개의 봉안당이 만장됨.
- 봉안당은 회랑형 봉안당, 외국인 봉안당 등으로 구분되며, 봉안당 I 은 부부가 합동으로 봉안되는 시설임.

<표 3-7>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기)

구분		면적 (㎡)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실적 (기)	봉안가능기수 (기)	만장일
계			122,135	88,440	33,695	
평 온 당	추모의 집	2,248	19,320	19,320	0	2007. 12. 29
	금마총	819	16,675	16,675	0	2010. 05. 23
	만월당	3,701	29,184	29,184	0	2015. 02. 24
	평온당	5,425	36,656	22,882	13,774	
봉 안 당	회랑형		3,990	21	3,969	
	외국인	1,145.03	9,330	252	9,078	
	봉안당 I (부부)		1,140	106	1,034	
	봉안당 II		1,696	0	1,696	
	봉안당 III		4,144	0	4,144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2018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

○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내 자연장은 수목장림, 늘푸른잔디장, 하늘정원잔디장, 정원형수목장으로 구성됨.
- 2015년 2월부터 안치를 시작한 하늘정원잔디장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현재 수목장림, 늘푸른잔디장, 정원형수목장은 만장됨.
- 잔디장의 경우 평균 하루에 3-4건 안치됨.

<표 3-8>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m², 기, %)

구분	면적 (m ²)	안치능력 (기)	안치실적 (기)	가능기수 (기)	안치율 (%)	비 고
계	28,356	6,312	5,473	839		
수목장림	23,500	1,366	1,366	0	100%	2012. 06. 30 만장
늘푸른잔디장	712	1,321	1,321	0	100%	2015. 02. 01 만장
하늘정원잔디장	2,475	3,068	2,229	839	73%	2015. 02. 02 이후 안치시작
정원형수목장	1,669	557	557	0	100%	2017. 4. 26 만장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유택동산

- 유택동산은 화장을 마친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함에 수습한 후 봉안당에 모시지 않고 유골을 뿌리는 장소임.
- 유택동산의 안치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봉안함 내 유골의 양을 파악하여 일정한 양에 도달했을 때 사전에 정해진 합동분묘로 유택동산에 안치되었던 유골을 이장함.

<그림 3-4>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그림 3-5> 인천가족공원 합동분묘



4)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 인천가족공원은 3단계에 걸친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장사수요에 맞춰 만장된 인천가족공원의 시설을 재개발하고, 인천가족공원을 환경친화적 테마공원으로 조성함(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단계별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일시 : 2006~2010년(완료)
 - 1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
 - 신축 봉안당 건립 : 지상 3층(3,701.29㎡), 안치규모 30,064위
 - 진입로 정비 :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소공원 조성
 - 생태하천복원: 연장 1.4km, 폭원 6~20m
 - 관리사무실(홍보관) 설립 : 지상 2층(1,632㎡)

- 2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일시 : 2011~2015년(완료)
 - 2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
 - 봉안당 건립 : 지상 3층 36,000기(5,425.08㎡)
 - 봉안담 20,087기, 자연장 5,004기 조성
 - 썸지공원(6,320㎡), 외국인 특화묘역 조성 등

- 3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일시 : 2016~2021년(추진 중)
 - 3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설치를 통한 이용편익 증진
 - 편익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의 장 제공
 - 전체사업 완료를 통한 안정적 장사시설 수급 및 쾌적한 환경조성

- 이와 같이 현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까지 완료됨. 이러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조성된 인천가족공원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장 5,004기, 봉안담 20,087기를 조성하여 총 60,905기의 안치능력을 확보함.

<표 3-9>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현황(2018년 기준)

(단위: m², 대, 기)

구분	면적(m ²)			주차 대수 (대)	안치능력(기)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봉안당면적		계	봉안	자연장	
계	179,703	8,177.24	2,581.31	197	60,905	56,151	5,004	
평온당	42,203	2,218.65		45	36,064	36,064	250	연면적 5,425.08
외국인 묘역	21,588		1,145.03	15	9,117	9,117		중국인691.03m ² 다문화454.00m ²
자연장 및 봉안당	I	10,752	189.88		2,742	1,140	1,602	담H=2.5
	II	17,760	255.84		4,224	1,696	2,528	담H=2.5
	III	12,140	518.40		4,768	4,144	624	담H=2.5
쌘치 공원	경비실	6,320	16.59	3				
	화장실		85.84					
도로 및 주차장	화장실	27,132	140.90	19				
	회랑형 봉안당		492.16		3,990	3,990		(H3.3×L6)× 6개소
	주차장		5,223.10	115				
기타(기존묘역 및 도로 등)	41,808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2018년 현재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이 추진 중임(인천광역시청, 2018a).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8-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47,441m²

※ 분묘(약 4,717기), 봉안당(39,000기, 지상 3층, 5,451m²), 테마형 자연장지(약 14,000기, 자연장조성 50,417m²), 산림복원(109,857m²), 순환도로(51a), 산책로(28a), 휴게음식점(232m²) 등

- 사업비 : 49,646백만원 [국비 11,668(24%), 시비 37,978(76%)]

- 봉안당 건립공사 규모 : 봉안당(5,451m², 지하1/지상3), 휴게음식점(232m², 지상1), 부대토목, 부대조경

- 추진실적

- 2015. 12. 10. : 설계용역 착수
- 2016. 06. 20. : 기본설계 완료
- 2016. 08.~2017. 09. : 행정절차 이행(실시계획 인가 등)
- 2017. 10. 31. : 봉안당 건축공사 입찰공고
- 2017. 11. 2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7. 12. 01. : 봉안당 건축공사 입찰 개찰
- 2017. 12. 19. : 감리용역 가격입찰 공고(2개업체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2017. 12. 27. : 봉안당 건립공사 착공
- 2017. 12. : 감리용역 적격심사, 계약 및 착수
- 2018. 01.~02. : 동절기 공사중지
- 2019. 05. : 공사 준공
- 2020. 12. : 자연장지 조성 및 산림복원 공사 준공

<그림 3-6>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조감도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a)

2. 인천시 묘지 현황

1)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

- 2017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묘지는 857개소로 102,356기의 분묘 설치 가능함.
- 이 중 82개소는 공설묘지로 향후 88,339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775개소는 사설묘지로 14,017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음.

<표 3-10>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1000m², 기)

군·구별	전체				공설묘지				사설묘지			
	개소	면적(m ²)		분묘 설치 가능 (기)	개소	면적(m ²)		분묘 설치 가능 (기)	개소	면적(m ²)		분묘 설치 가능 (기)
		총 면적	점유 면적			총 면적	점유 면적			총 면적	점유 면적	
부 평 구	1	1,668	1,668	-	1	1,668	1,668	-				-
중 구	3	117	48	104	1	116	47	100	2	1	1	4
미추홀구	1	12	12	-	1	12	12	-				-
남 동 구	4	29	29	-	4	29	29	-				-
서 구	166	1,022	1,022	10,572	3	16	16	50	163	1,006	1,006	10,522
강 화 군	477	1,010	1,010	90,567	61	966	966	87,351	416	44	44	3,216
옹 진 군	191	248	28	1,113	11	240	20	838	180	8	8	275
계 양 구	14	1	1	-					14	1	1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2) 공설묘지 현황

- 공설묘지의 묘역면적은 2,760,657m²이며, 총매장가능기수는 144,205기임. 2017년 말 현재 기매장기수는 55,866기이며,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88,339기임.
- 공설묘지 중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과 서구에 위치한 왕길공설묘지는 인천광역시청이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관리하며, 이 외에 80개소는 군·구가 관리함.
 - 인천시(인천시설공단)가 직접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총 묘역면적은 1,680,828m²임.
 - 인천가족공원의 묘역면적은 1,668,729m²이며, 기매장기수는 40,677기임.
 - 왕길공설묘지의 묘역면적은 12,099m²이며, 기매장기수는 851기임.
 - 군·구가 관리하는 80개소의 공설묘지는 1,079,829m²의 묘역면적에 기매장기수는 14,338기임.

<표 3-11> 인천시 공설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m², 기)

군·구별	개소	묘역면적 (m ²)	총매장 가능기수(기)	매장기수 (기)	비고
강 화 군	61	966,431	97,452	10,101	
미추홀구	1	12,857	334	334	
남 동 구	4	16,596	957	957	
부 평 구	1	1,668,729	40,677	40,677	인천가족공원
서 구	3	28,561	1,682	1,632	
옹 진 군	11	20,260	912	74	
중 구	1	47,223	2,191	2,091	
합 계	82	2,760,657	144,205	55,866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3) 사설묘지 현황

- 사설묘지는 법인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로 구분됨.
 - 사설묘지는 대부분 서구, 강화 등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음.
- 인천시의 법인묘지는 2017년 기준 7개소이며, 허가면적은 233,395㎡임.
 - 인천시의 법인묘지 7개소는 모두 서구에 위치해 있음.
 - 총매장가능기수 31,196기이며, 2017년 말 현재 기매장기수는 20,674기이고,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10,522기임.

<표 3-12> 인천시 법인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년, ㎡, 기)

군·구별	묘지명	관리주체	묘지설치현황					
			설치 연도 (년)	허가 면적 (㎡)	묘역 면적 (㎡)	총매장 가능기수 (기)	기매장 기수 (기)	향후매장 가능기수 (기)
서 구	하늘의 문	(재)한국천구교 인천교구	1969	29,950	29,950	3,200	2,289	911
서 구	하늘의 문	(재)한국천구교 인천교구	1973	115,240	115,240	20,000	11,114	8,886
서 구	황해도민 묘지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1967	43,735	43,735	4,859	4,859	0
서 구	호남 향우회	재인 호남향우회	1973	11,900	11,900	1,322	1,322	0
서 구	양우회	양우회	1975	19,834	19,834	1,235	587	648
서 구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회	1974	7,735	7,735	290	290	0
서 구	송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월교회	2003	5,001	5,001	290	213	77
전 체				233,395	233,395	31,196	20,674	10,522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의 개인묘지는 2017년 기준 신고(허가)면적이 12,090㎡임.
 - 개인묘지는 계양구에 13개소, 강화군에 228개소 등 총 403개소가 있음.
 - 2017년 매장기수 6기를 포함하여 기매장기수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403기임.

<표 3-13> 인천시 개인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신고(허가)개소수	신고(허가)면적 (㎡)	기매장기수 (기)	17년 매장기수 (기)
전 체	403	12,090	403	6
계양구	13	390	13	0
강화군	228	6,840	228	1
옹진군	162	4,860	162	5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 가족묘지는 총 175개소로 신고(허가) 면적은 20,324㎡이며, 총매장가능기수는 1,774기임.
- 2017년 말 기준으로 기매장기수는 493기이며, 향후 1,281구의 매장이 가능함.
 - 가족묘지는 중구에 2개소, 서구에 12개소, 강화군에 145개소, 옹진군에 16개소가 있음.

<표 3-14> 인천시 가족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수	신고(허가)면적 (㎡)	총매장가능기수 (기)	기매장기수 (기)	향후매장가능기수 (기)
전 체	175	20,324	1,774	493	1,281
중 구	2	966	8	4	4
서 구	12	3,403	189	189	0
강화군	145	14,355	1,417	200	1,217
옹진군	16	1,600	160	100	60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 중중·문중묘지는 190개소로, 총 793,786㎡의 면적에 조성됨.
- 2017년 매장기수 1기를 포함한 기매장기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9,977기이며, 향후 2,214구의 매장이 가능함.
 - 가족묘지는 계양구에 1개소, 서구에 144개소, 강화군에 43개소, 옹진군에 2개소가 있음.

<표 3-15> 인천시 중중·문중묘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수	신고(허가)면적 (㎡)	총매장가능기수 (기)	기매장기수 (기)	향후 매장가능기수 (기)	17년 매장기수 (기)
전 체	190	793,786	12,191	9,977	2,214	1
계양구	1	600	11	11	0	
서 구	144	768,956	9,667	9,667	0	
강화군	43	22,931	2,293	294	1,999	1
옹진군	2	1,299	220	5	215	0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3. 인천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1) 화장장 현황

- 인천시의 화장장은 부평구 부평2동 산 57-1번지에 위치한 공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1개소이며, 화장장의 화장로는 20기임.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경우 1994년 6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에서 출발하여, 1995년 8기, 2002년 11기, 2004년 15기, 2010년 20기의 화로를 갖춘 대형 화장장으로 성장함.

2) 봉안시설 현황

- 봉안시설은 봉안당을 포함하여,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을 모두 포함함.
- 봉안시설은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공설 봉안시설과 사설 봉안시설로 크게 구분하고, 사설 봉안시설은 다시 법인·종교단체·기타 봉안시설로 구분함.
- 인천시의 봉안시설은 2017년 말 기준 21개소이며, 전체 봉안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322,108기임.
-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내에서 공설 봉안시설 5개소와 사설 봉안시설(법인 봉안시설, 종교단체 봉안시설, 기타 봉안시설) 16개소가 운영 중임.
- 봉안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설부문이 현재까지 주로 기능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음. 2017년 봉안실적을 보면 공설부문이 전체의 약 82%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2017년 봉안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던 공설부문의 향후 봉안능력은 31,949기로 전체의 약 15%에 그침. 즉, 나머지 법인, 종교 및 기타 봉안시설들과 같은 사설 봉안시설이 85%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는 사설 봉안시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표 3-16> 인천시 봉안시설 현황 종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기)

구분	개소	총봉안능력 (기)	누계봉안기수 (기)	향후봉안가능기수 (기)	2017년 봉안실적 (기)
공설	5	116,295	84,346	31,949	7,286
법인	2	136,300	15,901	120,399	938
종교	5	38,117	6,242	31,875	611
기타	9	31,396	761	30,635	41
합계	21	322,108	107,250	214,858	8,876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1) 공설 봉안시설

- 인천시의 공설 봉안당은 인천가족공원에 소재한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평온당으로 4개소이며, 인천가족공원 내에 마련된 봉안담까지 포함하면 총 5개소의 공설 봉안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공설 봉안당 4개소는 101,835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84,002기가 봉안되어 있음.
 - 2003년에 설치된 추모의 집 및 2007년에 설치된 금마총, 2010년에 설치된 만월당의 경우 이미 만장된 상태임.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은 2017년 말 기준으로 344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향후 14,116기를 봉안할 수 있음.

<표 3-17> 인천시 공설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년, 기)

봉안당 명칭	설치 연도 (년)	봉안현황			2017년 봉안실적 (기)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봉안가능기수 (기)	
전체		116,295	84,346	31,949	7,286
추모의 집	2003	19,320	19,320		
금마총	2007	16,675	16,675		
만월당	2010	29,184	29,184		
평온당	2015	36,656	18,823	17,833	7,046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		14,460	344	14,116	240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2) 사설 봉안시설

-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은 법인 봉안시설, 종교단체 봉안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종중·문중 봉안당과 개인·가족 봉안당 및 봉안묘·담·탑 등은 기타 봉안시설로 구분될 수 있음.
- 2017년 말 기준 인천시의 법인 봉안시설은 강화군에 있는 강화 파라다이스로, 2016년에 종교단체 사설 봉안당에서 법인 사설 봉안당으로 변경됨.
- 2017년 봉안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 중 가장 큰 규모는 법인 봉안당으로, 전체 봉안당 안치능력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법인 봉안당의 봉안기수는 총봉안가능기수의 9.6%인 9,709기임.
- 2017년 봉안실적 상 공설 봉안당인 인천가족공원에 봉안한 기수가 7,286기임을 고려한다면, 법인 봉안당에 안치한 기수는 공설 봉안당 안치규모의 8.6%인 633기에 불과함.
- 강화 파라다이스 내 봉안탑은 2017년 기준 기봉안기수가 6,192기이며, 향후 53,808기를 봉안할 수 있음.

<표 3-18> 인천시 법인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년, 기)

군·구별	봉안당 명칭	관리 주체	설치 연도 (년)	봉안현황			2017년 봉안실적 (기)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봉안가능기수 (기)	
강화군	강화 파라다이스	법인	2004	76,300	9,709	66,591	633
강화군	강화 파라다이스 내 봉안탑	법인		60,000	6,192	53,808	305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는 종교단체 봉안당으로, 전체 봉안당 안치능력의 14.5%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기봉안기수는 총봉안가능기수의 6.2%인 6,242기임.
- 2017년 봉안실적 상 공설 봉안당인 인천가족공원에 봉안한 기수가 7,286기임을 고려한다면, 종교단체 봉안당에 안치한 기수는 공설 봉안당 안치규모의 8.3%인 611기에 불과함.
- 하늘의 문, 송월교회 내 마련된 봉안묘는 2017년 기준 기봉안기수가 2,484기이며, 향후 1,690기를 봉안할 수 있음.

<표 3-19> 인천시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년, 기)

군·구별	봉안당 명칭	관리주체	설치 연도 (년)	봉안현황			2017년 봉안 실적 (기)
				총 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 봉안가능기수 (기)	
전 체				38,117	6,242	31,875	611
남동구	약사사지장천 추모관	대한불교 화엄종 약사사	2006	5,000	1,362	3,638	167
남동구	고잔성당 몽은당 (재)인천교구	인천교구 천주교회	2012	609	239	370	20
연수구	흥륜사 정도원	대한불교 관음종	2008	13,000	2,030	10,970	402
강화군	예수사랑제일교회 동주향마을 강화메모리얼파크	종교단체	2010	15,334	127	15,207	22
서 구	하늘의 문, 송월교회 내 봉안묘	(재)한국천주교 인천교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4,174	2,484	1,690	-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 중 가장 세 번째로 큰 규모는 문중 및 가족 봉안당 등과 같은 기타 봉안시설으로 전체 봉안시설 안치능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기봉안기수는 총봉안가능기수의 0.8%인 761기임.
 - 2017년 봉안실적 상 공설 봉안당인 인천가족공원에 봉안한 기수가 7,286기임을 고려한다면, 문중 및 가족 봉안당에 안치한 기수는 41기에 불과함.

<표 3-20> 인천시 기타 봉안시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기)

군·구별	운영 주체	봉안시설 구분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봉안 가능기수 (기)	2017년 봉안실적 (기)	비고
전 체			31,396	761	30,635	41	
남동구	중중. 문중	봉안당	256	70	186	-	경주김씨참의공파
남동구	중중. 문중	봉안묘	250	250	0	-	해주최씨판사복시 공파
남동구	중중. 문중	봉안묘	192	24	168	-	전주이씨완원군후 한상파
남동구	가족	봉안묘	24	11	13	-	박관섭씨가족묘
서 구	중중	봉안묘	448	21	427	-	
서 구	가족	봉안묘	168	19	149	-	
강화군	개인	봉안당	30,000	364	29,636	39	민들레추모원
강화군	가족	봉안묘	34	1	33	1	
강화군	가족	봉안탑	24	1	23	1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4. 인천시 자연장지 현황

- 인천시의 자연장지는 59개소로서 공설 자연장지 5개소, 사설 자연장지 27개소, 개인·가족 자연장지 10개소, 문중 자연장지 17개소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이 조성한 23,500㎡의 수목장림은 2017년 기준으로 현재 만장됨.
-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 중 하늘정원 잔디장지와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 등은 총 1,946기의 봉안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임. 그러나 자연장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빠른 기간 안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

<표 3-21> 인천시 공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기)

군·구별	자연장지 명칭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2017년 자연장 실적 (기)
			총자연장능력 (기)	기자연장기수 (기)	향후자연장 가능기수(기)	
전 체	5	37,038	6,714	4,768	1,946	894
본 청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23,500	1,366	1,366	0	0
본 청	정원형 수목장	1,669	557	557	0	92
본 청	늘푸른 잔디장	712	1,321	1,321	0	0
본 청	하늘정원 잔디장	2,475	3,068	1,522	1,546	802
옹진군	연평리 공설묘지	3,000	104		104	-
옹진군	이작1리 공설묘지	1,697	92	2	90	-
옹진군	선재리 공설묘지	1,263	128		128	-
옹진군	장봉리 공설묘지	2,722	78		78	-

※ 본청의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정원형 수목장 등은 모두 인천가족공원 내의 자연장지이므로 1개소로 측정함.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의 사설 자연장지는 현재 조성면적 24,614㎡로 총자연장능력은 24,614기이며, 향후 자연장가능기수는 24,584기임.

<표 3-22> 인천시 사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구분	개소수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2017년 자연장 실적 (기)
			총자연장능력 (기)	기자연장기수 (기)	향후 자연장가능기수 (기)	
전체	27	24,614	24,614	30	24,584	15
개인·가족	10	561	561	8	553	3
종중·문중	17	24,053	24,053	22	24,031	12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5.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 2017년 12월 인천시의 장례식장은 총 32개소임.

- 지역별로는 서구 7개소,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4개소, 부평구, 강화군 3개소, 동구, 남동구, 연수구 2개소로 분포되어 있음. 본청의 공설 장례식장으로는 인천의료원장례식장이 있으며 동구에 위치함.
- 이는 2013~2017년 인천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2013년에 조사한 시점보다 전체적으로 6개소가 증가한 것임.

<표 3-23>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단위: 년, 개소)

연도 (년)	전체 (개소)	본청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17	32	1	4	2	4	2	2	3	4	7	3
2013	26	0	2	3	4	2	2	2	3	6	2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32개소의 장례식장 중 직영은 17개소이고, 15개소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6개소의 장례식장은 모두 직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빈소수는 185소로 321구를 안치할 수 있음.

<표 3-24> 인천시 장례식장 운영형태별 현황

(단위: 년, 개소, 구)

연도(년)	직영(개소)	임대(개소)	빈소수(개소)	안치능력(구)
2017	17	15	185	321
2013	11	15	148	249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32개소의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빈소수가 가장 많은 장례식장은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15개소의 빈소수를 갖추고 있음. 이와 비교해 빈소수가 가장 적은 장례식장 또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천연세병원 장례식장과 온누리장례식장의 경우 빈소수가 2개소에 그침.
- 안치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안치능력을 가진 장례식장은 빈소수가 가장 많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24구)이며, 길병원 장례식장(18구), 인천의료원장례식장(16구),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14구) 순으로 나타남. 안치능력이 가장 적은 장례식장은 강화군의 참사랑 장례식장이며 안치능력이 4구로 나타남.

<표 3-25> 인천시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구)

연번	군·구별	장례식장 명칭	운영형태	빈소수 (개소)	안치능력 (구)
1	본 청	인천의료원장례식장	직영	8	16
2	중 구	인하대병원장례식장	직영	8	14
3	중 구	예지장례식장	임대	3	6
4	중 구	삼성장례문화원	직영	3	6
5	중 구	인천기독병원장례식장	임대	3	6
6	동 구	백병원장례식장	임대	4	8
7	동 구	청기와장례식장	직영	10	12
8	미추홀구	성인천장례식장	직영	5	10
9	미추홀구	금강장례문화원	직영	7	10
10	미추홀구	인천사랑병원장례식장	직영	4	14
11	미추홀구	시민장례식장	직영	4	10
12	연 수 구	적십자병원장례식장	임대	7	9
13	연 수 구	연수역장례식장	직영	5	8
14	남 동 구	길병원장례식장	직영	11	18
15	남 동 구	간석장례식장	직영	3	6
16	부 평 구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	4	6
17	부 평 구	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직영	12	14
18	부 평 구	세림병원 장례식장	임대	7	12
19	계 양 구	새천년장례식장	직영	7	10
20	계 양 구	계양청기와장례식장	직영	9	12
21	계 양 구	한림병원 장례식장	임대	5	6
22	계 양 구	세종병원 장례식장	임대	7	14
23	서 구	온누리장례식장	임대	2	8
24	서 구	검단탐병장례식장원	임대	4	10
25	서 구	성민병원장례식장	임대	3	6
26	서 구	나은병원장례식장	임대	7	10
27	서 구	보람인천장례식장	직영	6	10
28	서 구	인천연세병원장례식장	임대	2	6
29	서 구	국제성모병원장례식장	임대	15	24
30	강 화 군	강화병원장례식장	임대	3	8
31	강 화 군	강화장례식장	직영	4	8
32	강 화 군	참사랑장례식장	직영	3	4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8b)

제3절 인천시의 기타 묘지 현황

1. 검단묘지공원

- 검단묘지공원의 사업대상지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산 178-1번지의 627,000㎡ 부지에 위치하고 있음.
- 검단묘지공원의 남측은 개발제한구역, 동측·서측·북측은 검단신도시 택지사업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왕복 4차로의 드림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는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는 형태임.
- 드림로 북측의 면적은 297,000㎡, 드림로 남측의 면적은 330,000㎡임.
- 드림로 북측이자 검단묘지공원 조성부지 동측은 원당지구의 원당신안실크밸리아파트와 250m 떨어져 있음.
- 드림로 북측이자 검단묘지공원 조성부지 서측은 당하지구의 대우푸르지오아파트와 300m 떨어져 있음.

<그림 3-7>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2014년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4)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기존 묘지는 7개의 단체(양우회 포함)와 5개 문중 등이 소유하여 운영함.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의 총 안치가능 규모는 34,021기이며, 2014년 기준으로 25,046기가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면적의 약 4.3%인 27,102㎡는 국·공유지이며, 나머지 95.7%는 단체, 법인, 일반개인 등의 토지임.
 - 단체 및 양우회, 문중토지는 357,310㎡로 전체 면적의 56.9%를 차지하며, 천주교회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137,717㎡로 가장 큼.
 - 일반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242,588㎡로 전체 면적의 38.8%를 차지함.
 - 종교단체, 문중, 향우회, 양우회, 일반개인사유지 등이 소유한 집단묘지가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어 복잡한 소유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의 약 40%는 묘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농경지 혹은 소규모 공장 등으로 쓰이고 있음.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인천도시공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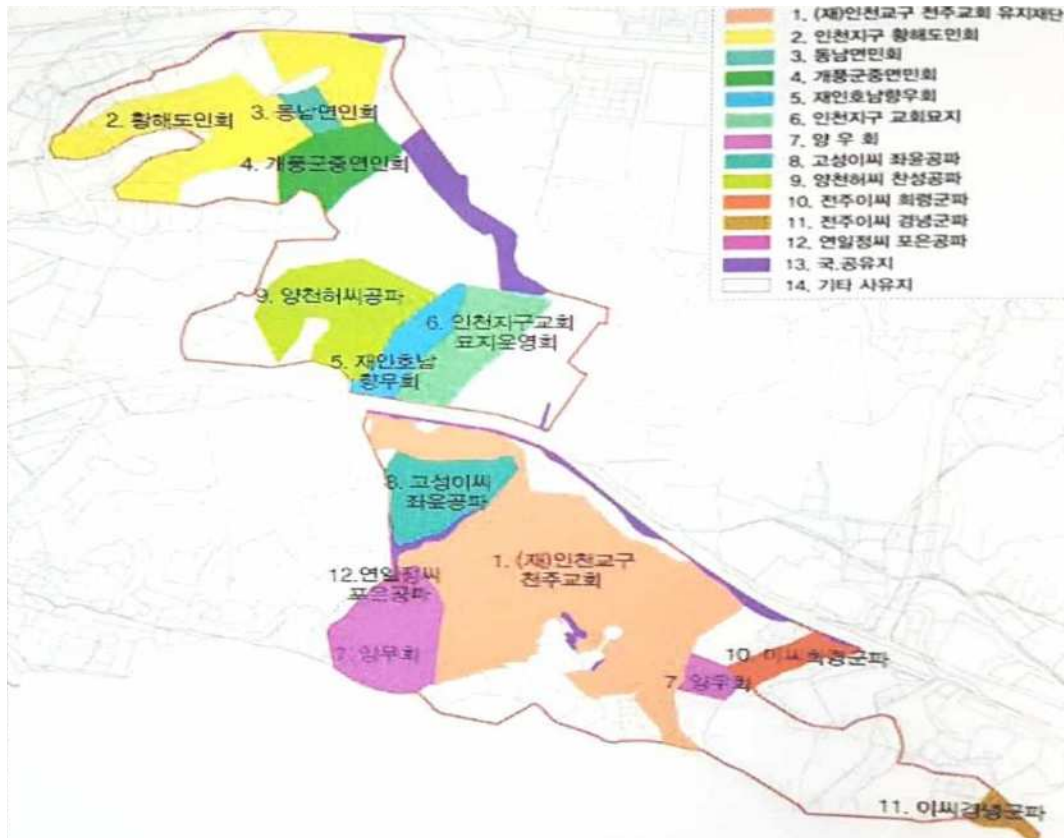
<표 3-26>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 기)

구분			면적(㎡)	비율(%)	묘지기수 현황(기)	
					가능	안치
전체			627,000	100.0	34,021	25,046
묘지	묘지 전체		-	-	30,424	22,668
	단체	소계(6개)	255,200	40.8	29,189	22,099
		(재)천주교회	137,717	22.0	20,000	12,910
		황해도민회	59,377	9.5	4,489	4,489
		동남연민회	4,364	0.7	120	120
		개풍군 중면민회	17,489	2.8	250	250
		인천지구교회	23,010	3.7	3,300	3,300
		재인호남향우회	13,243	2.1	1,030	1,030
	양우회(79인, 80필지)		32,484	5.2	1,235	569
	문중묘역(5개 문중)		69,626	11.0	-	-
	기타	사유지	242,588	38.7	-	-
		국,공유지	27,102	4.3	-	-
봉안 시설	봉안시설 전체		-	-	3,597	2,378
	부활의동산(천주교)		-	-	3,597	2,378

자료 : 인천도시공사(2014)

<그림 3-8>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도(2014년 기준)



자료 : 인천도시공사(2014)

- 검단묘지공원은 1998년 6월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조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이용갑 외, 2013).
 - ① 검단신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검단묘지공원을 신도시 개발 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로 원활한 신도시사업을 추진함
 - ② 인천 서북부지역의 안정적 장사시설 확보 및 혐오지역에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로 탈바꿈 서북부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함.
 -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이 추진됨 (인천도시공사, 2014).
 - 1998. 06.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결정
 - 2002. 02. : 검단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도입시설 : 묘역, 납골당, 장례식장, 주차장 등
 - 2004. 10. :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 납골당, 장례식장 ⇒ 녹지로 변경

- 2010. 08.~2013. 03. : 검단묘지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묘지공원 ⇒ 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변경
- 2013. 06.~2014. 04. :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 그러나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은 2018년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09년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통해 검단묘지공원을 2017년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함을 밝힘 (인천광역시청, 2009).
- 이에 따라 2002년 『검단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 2013년 『검단묘지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이 수립됨.
-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수립계획으로는 검단묘지공원 조성 및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새로 발주하고 2014년에 용역을 준공함.
- 이처럼 사업화방안에 대한 검토는 추진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 사업 결정일부터 2014년까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인천광역시청, 2014).
 -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가 곤란함.
 - 2019년까지 인천시의 장사수급에 차질이 없음.
 - 검단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와 공원조성을 협의 중에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검단묘지공원은 2014년 10월에 “검단묘지공원은 기존 묘지가 집중된 지역으로 검단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장사시설 설치 등 고지공원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존치한다”는 결정하고 2017년 이후 단계별 집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으나(인천광역시청, 2014), 2018년 현재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영종메모리얼파크

-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봉안당(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함.
- 현재 영종도 내 인천시 중구 운북동 산 154-1 116,003㎡ 부지에 영종공설묘지가 위치하여 있음.

- 그러나 2017년 기준 2,191구가 매장 가능한 영종공설묘지에 2,091구가 매장되어 있어, 향후 100구만 매장 가능한 상황으로 곧 만장이 예상됨(인천광역시청, 2018b).
- 영종도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진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 매장자의 이장수요가 늘어나고, 영종도 내에 신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묘지부족으로 인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봉안당 건립 계획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됨(이용갑 외, 2013).

○ 봉안당(영종메모리얼파크)의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다음과 같음.

- 봉안당은 100,000㎡ 규모의 묘지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봉안당 규모는 4,000㎡, 연면적 3,000㎡으로 건립될 예정임.
- 총 사업비는 120억원임.
- 봉안당 4개 동을 건립하고 1동당 5,000기, 총 2만기 안치가 가능한 규모로 건립될 예정임(경향신문, 2017).
- 사업시행자 즉, 봉안당 건립을 시행하는 주체는 영종도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임.
- 2008년 봉안당 건립협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이 추진됨(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0).
 - 2008. 09. 30. : 봉안당 건립협약 체결
 - 2009. 01. 16. : 봉안당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09. 04. 10. : 봉안당 건축설계공모 심사완료
 - 2009. 05. 26. : 설계용역 착수

<그림 3-9>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주요사업계획(2010년 기준)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10)

<그림 3-10> 봉안당(영종메모리얼파크) 설치 계획도(2013년 기준)



자료 : 이용갑 외(2013)

- 그러나 봉안당 건립은 2009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9월 인천광역시, LH 및 인천도시공사는 봉안당 건립협약 체결 후 2009년 10월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 건립공사 착공, 2011년 6월 건립공사 준공을 목표로 함.
 - 그러나 2009년에 봉안당 건립 예정 부지 내의 인천화약 저장고 이전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됨.
 - 2011년 6월 사업자인 메모리얼파크가 협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2011년 6월 메모리얼파크 협약 건립 이행을 요청하였음.
 - 2015년에 인천화약의 저장고를 강화도로 이전하면서 봉안당 건립 예정 부지를 확보함.
 -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공항신도시 및 영종하늘도시의 일부주민들은 봉안당 건립을 반대하며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과 동시에, 2018년 4월 25일에는 국민청원을 제기함. 봉안당 건립 반대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시사인천, 2017; 시사인천, 2018).
 -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있는 영종도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기에 봉안당 건립은 영종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학교나 교통, 의료시설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안당 건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임.
 - 영종하늘도시는 상업지역·업무지역이라 봉안당 건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
 -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에는 봉안당 설치가 불가함.
 - 봉안당은 주민기피시설이므로 주민 반대가 있을 시 설치할 수 없음.

제 4 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이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

제4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이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

제1절 전국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2017년에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화장시설 서비스 및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7b).
- 조사설계,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조사설계

-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조사대상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전국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족으로, 시설별 이용자수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4,540명(일반시신 3,500명, 개장유골 1,040명)을 표본으로 선정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① 장사정보시스템 이용만족도 ②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③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조사함.

<표 4-1>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조사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족
표본수	• 총 4,540명 - 일반시신 : 3,500명 - 개장유골 : 1,040명
표본추출	• 1차 : 일반시신 - 시설별 30명 임의할당 개장유골 - 시설별 20명 임의할당 • 2차 : 시설별 이용자수에 맞춰 제공된 비례할당
표본오차	• 무작위 표집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1.44\%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 시기	• 2017년 12월 5일~12월 22일
조사 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전체 사례수는 4,540명이며,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응답자 중 남성, 60대 이상, 대학교 재학 이상, 무교 및 기타, 200만원-300만원의 소득인 대상자의 수가 많음.
- 일반시신을 화장한 응답자가 3,500명(77.1%)로 개장유골을 화장한 응답자에 비해 많음.
- 지역은 이용한 화장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지역1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것이며, 지역2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 전국 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한 것임.
-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응답자가 69.9%로 보다 많으며, 화장시설 지역이 충청권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음.

<표 4-2>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의 응답자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3,791	83.5	월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888	19.6
	여	749	16.5		200만원-400만원	1,541	33.9
연령	20대	248	5.5		400만원-600만원	1,247	27.5
	30대	560	12.3		600만원 이상	864	19.0
	40대	1,028	22.6	구분	일반시신	3,500	77.1
	50대	1,345	29.6		개장유골	1,040	22.9
	60대 이상	1,359	29.9	지역1	수도권	1,367	30.1
					비수도권	3,173	69.9
학력	중졸 이하	460	10.1	지역2	수도권	1,367	30.1
	고졸	1,427	31.4		충청권	1,419	31.3
	대재 이상	2,565	56.5		전라권	554	12.2
	거절/무응답	88	1.9		경북권	538	11.9
종교	기독교	930	20.5		경남권	445	9.8
	불교	872	19.2		강원,제주	217	4.8
	천주교	410	9.0				
	무교 및 기타	2,328	51.3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위의 응답자특성별로 구분하고 그 결과값을 제시·분석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특성별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되, 모든 응답자특성별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조사항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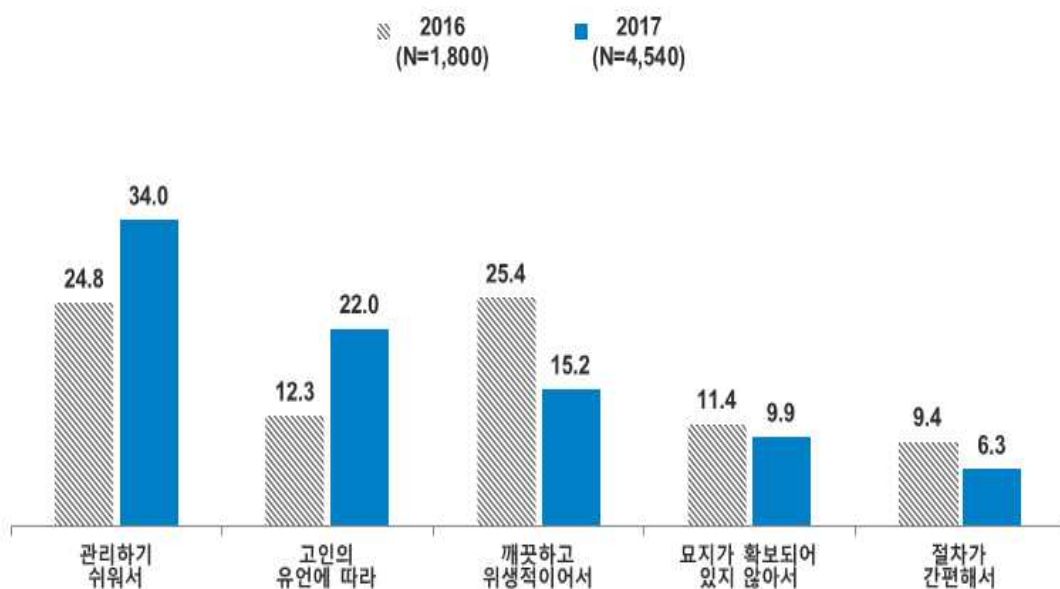
3) 장사문화에 대한 전국 시민의식 조사결과

○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

-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관리하기 쉬워서(34.0%)이며, 고인의 유언에 따라(22.0%),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15.2%), 묘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관리의 용이가 화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실시된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관리하기 쉬워서 및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는 약 10%p,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는 10.2%p 감소한 수치임.
-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비용이 저렴해서(2.0%), 종교적인 이유로(0.3%), 관습(미혼, 자녀 없음)에 따라(0.2%) 등이 조사됨.

<그림 4-1>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상위 5순위)

(단위: %)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38.3%)인 응답자와 개장유골(49.7%)을 화장한 응답자가 관리하기 쉬워서를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해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30대(26.3%), 일반시신(26.6%)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 : 응답자특성별

(단위: %)

		관리하기 쉬워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묘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절차가 간편해서	매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가족의 합의로 인해서	국립 묘지에 모시기 위해서	기타
전체		34	22	15.2	9.9	6.3	3.8	3	2.7	3
성별	남	34.1	21.7	15.1	10	6.2	4	3.1	3	2.9
	여	33.8	23.4	15.8	9.5	7.2	3.2	2.5	1.3	3.3
연령	20대	30.2	23.8	10.9	10.1	7.7	2.8	5.6	0.8	8.1
	30대	30.5	26.3	13	12	5.5	2.1	4.6	1.6	4.3
	40대	31.5	25.1	13.3	10.6	7.1	3.8	3.5	2.2	2.8
	50대	33.8	22.9	17	8	6.5	3.7	2	3.4	2.8
	60대이상	38.3	16.6	16.6	10.5	5.7	4.9	2.5	3.1	1.8
구분	일반시민	29.4	26.6	15.8	8.7	6.6	4.2	3	2.4	3.5
	개장유골	49.7	6.4	13.4	14.2	5.6	2.6	3.2	3.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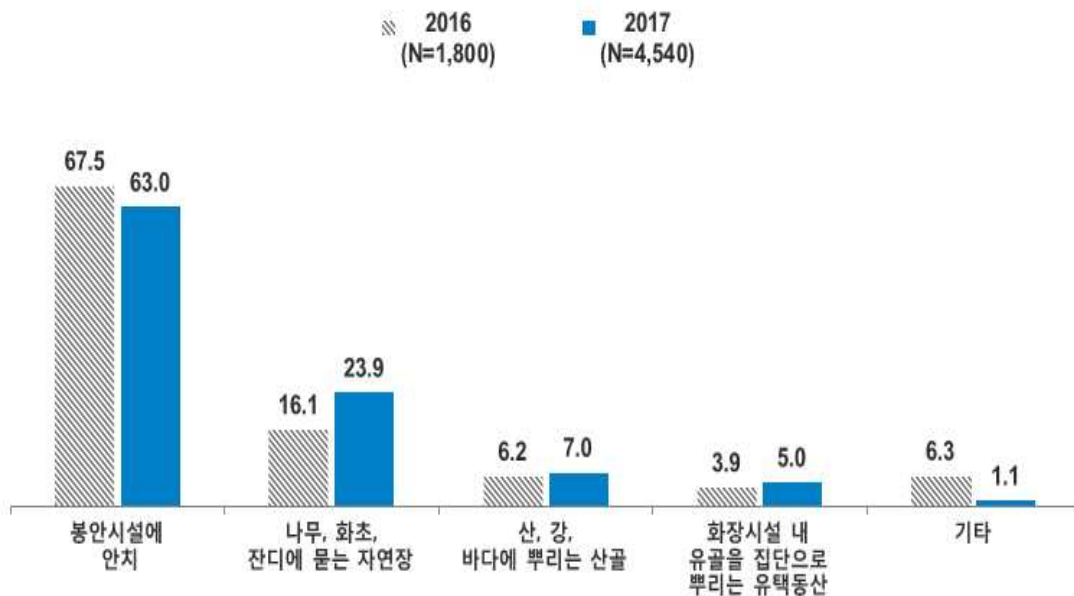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

-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한 장소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봉안시설에 안치(63.0%)임. 2016년에 67.5%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장 주된 장소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나무, 화초, 잔디에 묻는 자연장(23.9%),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골(7.0%), 화장시설 내 유골을 집단으로 뿌리는 유택동산(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과 같은 자연장을 한 비율이 2016년과 비교해 7.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 및 안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종교시설(0.5%), 묘지재매장(0.2%) 등으로 조사됨.

<그림 4-2>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

(단위: %)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68.6%)인 응답자와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66.1%)인 응답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를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비교해 나무, 화초, 잔디에 묻는 자연장을 선택한 응답자 중 중졸이하인 응답자가 28.9%로 조사됨.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골을 선택한 응답자 또한 중졸이하인 응답자가 10%로 조사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자연장 및 산골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안치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화장시설 내 유골을 집단으로 뿌리는 유택동산을 선택한 응답자는 여성(8.0%), 60대이상(8.5%), 중졸이하(10.0%), 개장유골(6.7%) 등과 같은 특성을 보임.

<표 4-4>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 : 응답자특성별

(단위: %)

		봉안시설에 안치	나무, 화초, 잔디에 묻는 자연장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골	화장시설 내 유골을 집단으로 뿌리는 유택동산	기타
전체		63	23.9	7	5	1.1
성별	남	63.9	23.8	6.9	4.4	1
	여	58.6	24	7.9	8	1.5
연령	20대	66.1	21.4	8.5	2.8	1.2
	30대	68.6	20.2	7	3.4	0.9
	40대	66.9	23.8	5.5	2.9	0.8
	50대	64.1	25	6.1	3.9	0.9
	60대 이상	56.1	24.8	8.9	8.5	1.6
학력	중졸 이하	49.1	28.9	10	10	2
	고졸	61.2	24.5	8.5	5.1	0.6
	대재 이상	66.5	22.7	5.7	3.9	1.2
	거절/무응답	62.5	21.6	8	8	0
종교	기독교	63.2	22.7	5.9	6.9	1.3
	불교	60.1	24.7	8.5	5.5	1.3
	천주교	62.9	22.2	6.6	6.8	1.5
	무교 및 기타	64	24.4	7	3.7	0.9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1.3	24.4	8	5.2	1.1
	200만원~400만원	61.3	24.5	8.1	5.2	0.8
	400만원~600만원	64.2	23.7	5.9	4.8	1.4
	600만원 이상	66.1	22.5	5.9	4.5	1
구분	일반시신	63.9	24.5	6.3	4.4	0.9
	개장유골	60.2	21.7	9.7	6.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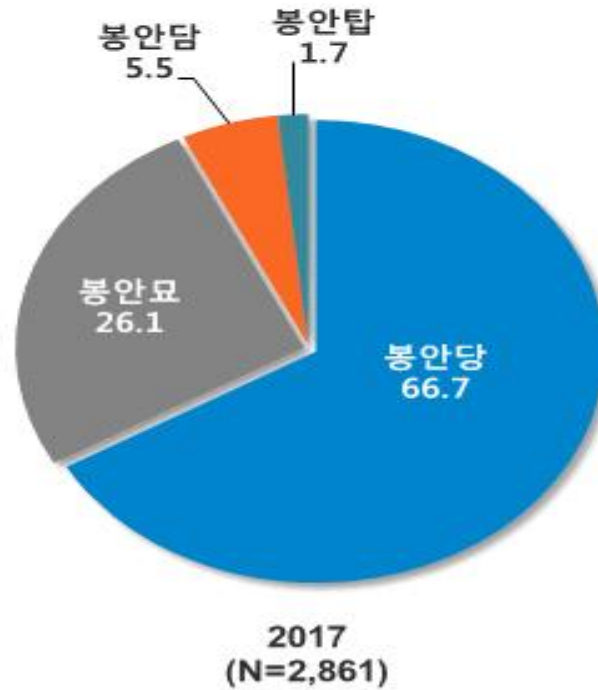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

-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를 봉안시설에 안치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의 형태를 조사함.
 - 봉안당은 ‘건축물인 봉안시설’, 봉안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담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탑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의미함.
- 그 결과 봉안당인 경우가 6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봉안묘가 26.1%, 봉안담이 5.5%, 봉안탑이 1.7%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로 봉안당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3>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

(단위: %)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를 봉안당으로 응답한 비율은 여성(7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30대(76.8%), 20대(72.0%)와 같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남.
- 이와 비교해 봉안묘는 60대 이상이 32.5%로 나타나 비교적 고연령층에서 봉안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 형태 : 응답자특성별

(단위: %)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전체		66.7	26.1	5.5	1.7
성별	남	64.5	28	5.6	1.8
	여	78.6	15.7	4.6	1.1
연령	20대	72	17.7	7.9	2.4
	30대	76.8	17.7	4.2	1.3
	40대	68.2	24.1	7.1	0.6
	50대	65.3	27.5	5.2	2
	60대 이상	60.7	32.5	4.3	2.5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2.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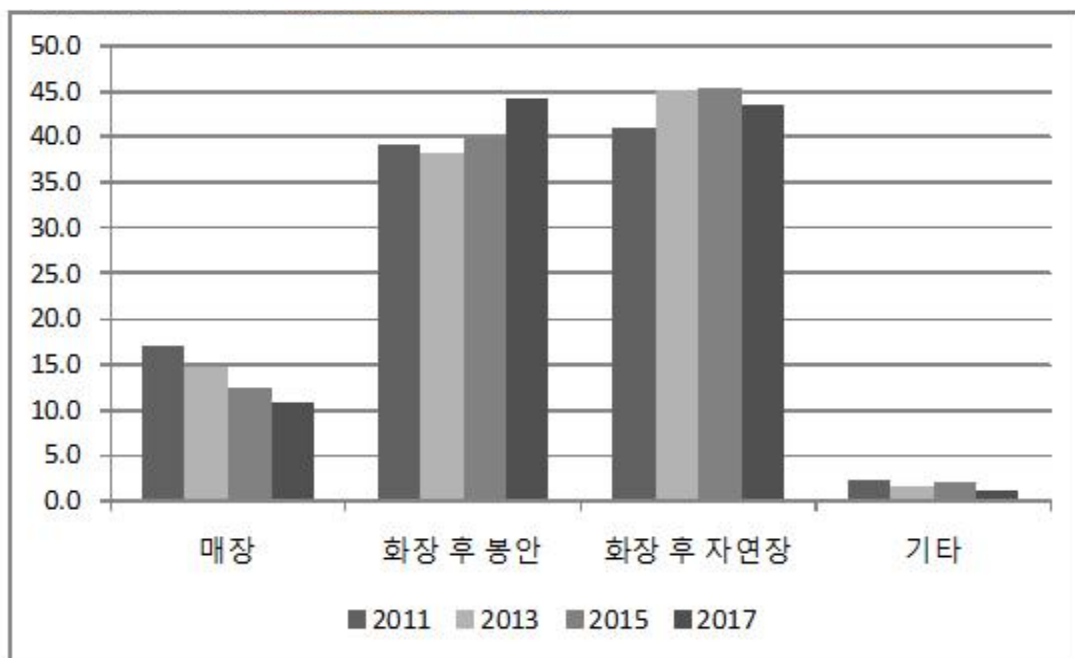
- 통계청은 2017년에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함. 본 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전국 만 13세 이상 표본가구원 약 39,000명을 대상으로 함.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의 연령 및 기간(시점) 등에는 차이가 있음(통계청, 2017b).
-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장례 선호방법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 및 매장에 대한 의견 현황을 보면, 매장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비교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화장 및 매장에 대한 연도별 의견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2017b)

- 2017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는 화장이 8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후 봉안과 자연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매장을 선호하는 대상은 읍면지역,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사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매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장례 선호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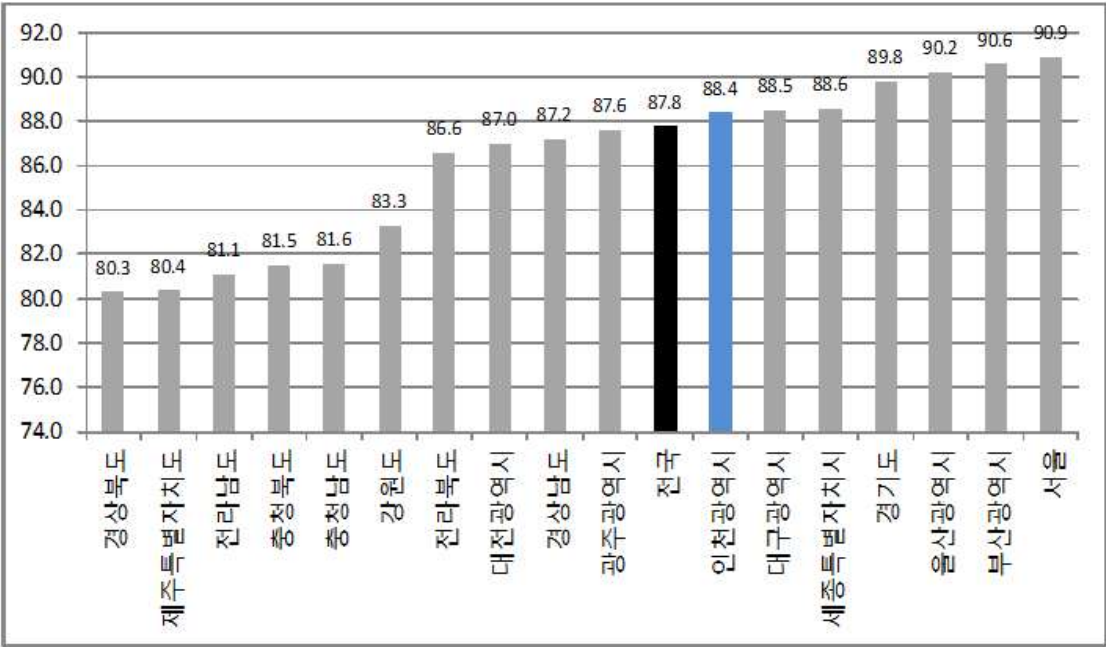
구분		매장	화장 후 봉안	화장 후 자연장	기타
전체	계	10.9	44.2	43.6	1.3
성별	남자	12.1	45.9	40.6	1.3
	여자	9.6	42.6	46.4	1.3
연령	19~29세	8.2	45.0	45.4	1.5
	30~39세	6.6	47.5	44.9	1.0
	40~49세	6.2	43.5	49.2	1.1
	50~59세	9.2	41.1	48.5	1.2
	60~69세	15.1	43.8	39.5	1.7
	70세 이상	27.7	45.2	25.1	1.9
교육정도	초졸이하	25.3	44.2	28.3	2.1
	중졸	13.8	46.9	37.9	1.4
	고졸	9.2	43.5	45.9	1.4
	대졸이상	7.4	44.3	47.2	1.0
혼인상태	미혼	7.5	43.5	47.3	1.7
	배우자 있음	11.1	44.7	43.2	1.0
	사별	22.7	45.4	29.6	2.3
	이혼	7.3	40.4	49.9	2.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0	42.7	34.9	2.4
	100~200만원 미만	12.3	43.4	42.4	2.0
	200~300만원 미만	10.1	45.4	43.3	1.3
	300~400만원 미만	8.5	45.1	45.3	1.1
	400~500만원 미만	8.4	44.9	45.9	0.8
	500~600만원 미만	9.1	44.5	45.7	0.7
	600만원 이상	7.8	43.2	48.1	0.9

자료 : 통계청(2017b)

-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가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이 80.3%로 제일 낮음.
 - 서울시의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이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시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11년 이후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화장에 대한 지역별 선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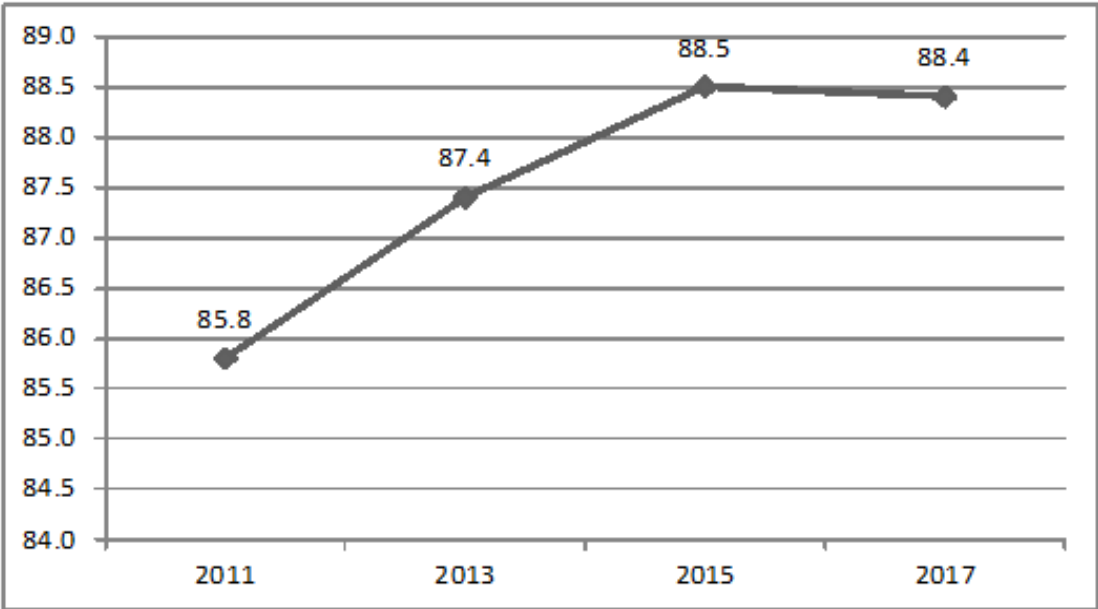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통계청(2017b)

<그림 4-6> 인천시의 화장에 대한 연도별 선호비율

(단위: %)



자료 : 통계청(2017b)

제2절 장사문화에 관한 인천시 시민의식조사

- 본 절에서는 세 개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인천시민 장례문화의식의 현재 위치를 검토함.
- 2017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전국조사 즉,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설문조사”의 결과(이하 “전국(‘17)”로 표기)
-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이 2013~2017년의 인천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한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이하 “인천(‘13)”로 표기)
- 본 연구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이하 “인천(‘18)”로 표기)

1.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개요

1) 조사방법 및 내용

-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장사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전화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함.
- 조사대상은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임.
- 조사표본은 성·연령·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할당함. 표본이 30샘플 미만인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최소 30표본을 할당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성, 연령, 지역별로 모집단 비례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표 4-7>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 면접조사(CATI)
표본 수	• 700명
표본 추출 및 가중치	• 성/연령/지역별 할당 시 표본이 30샘플 미만인 중구/동구/강화/옹진 지역에 최소 30표본 할당 후 나머지 지역 모집단 비례 할당 •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비례 가중값 부여(2018년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구간
조사 기간	• 2018년 7월 6일~7월 26일

-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희망하는 장사방법 및 장례문화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됨.
- 화장한 유해의 안치 방법, 향후 인천시 장사정책의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함.

<표 4-8>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조사항목

부문	문항
희망 장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장례 장소 • 희망하는 장사 방법 • 희망하는 묘지 유형 • 매장 희망 이유 •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 화장 희망 이유
인천시 장례 문화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장례 형태 발전 방향 •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 방향 • 자연장 인지도 • 선호 자연장 형태 • 자연장의 바람직한 형태 • 거주 시설 근처 자연장 시설 설치 찬반 의견 • 해양장에 대한 견해 •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의 적정 안치기간 • 최초 안치기간 10년 이후 유골 관리 방법 • 종합장사시설 확충 시 어려운 점 • 종합장사시설 설치 주체 • 인천광역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인천 거주 기간 • 최종 학력 • 종교 • 가구 월평균 소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에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납골시설 등으로 표현되던 용어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시설 등의 표현으로 수정됨. 그러나 장사시설 명칭 등에서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시에서는 납골당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분석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총 응답자 수는 700명임.
-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전체의 86%이고, 20년 이상이 69.4%임.
 - 교육수준은 고졸이 37.9%, 전문대 이상 대학졸업이 49.8%임.
 - 종교는 무교가 전체의 47.1%, 개신교가 28.9%, 불교가 10.6%, 가톨릭이 13.5%임.

-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28.7%,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22.2%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50.9%임.

<표 4-9>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응답자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351	50.1	거주 기간	5년 미만	39	5.6
	여성	349	49.9		5~10년 미만	59	8.4
연령	20대	128	18.3		10~20년 미만	116	16.6
	30대	124	17.7		20~30년 미만	184	26.2
	40대	146	20.9		30년 이상	302	43.2
	50대	148	21.1	학력	중졸 이하	86	12.2
	60대 이상	154	22.0		고졸	265	37.9
성별* 연령	20대 남	67	9.6		전문대 졸	54	7.7
	30대 남	64	9.1		대학교 졸	266	38.0
	40대 남	75	10.7		대학원 졸	29	4.1
	50대 남	75	10.7	종교	불교	74	10.6
	60대 이상 남	70	10.0		개신교기독교	202	28.9
	20대 여	61	8.7		천주교	94	13.5
	30대 여	60	8.6		없음/기타	329	47.1
	40대 여	71	10.1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6	16.5
	50대 여	73	10.4		200~400만원	201	28.7
	60대 이상 여	84	12.0		400~600만원	155	22.2
지역	중구	26	3.7		600만원 이상	143	20.4
	동구	16	2.3		모름/무응답	86	12.3
	미추홀구	102	14.6				
	연수구	76	10.9				
	남동구	126	18.0				
	부평구	129	18.4				
	계양구	76	10.9				
	서구	121	17.3				
	강화군	18	2.6				
	옹진군	10	1.4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특성별로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되, 모든 응답자특성별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조사항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기술함.

2.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1) 희망하는 장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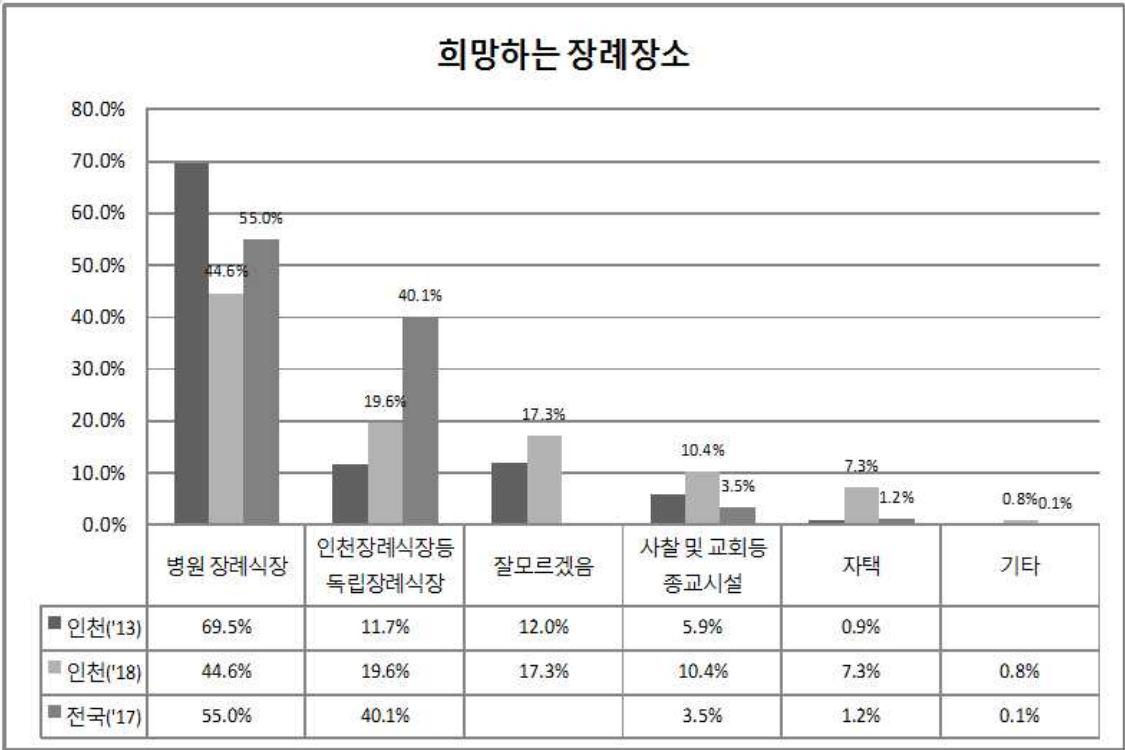
○ 본인의 희망하는 장례장소로 병원 장례식장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장례식장이 19.6%로 나타남.

○ 희망하는 장례장소와 관련해 2013년 조사(이용갑 외, 2013)의 병원 장례식장 69.5%, 인천 독립장례식장 11.8% 등과 같은 결과와 비교하면, 병원 장례식장 희망비율은 24.9% 감소하였으며, 독립장례식장, 종교시설의 희망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전국 시민의식조사와 비교해 보면, 인천지역 시민은 병원장례식장, 독립장례식장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고 종교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자택에서 장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도 전국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희망하는 장례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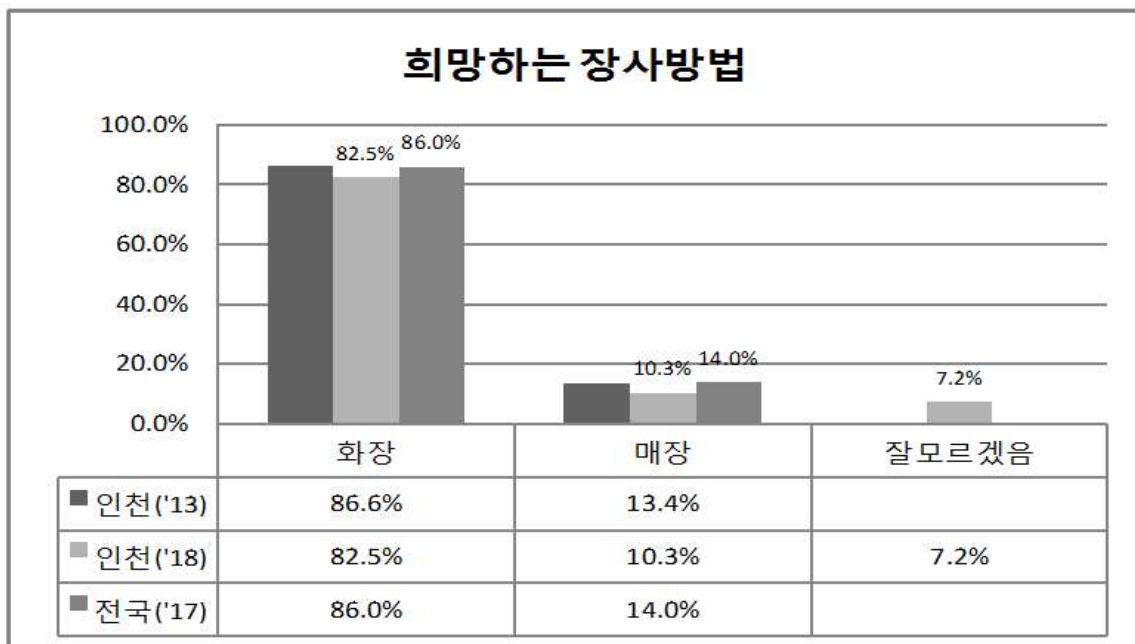


2) 희망하는 장사방법

- 희망하는 장사방법은 화장이 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 10.3%로 나타남.
- 2013년의 조사결과는 화장 86.6%, 매장 13.4%였음에 비해, 화장과 매장 모두 소폭 감소함.
- 2017년 전국조사와 비교해 보면, 인천지역 시민은 매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전국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희망하는 장사방법

(단위: %)



- 희망하는 장사방법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됨.
 - 매장 희망 시 선산, 종중, 문중 묘지를 묘지로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장이 싫어서 매장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음.
 - 화장 희망 시 자연장으로 유골이 안치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고, 화장 희망이 유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희망하는 장사방법에 대한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은 남자(79.7%)보다 여자(85.3%)가 많음.
 -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음. 특징적 사항은 2013년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화장희망 비율이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화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교를 기준으로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불교신자가 73.6%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개신교 신자·천주교 신자 및 무교는 81~8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표 4-10> 희망하는 장사방법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매장	화장	잘 모르겠음
전체		700	10.3	82.5	7.2
성별	남성	351	14.0	79.7	6.3
	여성	349	6.7	85.3	8.0
연령	20대	128	9.9	73.8	16.2
	30대	124	11.0	83.7	5.3
	40대	146	8.3	85.3	6.4
	50대	148	6.0	90.4	3.6
	60대 이상	154	16.3	78.5	5.2
학력	중졸 이하	86	13.5	77.6	8.9
	고졸	265	10.0	81.8	8.2
	전문대 졸	54	12.7	82.7	4.6
	대학교 졸	266	7.5	85.6	6.8
	대학원 졸	29	25.7	73.7	0.6
종교	불교	74	17.8	73.6	8.5
	개신교(기독교)	202	10.3	84.9	4.9
	천주교	94	7.2	86.9	5.8
	없음/기타	329	9.6	81.7	8.6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6	12.7	75.7	11.6
	200~400만원	201	11.2	79.9	8.8
	400~600만원	155	6.0	92.0	2.0
	600만원 이상	143	11.4	84.9	3.8
	모름/무응답	86	11.4	76.5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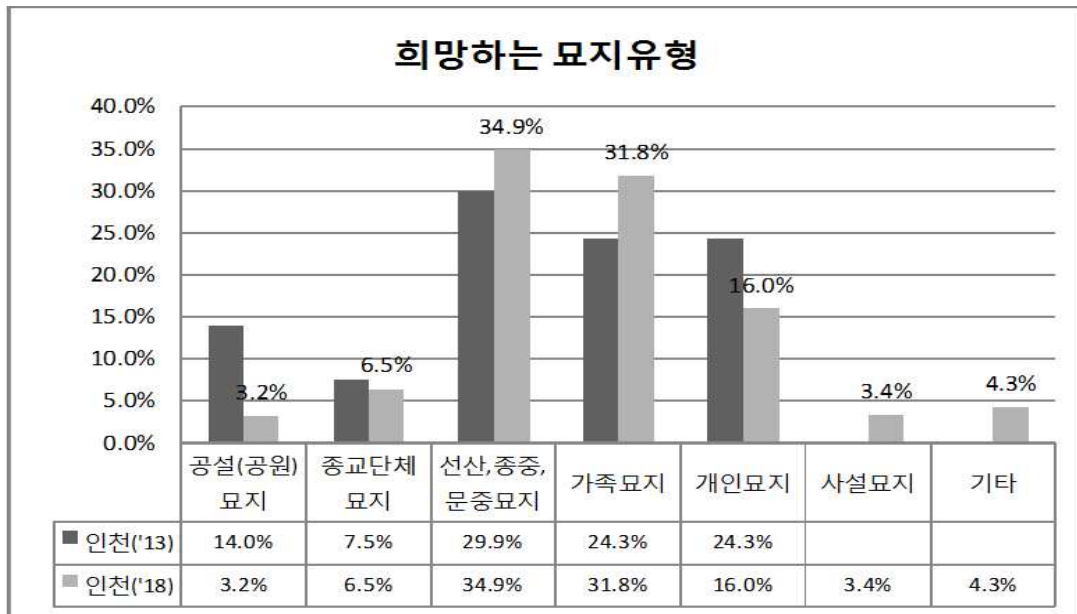
3) 희망하는 묘지유형

- 총 700명 중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매장을 선택한 77명에게 희망하는 묘지유형을 조사함. 본인이 희망하는 묘지유형으로 선산, 종중, 문중 묘지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묘지(31.8%), 개인 묘지(16.0%), 종교단체 묘지(6.5%), 기타 묘지(4.3%), 사단법인 묘지(3.4%), 공설(공원) 묘지(3.2%)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선산, 종중, 문중 묘지비율은 29.6%에서 34.9%로 증가하였고, 개인묘지는 줄어들었으며 가족묘지는 증가함.

- 2013년에 비해서 공설(공원)묘지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함. 이는 공설(공원)묘지의 안장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4-9> 희망하는 묘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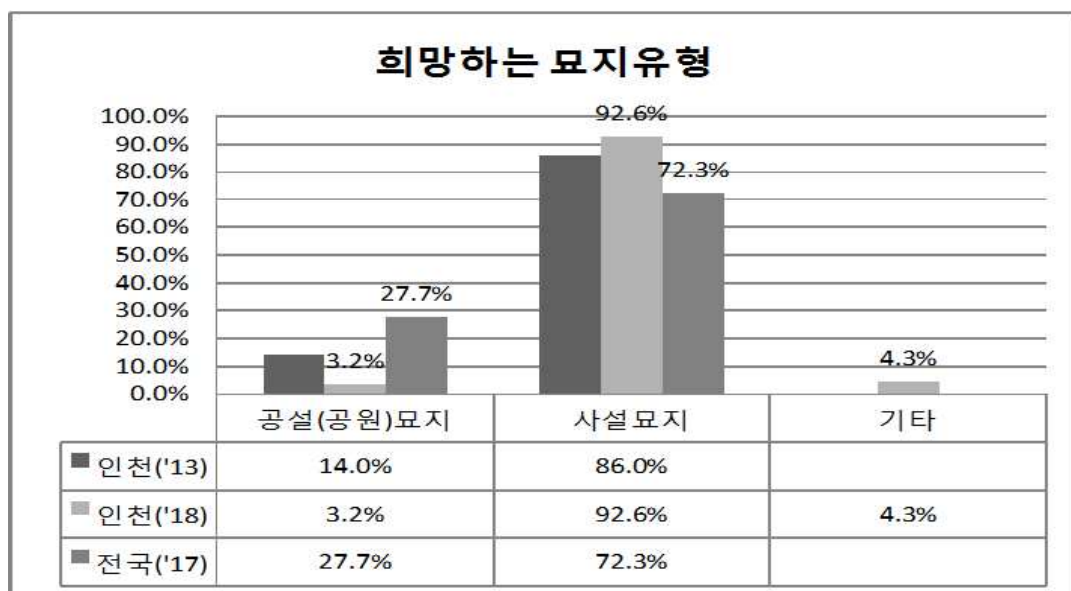
(단위: %)



- 위의 결과를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누어, 2013년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천시민은 공설묘지에 대한 선호가 전국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10> 희망하는 묘지유형 : 공설 및 사설묘지

(단위: %)



○ 희망하는 장사방법에 대한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선산 중중, 문중 묘지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게 나타남.
- 가족 묘지는 남자와 여자의 응답 비율이 유사한 수준임.

<표 4-11> 희망하는 장사방법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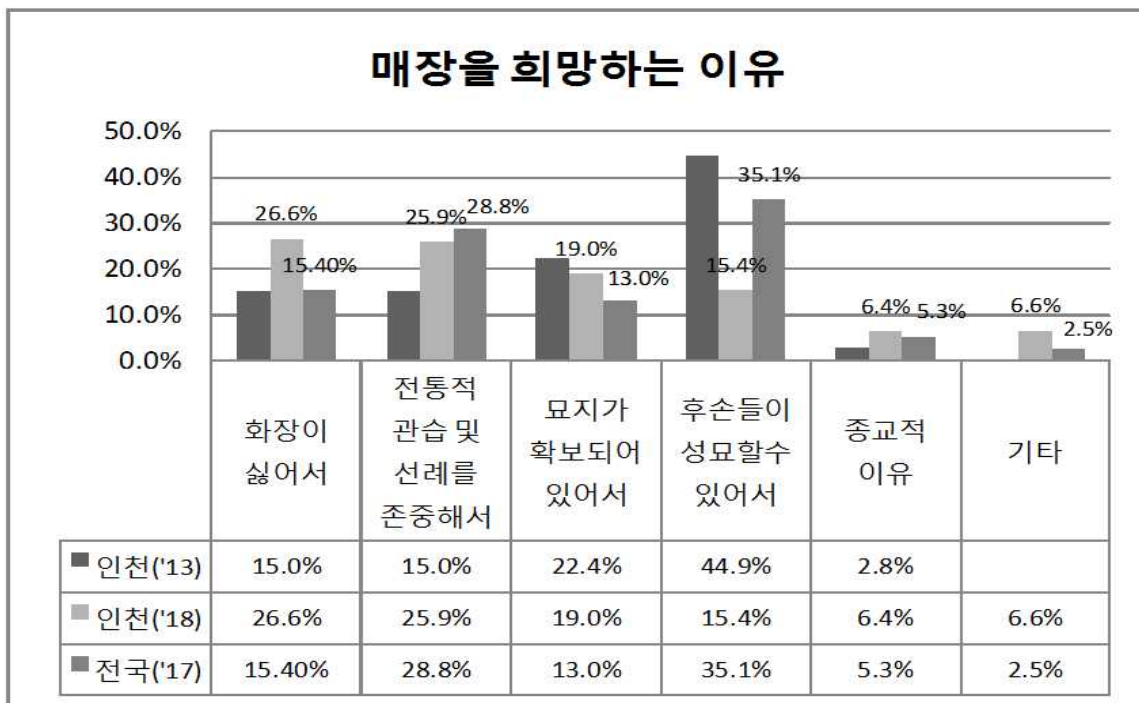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선산, 중중, 문중 묘지	가족 묘지	개인 묘지	종교단체 묘지	사설법인 묘지	공설(공원) 묘지	기타 묘지
전체		77	36.4	32.5	14.3	6.5	3.9	2.6	3.9
성별	남성	50	40.0	34.0	16.0	2.0	4.0	4.0	0.0
	여성	27	29.6	29.6	11.1	14.8	3.7	0.0	11.1
연령	20대	14	7.1	50.0	28.6	7.1	0.0	7.1	0.0
	30대	12	25.0	50.0	8.3	8.3	0.0	0.0	8.3
	40대	11	63.6	18.2	18.2	0.0	0.0	0.0	0.0
	50대	12	41.7	33.3	0.0	8.3	16.7	0.0	0.0
	60대 이상	28	42.9	21.4	14.3	7.1	3.6	3.6	7.1
지역	중구	4	25.0	25.0	25.0	0.0	25.0	0.0	0.0
	동구	3	33.3	33.3	33.3	0.0	0.0	0.0	0.0
	미추홀구	11	27.3	27.3	9.1	9.1	9.1	9.1	9.1
	연수구	4	0.0	50.0	25.0	0.0	0.0	25.0	0.0
	남동구	7	28.6	14.3	28.6	14.3	0.0	0.0	14.3
	부평구	12	41.7	33.3	16.7	8.3	0.0	0.0	0.0
	계양구	4	75.0	0.0	25.0	0.0	0.0	0.0	0.0
	서구	18	33.3	44.4	11.1	5.6	0.0	0.0	5.6
	강화군	5	20.0	60.0	0.0	20.0	0.0	0.0	0.0
	옹진군	9	66.7	22.2	0.0	0.0	11.1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7	42.9	28.6	0.0	14.3	0.0	0.0	14.3
	5~10년 미만	9	33.3	44.4	11.1	0.0	11.1	0.0	0.0
	10~20년 미만	15	40.0	20.0	26.7	0.0	0.0	13.3	0.0
	20~30년 미만	14	21.4	42.9	21.4	7.1	7.1	0.0	0.0
	30년 이상	32	40.6	31.3	9.4	9.4	3.1	0.0	6.3
학력	중졸 이하	14	50.0	21.4	7.1	7.1	0.0	0.0	14.3
	고졸	30	30.0	33.3	16.7	6.7	10.0	3.3	0.0
	전문대 졸	7	28.6	71.4	0.0	0.0	0.0	0.0	0.0
	대학교 졸	19	36.8	21.1	21.1	10.5	0.0	5.3	5.3
	대학원 졸	7	42.9	42.9	14.3	0.0	0.0	0.0	0.0
종교	불교	14	57.1	14.3	14.3	0.0	7.1	0.0	7.1
	개신교(기독교)	25	32.0	36.0	12.0	12.0	8.0	0.0	0.0
	천주교	8	25.0	37.5	12.5	25.0	0.0	0.0	0.0
	없음/기타	30	33.3	36.7	16.7	0.0	0.0	6.7	6.7
가구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8	50.0	11.1	11.1	16.7	5.6	0.0	5.6
	200~400만원	23	26.1	43.5	13.0	4.3	0.0	8.7	4.3
	400~600만원	10	50.0	20.0	20.0	0.0	10.0	0.0	0.0
	600만원 이상	17	29.4	52.9	11.8	0.0	5.9	0.0	0.0
	모름/무응답	9	33.3	22.2	22.2	11.1	0.0	0.0	11.1

4)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의 경우, 2013년에 비해, 화장이 싫어서,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해서, 종교적 이유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의 비중은 감소함.

<그림 4-11>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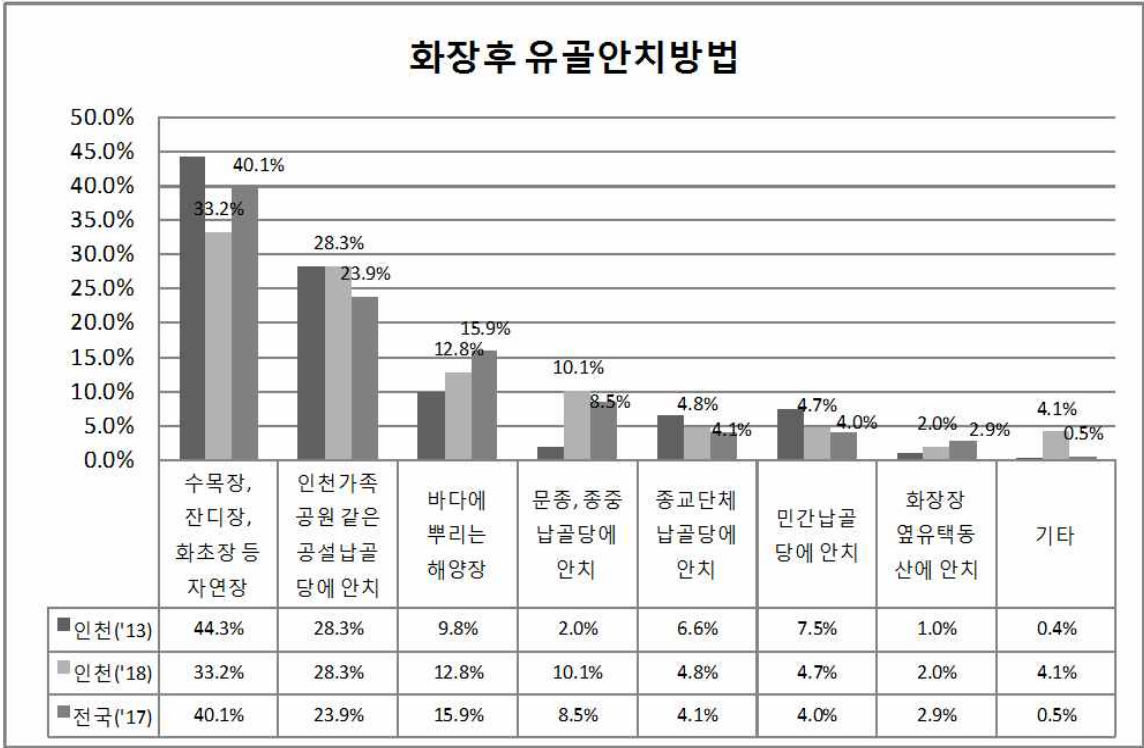


5)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총 사례수 700명 중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578명에게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을 조사함.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의 자연장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가족공원 같은 공설 납골당에 안치가 28.3%,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12.8%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에 비해서 자연장, 종교단체 납골당, 민간단체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해양장과 문중 납골당, 기타 비중은 증가함.
- 2017년 전국 수준과 비교해 보면, 화장 후 자연장을 선택하는 인천시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납골당 안치(공설, 종교, 민간 등 합산) 비율이 47.9%로서 전국수준 40.5%보다 7.4% 높게 나타남.

<그림 4-12>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단위: %)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자연장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종교별로는 불교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인천가족공원 같은 공설 납골당은 연령별로 20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남성, 20대, 고졸, 종교없음 및 기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유택공원 안치는 남성, 60대 이상, 중졸 이하, 불교, 가구 월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이를 종합해볼 때 봉안시설, 자연장 및 해양장에 안치한다는 응답률은 청년층에서 높은 반면, 유택공원에 안치한다는 응답률은 노년층 및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자연장	인천가족 공원 등 공설 납골당 안치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문중·종 중 납골당 안치	종교단체 납골당 안치	민간 납골당 안치	유택공원 안치	기타
전체		578	33.2	28.3	12.8	10.1	4.8	4.7	2.0	4.1
성별	남성	280	25.6	29.1	16.0	15.0	2.7	5.2	2.2	4.2
	여성	298	40.5	27.5	9.8	5.5	6.7	4.2	1.9	3.9
연령	20대	94	21.3	39.2	18.9	3.5	2.2	12.5	1.3	1.1
	30대	104	41.1	31.3	13.0	3.0	5.0	2.8	0.0	3.9
	40대	125	33.7	30.3	15.1	8.7	3.9	3.7	2.9	1.7
	50대	134	39.1	25.6	6.8	12.7	7.3	3.8	1.0	3.7
	60대 이상	121	28.9	18.2	12.0	20.0	4.6	2.3	4.5	9.6
학력	중졸 이하	66	36.0	14.2	11.4	14.8	4.6	3.1	8.8	7.1
	고졸	217	29.5	27.3	17.8	11.4	5.8	3.9	1.2	3.1
	전문대 졸	45	33.1	29.7	12.1	9.0	3.4	5.4	2.5	4.9
	대학교 졸	228	36.0	33.5	9.2	6.3	4.5	5.8	1.0	3.7
	대학원 졸	21	33.6	23.7	5.1	25.6	0.0	5.1	0.0	7.0
종교	불교	54	44.2	16.3	11.3	9.5	7.2	2.0	5.3	4.2
	개신교	172	32.8	31.4	12.4	8.7	3.6	3.7	3.2	4.1
	천주교	82	25.1	30.8	9.1	10.7	17.3	3.9	1.2	1.8
	없음/기타	269	33.8	28.0	14.4	11.0	1.2	6.1	0.9	4.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87	27.5	22.4	13.9	14.6	4.2	4.0	5.1	8.4
	200~400만원	161	36.8	27.4	12.4	9.3	6.3	3.6	2.4	1.8
	400~600만원	143	31.0	34.9	14.1	7.6	3.7	4.8	1.6	2.3
	600만원 이상	121	35.5	27.1	9.9	11.0	5.1	5.6	0.9	5.0
	모름/무응답	66	33.0	26.4	14.8	9.9	3.4	6.2	0.0	6.3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분류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을 봉안당, 자연장, 해양장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분석하면, 봉안당 안치 47.9%, 자연장 33.2%, 해양장 12.8% 등 기타 6.1%임.
- 봉안당 안치 47.9%의 경우 인천가족공원 봉안당과 같은 공설 봉안당 안치가 28.3%, 그 이외 민간이 주체인 사설 봉안당 안치가 19.6%임.
- 6.1%인 기타의 경우 화장장의 유택동산에 뿌림이 2%, 기타가 4.1%임

<표 4-13>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구분

(단위: %)

구분	수목장,잔디장, 화초장 등 자연장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인천가족 공원 등 공설납골당 안치	사설봉안당	기타
전체	33.2%	12.8%	28.3%	19.6%	6.1%

6)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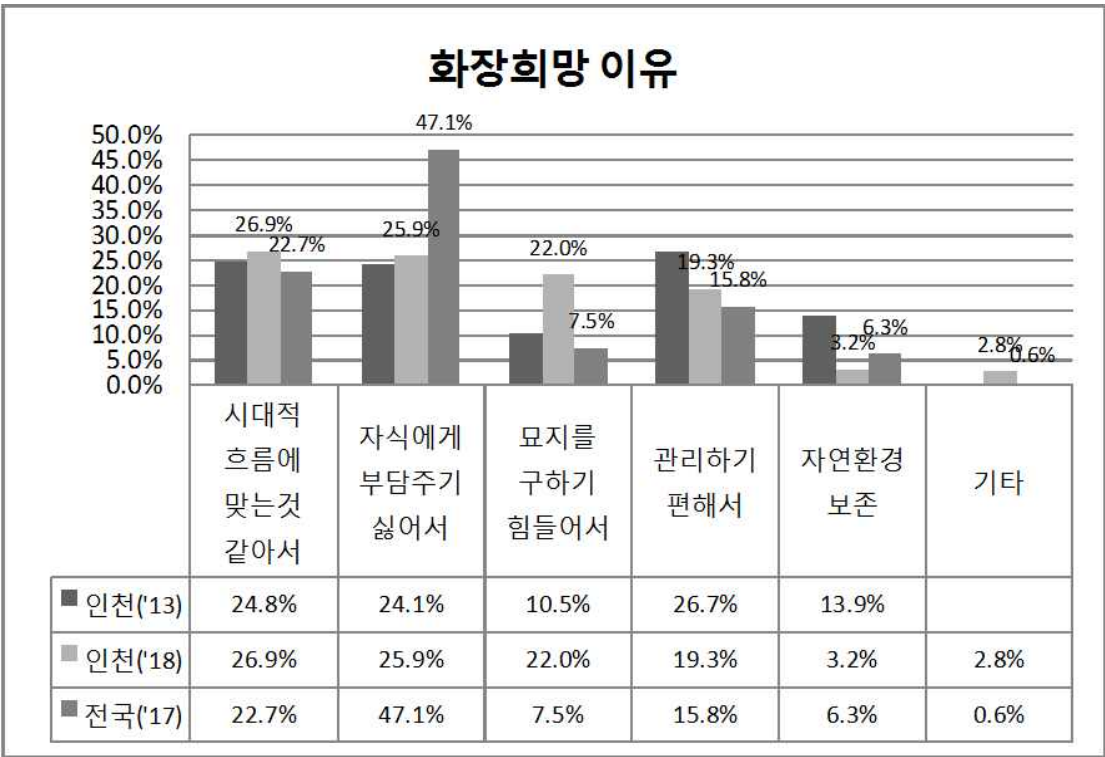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가 26.9%,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가 25.9%로 유사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하기 편해서가 22.0%, 자연환경 보존이 19.3%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에 비해서 묘지를 구하는데 따른 부담이 화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큰 폭으로 증가함.

○ 2017년 전국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국적 수준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담이 높았고, 인천지역의 시민은 묘지를 구하는데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그림 4-13>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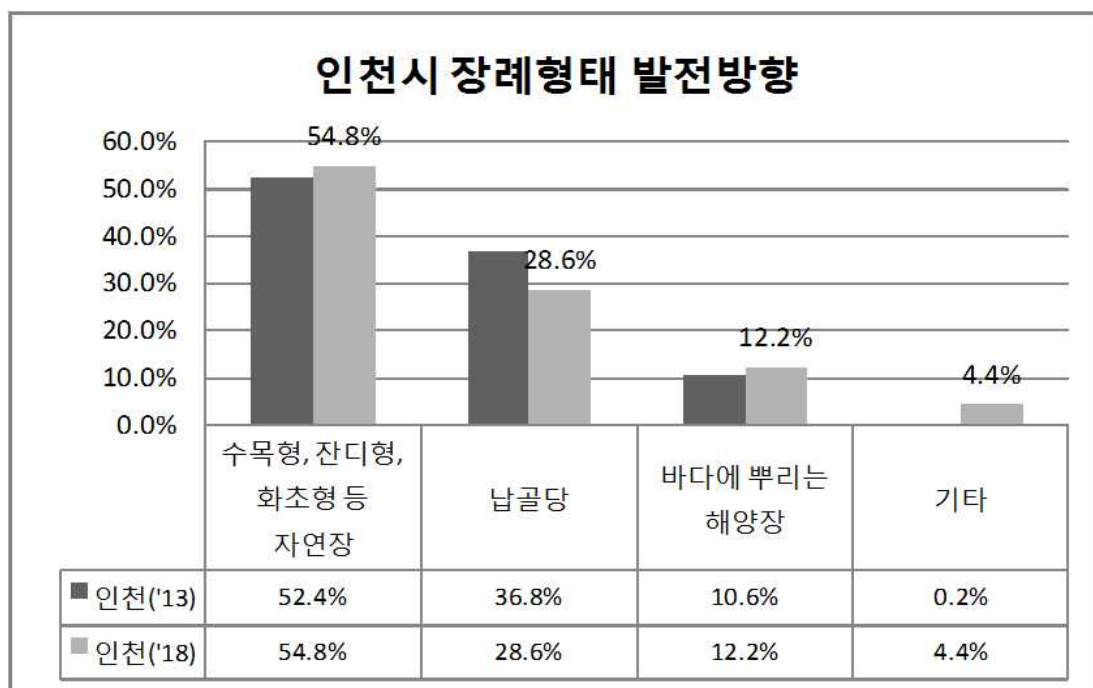


7)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

- 인천시 장례형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연장(수목형, 잔디형, 화초형)을 54.8%, 봉안시설을 28.6.8%, 해양장을 12.2%로 응답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연장, 해양장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납골당의 비중은 감소함.

<그림 4-14>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

(단위: %)



-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에 대한 응답자특성별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 등의 자연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납골당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남성, 60대 이상, 중졸 이하, 불교,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14>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 : 응답자특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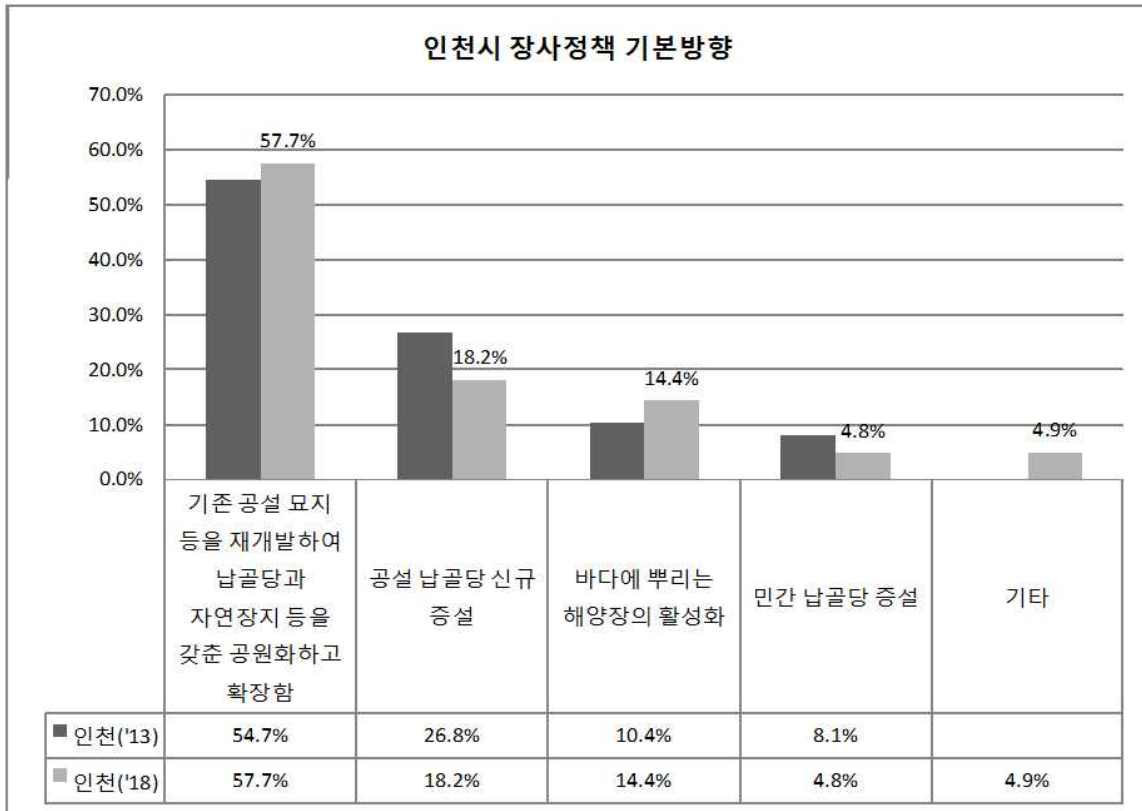
구분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 등의 자연장	납골당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기타
전체		54.8	28.6	12.2	4.4
성별	남성	46.3	33.4	14.9	5.3
	여성	63.4	23.7	9.4	3.5
연령	20대	43.5	42.8	9.4	4.3
	30대	58.5	25.9	12.6	2.9
	40대	50.8	33.9	10.4	4.9
	50대	66.1	23.2	5.8	4.9
	60대 이상	54.3	19.0	22.0	4.7
학력	중졸 이하	51.8	18.5	23.9	5.9
	고졸	54.2	30.6	12.0	3.1
	전문대 졸	67.5	16.2	13.9	2.5
	대학교 졸	55.0	31.7	8.6	4.7
	대학원 졸	44.0	34.6	8.4	13.0
종교	불교	62.2	21.5	15.0	1.3
	개신교(기독교)	56.3	27.4	10.7	5.7
	천주교	60.6	26.1	10.1	3.2
	없음/기타	50.7	31.6	13.1	4.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5.5	24.6	24.6	5.3
	200~400만원	61.4	25.0	10.4	3.2
	400~600만원	53.7	32.9	10.1	3.4
	600만원 이상	53.1	32.4	8.8	5.7
	모름/무응답	57.1	28.2	9.2	5.5

8)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방향

- 인천시 장사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기존 공설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납골당과 자연장지 등을 갖춘 공원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공설 납골당 신규증설이 18.2%,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의 활성화가 14.4%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에서도 기존 공설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납골당과 자연장지 등을 갖춘 공원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가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설 납골당 신규 증설, 민간 납골당 증설 등과 같이 봉안시설의 확장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진 반면,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의 활성화에 대한 응답률은 높아짐.

<그림 4-15>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방향

(단위: %)



○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종교별로 천주교에서 가장 높음.
- 공설 납골당 신규 증설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별로 20대에서 높음.
- 학력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를 인천광역시의 장사정책 기본방향으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양장 활성화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교를 기준으로 천주교 신자가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를 선택하였고, 불교신자는 공설 납골당 증설을 인천광역시의 장사정책 기본방향으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4-15> 인천시 장사정책 기본방향 : 응답자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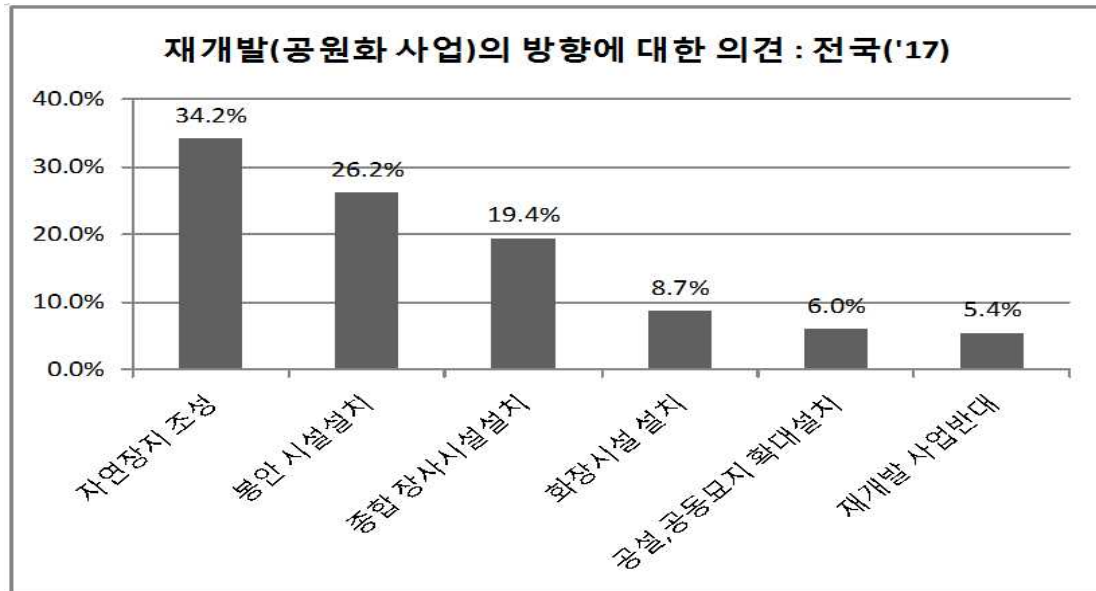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	공설 납골당 신규 증설	해양장 활성화	민간 납골당 증설	기타
전체		57.7	18.2	14.4	4.8	4.9
성별	남성	48.8	21.8	18.8	4.7	5.8
	여성	66.7	14.6	10.0	4.9	3.9
연령	20대	46.8	26.9	13.0	8.4	4.9
	30대	60.2	16.0	16.6	2.4	4.8
	40대	65.9	15.6	14.6	3.9	0.0
	50대	64.7	14.1	10.6	4.3	6.3
	60대 이상	50.3	19.2	17.3	5.0	8.1
학력	중졸 이하	39.2	18.3	19.9	8.0	14.5
	고졸	59.1	16.0	14.7	6.1	4.1
	전문대 졸	65.0	11.2	18.3	5.5	0.0
	대학교 졸	60.9	21.3	11.8	2.0	4.0
	대학원 졸	56.6	22.4	12.6	7.8	0.6
종교	불교	53.9	21.0	14.9	4.1	6.1
	개신교(기독교)	57.7	17.6	13.3	5.9	5.5
	천주교	68.0	16.5	9.4	4.4	1.7
	없음/기타	55.7	18.4	16.4	4.3	5.1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3.9	26.8	23.2	6.2	9.9
	200~400만원	64.8	14.3	11.0	5.0	4.9
	400~600만원	62.0	18.6	13.9	4.7	0.8
	600만원 이상	62.4	17.5	14.5	3.7	1.9
	모름/무응답	57.6	16.4	11.4	4.3	10.3

- 한편 2017년 전국조사에서는 기존 공설·공동묘지의 만장으로 인해 묘지를 재개발, 공원화할 경우 재개발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자연장지 34.2%, 봉안시설 26.2%, 종합장사시설 19.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재개발(공원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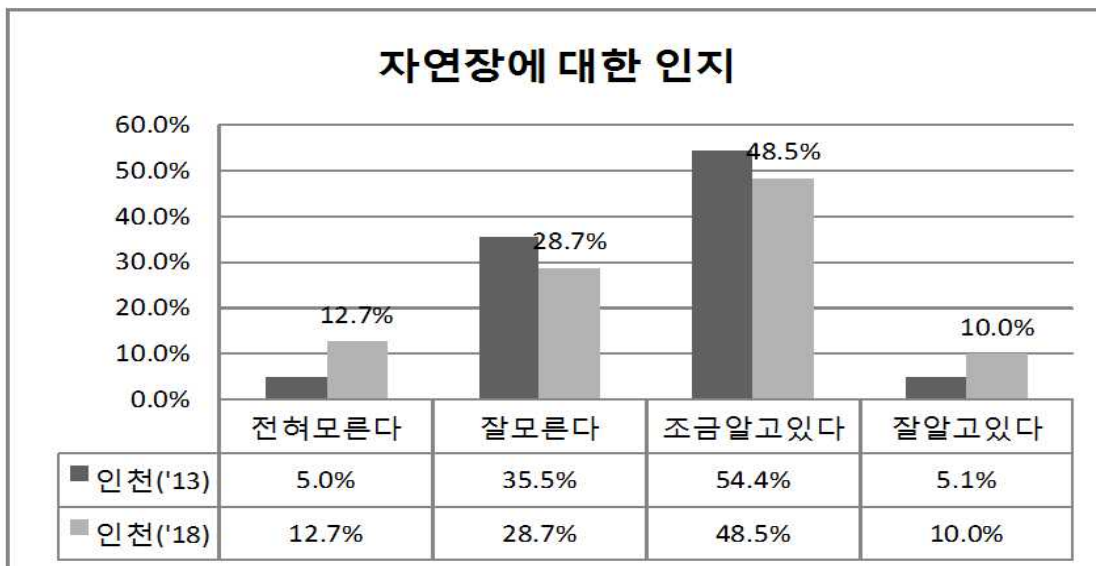
9) 자연장에 대한 인지

○ 자연장의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경우가 58.5%, 모른다가 41.5%였음.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인지/비인지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

<그림 4-17> 자연장에 대한 인지

(단위: %)



○ 자연장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인지율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고 있다는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종교별로는 천주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이 자연장에 대한 인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을 기준으로는 연령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지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학력과 소득을 기준으로는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장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수준임.
- 종교를 기준으로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의 순으로 자연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자연장에 대한 인지 : 응답자특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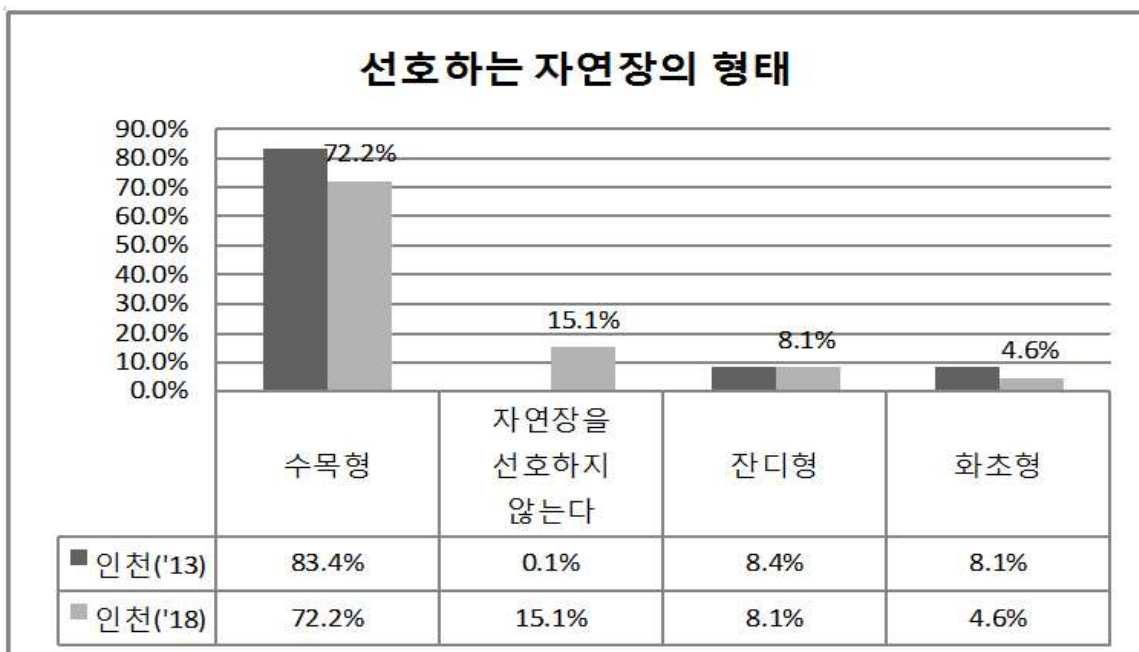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비인지	인지
전체		12.7	28.7	48.5	10.0	41.5	58.5
성별	남성	13.6	24.0	47.3	15.1	37.6	62.4
	여성	11.9	33.5	49.7	4.9	45.3	54.7
연령	20대	30.2	36.0	31.3	2.5	66.2	33.8
	30대	18.2	33.0	41.6	7.2	51.2	48.8
	40대	6.7	28.0	53.8	11.5	34.7	65.3
	50대	8.4	19.2	57.2	15.2	27.6	72.4
	60대 이상	3.7	29.1	55.1	12.2	32.8	67.2
학력	중졸 이하	7.1	39.5	43.6	9.8	46.6	53.4
	고졸	14.7	28.6	50.2	6.5	43.3	56.7
	전문대 졸	15.6	29.2	51.2	4.0	44.8	55.2
	대학교 졸	13.0	26.5	45.9	14.7	39.5	60.5
	대학원 졸	3.7	17.5	67.6	11.2	21.3	78.7
종교	불교	6.6	31.9	52.9	8.7	38.5	61.5
	개신교(기독교)	12.2	27.9	50.6	9.3	40.1	59.9
	천주교	7.1	26.1	55.6	11.2	33.2	66.8
	없음/기타	16.1	29.3	44.3	10.4	45.3	54.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0	38.6	45.3	6.1	48.6	51.4
	200~400만원	12.5	27.5	48.9	11.2	39.9	60.1
	400~600만원	9.7	23.1	56.8	10.4	32.8	67.2
	600만원 이상	13.3	24.8	48.2	13.7	38.1	61.9
	모름/무응답	21.6	34.9	37.8	5.7	56.5	43.5

10)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는 수목형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음.
 -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가 나무를 식재한 후 그 아래에 유골유분을 묻고 나무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표시하는 수목형이라는 것은 자연장 확대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즉, 수목형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자연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면적, 나무 등을 고려할 경우 수목형자연장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잔디장을 확장하는 최근의 추세와는 상대적으로 괴리가 있는 인식임.
 -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수목형이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연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에 대한 응답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 그리고 화초형에 대한 선호가 감소함.
- 2018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목장을 선호한다고 대답하였지만, 자연장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을 분석해 보면 남성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천주교 계층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18>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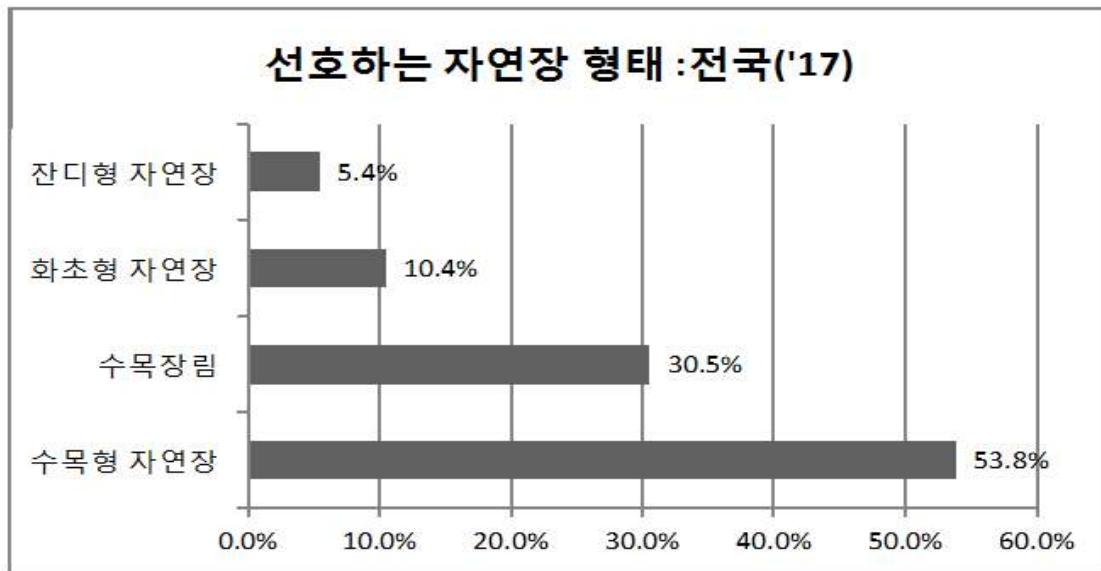
(단위: %)



- 2017년 전국조사와 2018년 인천시민 의식조사와 단순비교는 문항의 차이로 한계가 있으나 수목형에 대한 선호는 동일하게 확인되며, 화초형 자연장에 대한 선호는 전국 수준이 높고, 잔디형 자연장은 인천지역 시민조사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4-19>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 2017년 전국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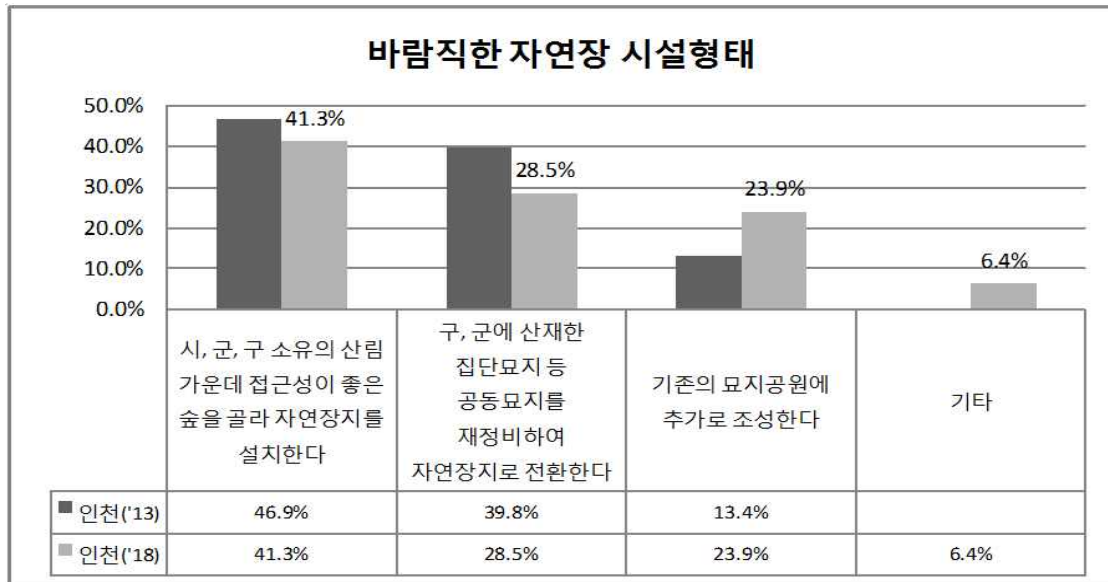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c)

11) 바람직한 자연장 시설형태

- 바람직한 자연장 시설형태를 살펴보면, ‘시, 군, 구 소유의 산림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숲을 골라 자연장지를 설치한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존의 묘지공원에 추가로 조성한다는 응답이 증가함.
- 이와 비교해 ‘시, 군, 구 소유의 산림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숲을 골라 자연장지를 설치한다’와 ‘구, 군에 산재한 집단묘지 등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한다’의 응답률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함.
 - 즉 신규 자연장지설치 또는 공동묘지 등의 재정비를 통한 자연장지 전환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것임.
 - 결국, 기존의 공원묘지 등의 조정을 통한 자연장지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0> 바람직한 자연장 시설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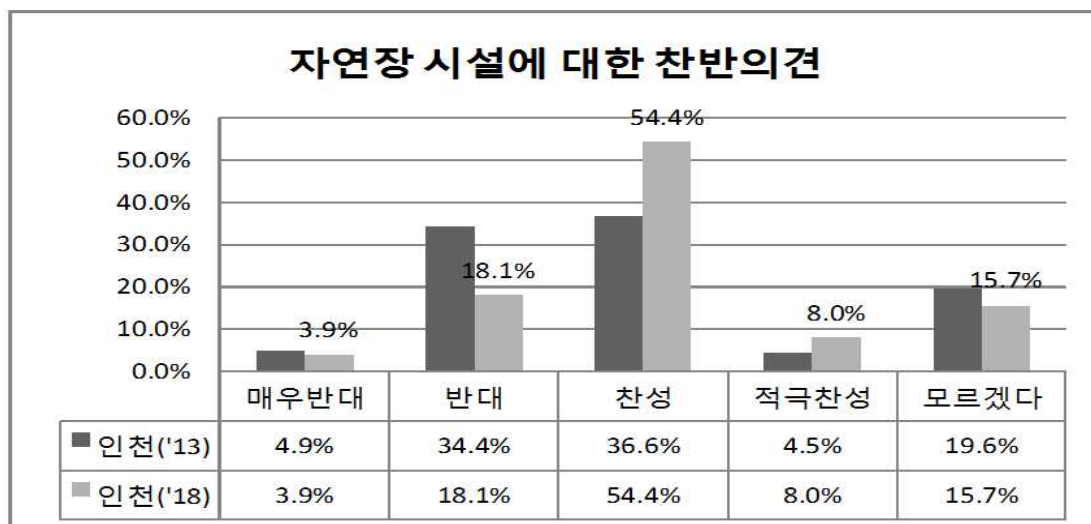


12) 자연장 시설에 대한 찬반의견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자연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은 62.4%, 반대는 22.0%로 나타남.
- 2013년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자연장 시설 설치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은 감소하고 긍정적 의견은 증가함.

<그림 4-21> 자연장 시설에 대한 찬반의견

(단위: %)



○ 거주지역 근처 자연장 시설 설치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찬성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에서 높음.
- 성·연령별로는 40대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교별로는 불교에서 높게 나타남.
- 반대는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역별로는 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남.
-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비율이 높은 편임.

<표 4-17> 자연장 시설에 대한 찬반의견 : 응답자특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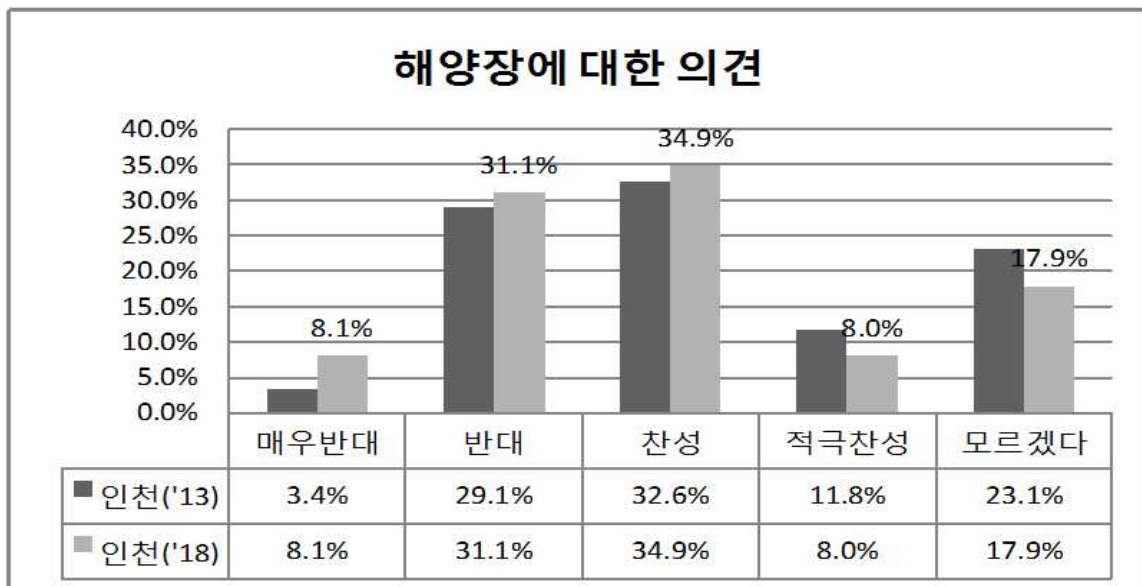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잘 모르겠다	*반대*	*찬성*
전체		3.9	18.1	54.4	8.0	15.7	21.9	62.4
성별	남성	4.5	15.0	56.5	11.5	12.5	19.5	68.0
	여성	3.2	21.2	52.2	4.4	19.0	24.4	56.6
연령	20대	3.5	22.6	49.9	4.0	20.0	26.1	53.9
	30대	7.8	20.3	50.6	6.2	15.1	28.1	56.9
	40대	2.0	14.1	61.0	11.7	11.1	16.1	72.8
	50대	5.0	12.9	56.3	10.6	15.2	17.9	66.9
	60대 이상	1.6	21.2	52.9	6.6	17.7	22.8	59.5
학력	중졸 이하	6.6	22.8	44.1	1.5	24.9	29.4	45.6
	고졸	3.9	18.6	55.5	7.0	15.0	22.5	62.4
	전문대 졸	0.0	12.8	60.1	9.5	17.6	12.8	69.6
	대학교 졸	4.1	18.0	54.1	9.9	13.8	22.1	64.1
	대학원 졸	0.0	9.6	66.1	15.3	9.0	9.6	81.4
종교	불교	3.6	13.5	61.5	8.6	12.9	17.0	70.1
	개신교(기독교)	3.6	19.1	52.9	8.2	16.3	22.7	61.0
	천주교	2.4	13.4	53.6	9.5	21.1	15.8	63.1
	없음/기타	4.5	19.7	53.9	7.3	14.5	24.3	61.2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2	19.9	50.9	3.5	22.5	23.1	54.4
	200~400만원	2.3	20.6	54.9	10.3	11.9	22.9	65.2
	400~600만원	4.4	13.7	59.5	7.9	14.5	18.1	67.5
	600만원 이상	3.8	15.4	55.2	11.4	14.2	19.2	66.6
	모름/무응답	7.4	21.9	47.1	2.9	20.7	29.3	50.0

13) 해양장에 대한 의견

- 해양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 42.9%, 반대 39.2%로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반대의견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매우 반대하는 의견이 2013년에 비해 4.7% 증가함. 찬성의견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3.8% 감소함.

<그림 4-22> 해양장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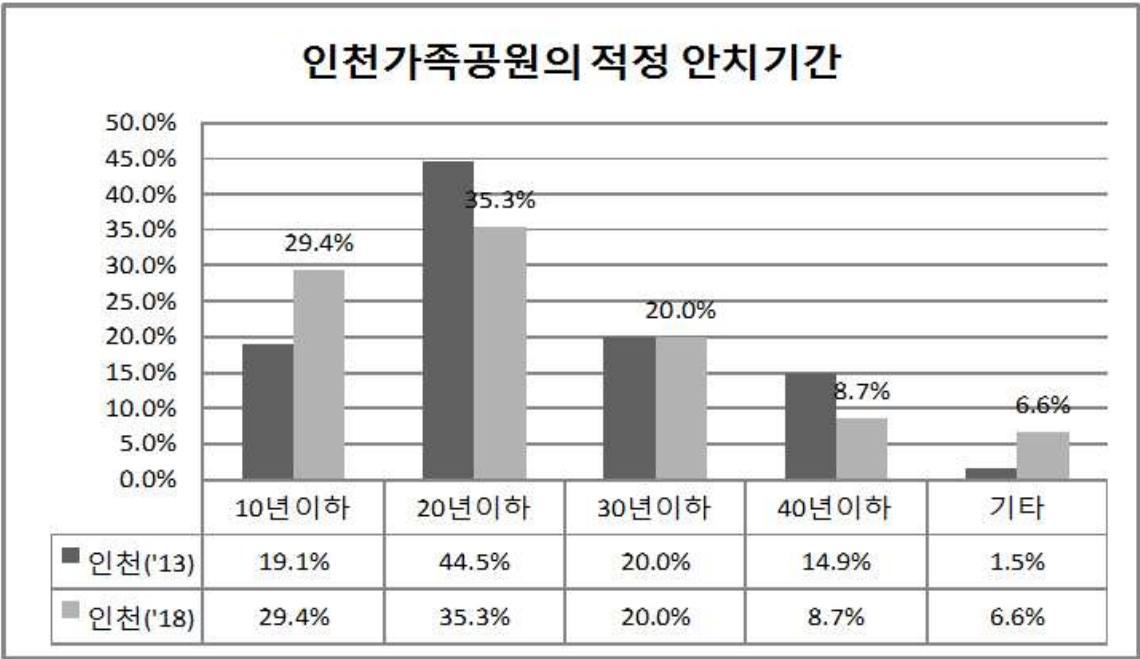


14)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

- 봉안당의 적정한 안치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하 29.4%, 20년 이하 35.3%, 30년 이하 20.0%, 40년 이하 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즉, 봉안당의 적정한 안치기간을 총 20년 이하로 대답한 경우가 64.7%임.
 - 현재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이 총 30년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봉안당 안치기간 조정에 필요로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총 20년 이하로 응답한 비중은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0년 이하의 비중이 10.3% 증가하였고 20년 이하의 비중은 9.2% 감소함.

<그림 4-23>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

(단위: %)



-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10년 이하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교별로 개신교(기독교)에서 높으며, 지역별로 강화군에서 비율이 높음.
 - 20년 이하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없을 때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중구와 계양구에서 비율이 높음.
 - 현재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과 가장 일치하는 30년 이하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 40대, 연수구, 천주교에서 비율이 높음.
 - 40년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와 같이 인천시에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종교는 불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8>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적정 안치기간 : 응답자특성별

(단위: %)

구분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40년 이하	기타
전체		29.4	35.3	20.0	8.7	6.6
성별	남성	28.0	33.8	23.3	8.4	6.5
	여성	30.8	36.8	16.7	9.0	6.7
연령	20대	24.6	42.8	15.2	13.6	4.0
	30대	24.4	38.0	23.2	10.1	4.2
	40대	26.6	34.1	26.5	9.0	3.7
	50대	34.9	32.2	17.5	8.4	7.0
	60대 이상	34.6	31.1	17.8	3.6	13.0
지역	중구	15.4	46.5	21.8	13.8	2.6
	동구	37.8	31.0	12.5	14.8	3.9
	미추홀구	29.5	35.2	19.5	11.6	4.2
	연수구	31.7	21.9	31.6	10.0	4.8
	남동구	25.9	35.3	19.5	8.8	10.5
	부평구	30.2	33.2	21.3	11.3	4.1
	계양구	37.3	46.7	5.8	4.6	5.6
	서구	25.2	38.7	22.9	3.9	9.3
	강화군	48.1	25.5	9.7	8.3	8.3
	옹진군	22.0	34.5	26.7	4.5	12.3
종교	불교	26.1	29.2	17.4	11.3	16.0
	개신교(기독교)	35.6	30.4	20.9	6.8	6.3
	천주교	26.5	34.2	28.5	4.7	6.0
	없음/기타	27.1	40.0	17.7	10.5	4.7

15)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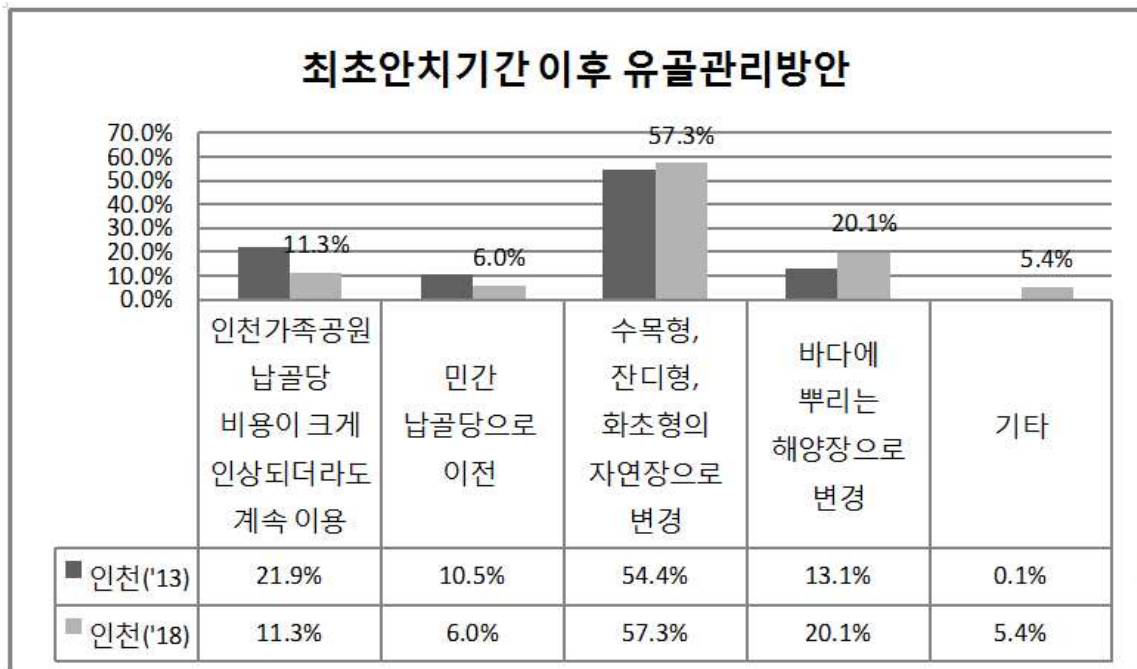
- 2013년 조사시점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최초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무연고 유골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현재는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문항은 본래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 최초 10년의 안치기간 경과 후 유골을 관리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봉안당의 안치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떠한 유골관리방안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분석함.
-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선택하는 적절한 유골관리방법은 자연장(수목형, 잔디형, 화초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으로 변경이 20.1%, 비용이 크게 인상되더라도 계속 이용이 11.3%, 민간 납골당(사설 봉안당)으로 이전이 6.0%로 나타남.

- 2018년 현재 조사한 결과 자연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연장에 대한 수요를 처음부터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 및 봉안당 안치 이후 자연장지로 이전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자연장지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봉안당 수요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법으로 해양장에 대한 의견이 7.0% 증가함.

<그림 4-24>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

(단위: %)



○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자연장으로 변경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에서 높은 수준임. 종교별로 불교에서 높게 나타남.
- 해양장으로 변경은 남성에서 높으며, 연령별로 60대 이상,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남.
- 비용이 크게 인상되어도 계속 이용은 여성, 30대, 대학교 졸 및 대학원 졸과 같은 고학력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민간 납골당 이전은 여성, 20대, 종교없음/기타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 : 응답자특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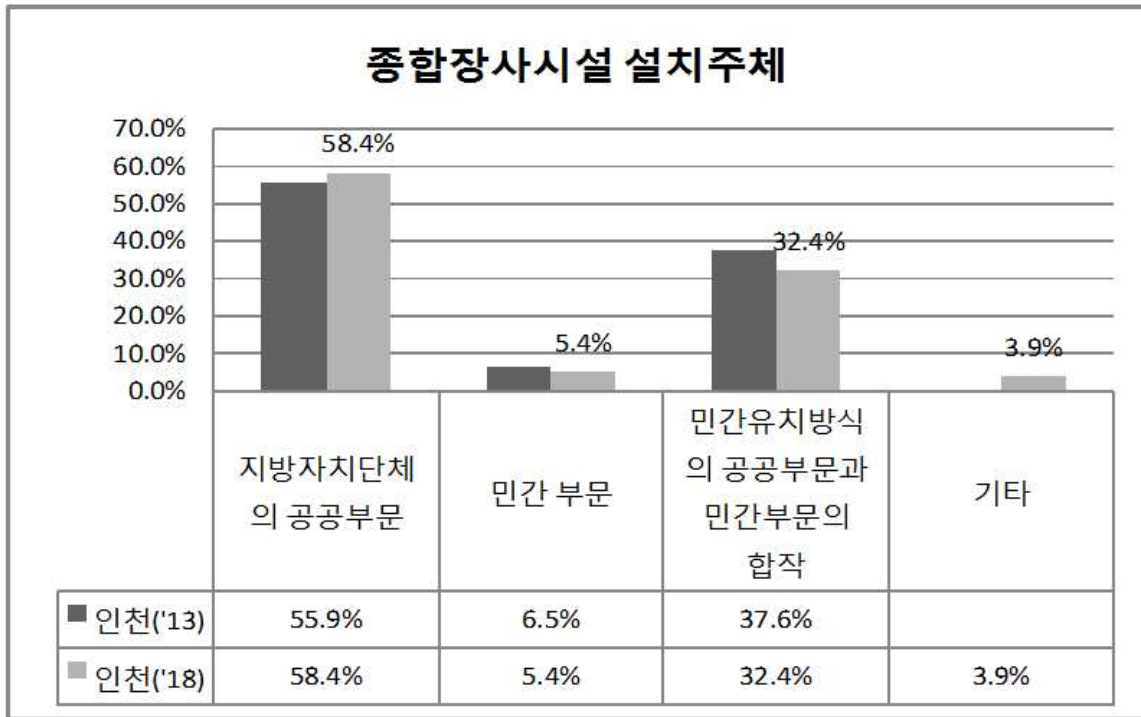
구분		자연장으로 변경	해양장으로 변경	비용 인상되어도 계속 이용	민간 납골당 이전	기타
전체		57.3	20.1	11.3	6.0	5.4
성별	남성	53.9	25.1	9.3	5.9	5.8
	여성	60.6	15.1	13.3	6.1	4.9
연령	20대	47.5	19.3	11.3	17.4	4.5
	30대	57.3	15.0	18.5	5.9	3.3
	40대	65.0	20.6	6.7	3.9	3.8
	50대	64.7	16.3	13.0	1.4	4.6
	60대 이상	50.8	28.1	8.1	3.1	9.9
학력	중졸 이하	46.2	27.8	10.5	3.8	11.6
	고졸	57.1	22.9	9.3	7.1	3.6
	전문대 졸	62.7	16.1	7.2	8.2	5.8
	대학교 졸	59.1	16.4	13.4	5.5	5.6
	대학원 졸	64.1	13.8	19.0	2.6	0.6
종교	불교	64.3	17.6	5.4	6.2	6.5
	개신교(기독교)	60.3	18.2	11.9	3.8	5.9
	천주교	58.6	17.3	15.3	3.7	5.1
	없음/기타	53.4	22.7	11.1	8.0	4.9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4.1	30.4	11.1	4.9	9.4
	200~400만원	61.8	17.8	9.4	6.9	4.0
	400~600만원	55.6	20.5	12.0	6.8	5.1
	600만원 이상	59.8	17.0	16.3	3.9	3.0
	모름/무응답	63.1	16.1	6.1	7.3	7.4

16)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

-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주체에 대한 의견으로,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이 5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이 32.4% 등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설치주체가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소폭 감소한 것임.

<그림 4-25>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

(단위: %)



○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에 대해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연령별로는 50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별로는 천주교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은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고, 거주기간이 20~30년 미만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민간부문은 20대 및 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60대 이상에서도 6.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중년층을 제외한 연령에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민간 합작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 월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종합장사시설 설치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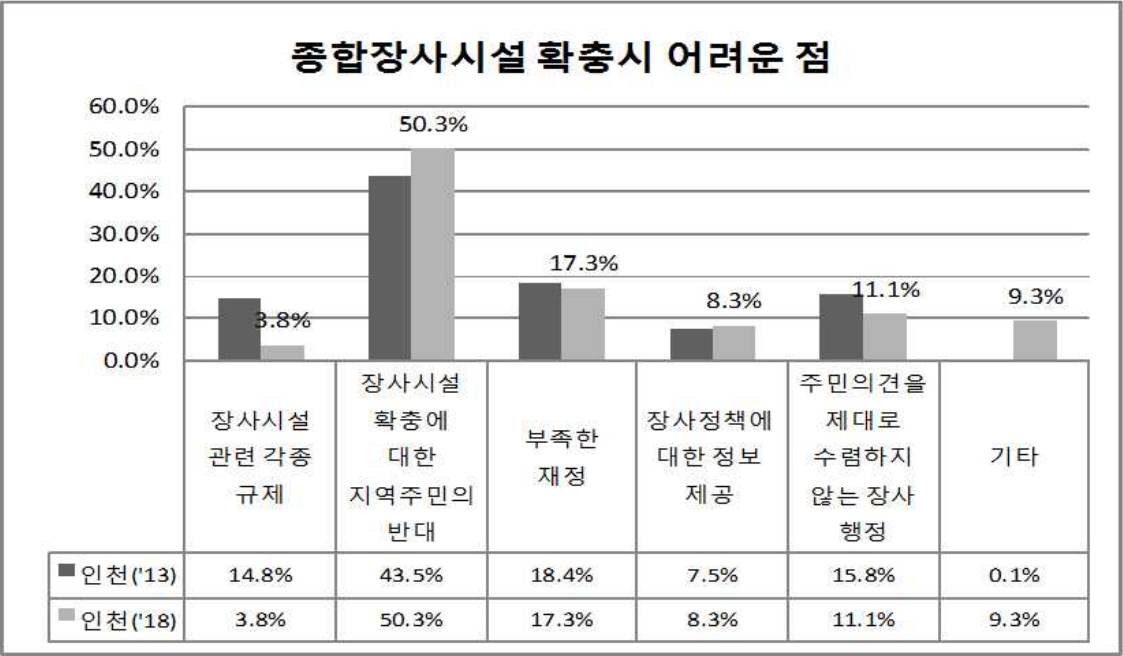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	민간부문	기타
전체		58.4	32.4	5.4	3.9
성별	남성	58.7	32.9	6.4	1.9
	여성	58.0	31.8	4.3	5.9
연령	20대	43.4	49.6	7.0	0.0
	30대	52.0	38.9	6.8	2.2
	40대	61.4	34.7	2.1	1.7
	50대	67.5	23.6	5.1	3.7
	60대 이상	64.1	19.1	6.1	10.8
거주 기간	5년 미만	54.9	38.1	3.8	3.1
	5~10년 미만	52.8	38.7	4.6	4.0
	10~20년 미만	58.7	31.5	5.3	4.6
	20~30년 미만	51.2	41.6	5.4	1.9
	30년 이상	64.1	25.2	5.7	5.0
학력	중졸 이하	50.3	25.8	7.7	16.2
	고졸	59.1	29.7	8.5	2.7
	전문대 졸	51.9	40.9	7.2	0.0
	대학교 졸	61.6	34.7	1.3	2.3
	대학원 졸	57.5	38.5	3.5	0.6
종교	불교	56.6	23.9	7.3	12.2
	개신교(기독교)	59.6	30.3	6.6	3.6
	천주교	72.0	21.6	4.0	2.5
	없음/기타	54.1	38.7	4.5	2.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57.4	22.9	7.9	11.8
	200~400만원	61.1	31.8	4.5	2.6
	400~600만원	59.2	35.7	3.6	1.5
	600만원 이상	62.4	34.5	2.8	0.3
	모름/무응답	45.1	36.8	11.4	6.7

17) 종합장사시설 확충 시 어려운 점

- 종합장사시설을 확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50.3%, 부족한 재정 17.3%,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장사행정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장사시설 관련 각종 규제’ 보다는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종합장사시설 확충 시 어려운 점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

<그림 4-26> 종합장사시설 확충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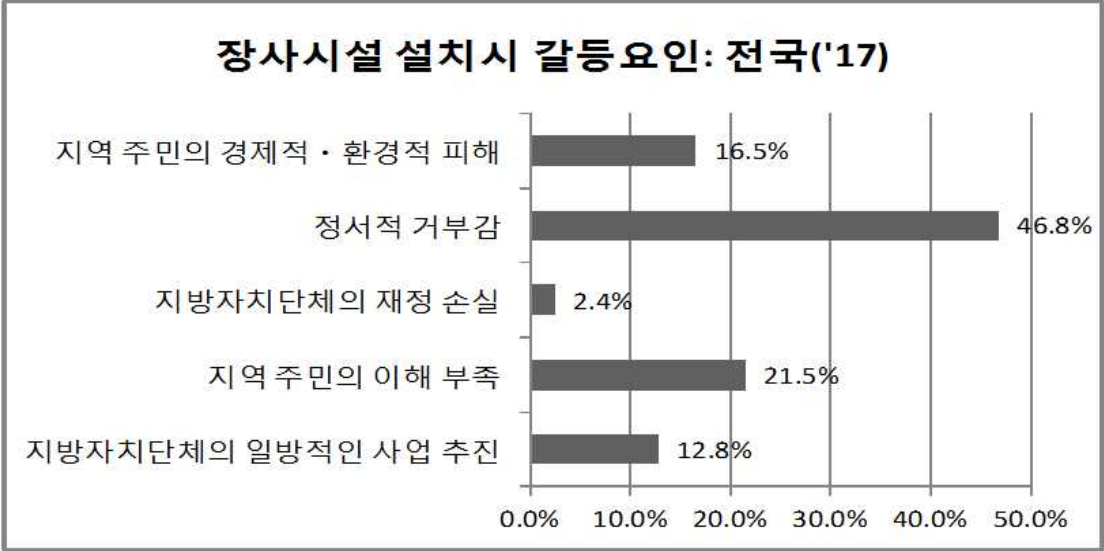
(단위: %)



- 2017년 전국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이유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거부감,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지역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7> 장사시설 설치 시 갈등요인 : 2017년 전국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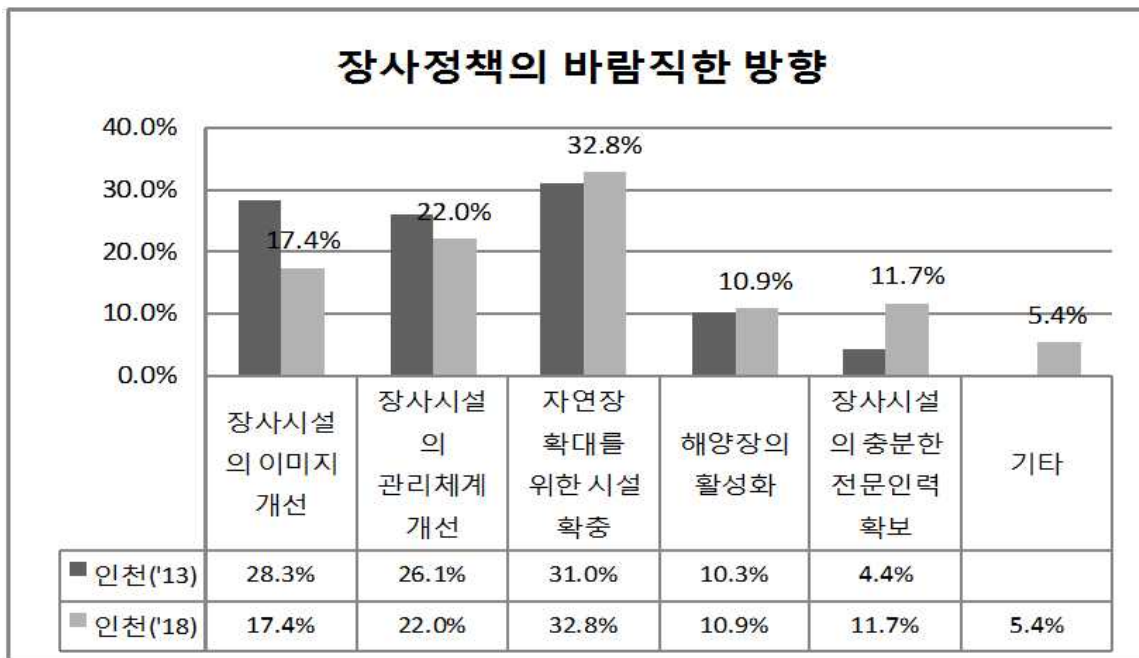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c)

18) 인천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인천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면, 자연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이 32.8%, 장사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22.0%,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8> 인천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단위: %)



제3절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

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및 내용

-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이하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를 실시함.
- 인천가족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등 전반적인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함. 인천가족공원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 설문지를 비치하고,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함.
 - 조사대상은 인천가족공원의 승화원(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임.
 - 조사표본은 편의추출방식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3주간 실시됨.

<표 4-2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 5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 조사
표본추출방법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조사기간	• 2018년 7월 6일~7월 26일
조사기관	• 인천가족공원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는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자연장이나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됨.

<표 4-2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조사항목

부문	문항
화장후 유골 안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 민간(사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 산, 강 또는 바다에 뿌림(산골) • 유택동산에 모심 • 기타
최초 안치기간 경과후 유골 안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 민간(사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 산, 강 또는 바다에 뿌림(산골) • 유택동산에 모심 • 기타
자연장이나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으로 낯설다. • 고인의 유지(유언 또는 평소의 생각 등) • 유족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 기타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 설문응답자와의 관계 • 연령 • 종교 • 사망원인

2) 응답자 및 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응답자는 총 500명임.

-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자의 주소지, 연령, 종교 등 사망자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 및 사망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23>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의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사망자 주소지	인천시	366	73	사망자 종교	불교	76	15
	그외지역	134	27		개신교(기독교)	144	29
사망자 와의 관계	부모	26	5		천주교	61	12
	자녀	387	77		기타	20	4
	형제자매	35	7		없음	199	40
	손자녀	23	5	사망자 사망 원인	고령	75	15
	기타	29	6		병사	374	75
사망자 연령	10대	7	1		사고사(교통, 재해사고, 기타사고사)	30	6
	20대	7	1		기타	20	4
	30대	9	2				
	40대	31	6				
	50대	50	10				
	60대	82	16				
	70대	103	21				
	80대	146	29				
	90대 이상	6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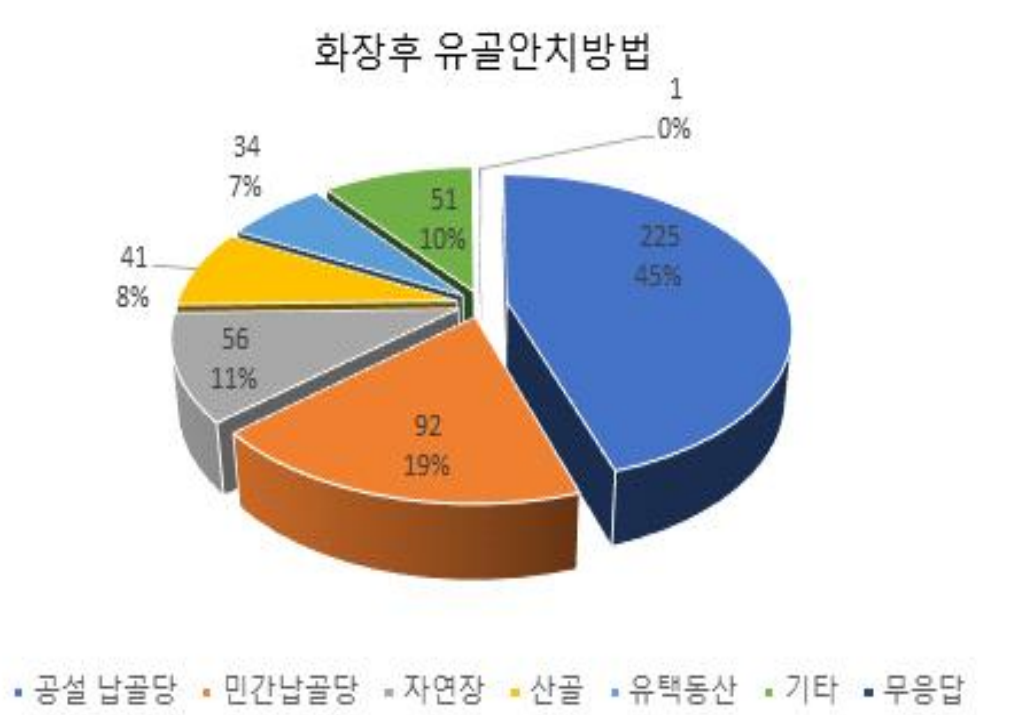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결과

1)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는 공설 납골당이 225건(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사설 납골당 92건(19%)이 차지함.
- 하지만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을 순환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자연장으로 간주한다면 이 세 가지 유골 안치방법이 131건(26%)을 차지함.

<그림 4-29>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단위: 명, %)



- 이러한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을 유골 안치방법으로 선택한 비율은 시민의식조사의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 4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화장을 진행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시민의식조사에서는 26%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시민의식조사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반면, 승화원 설문조사는 당사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 따라서 실제 순환을 장려하는 장사정책의 경우, 시민의 평소 생각이 실제 장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의 노력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해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로 분석함.

<표 4-24>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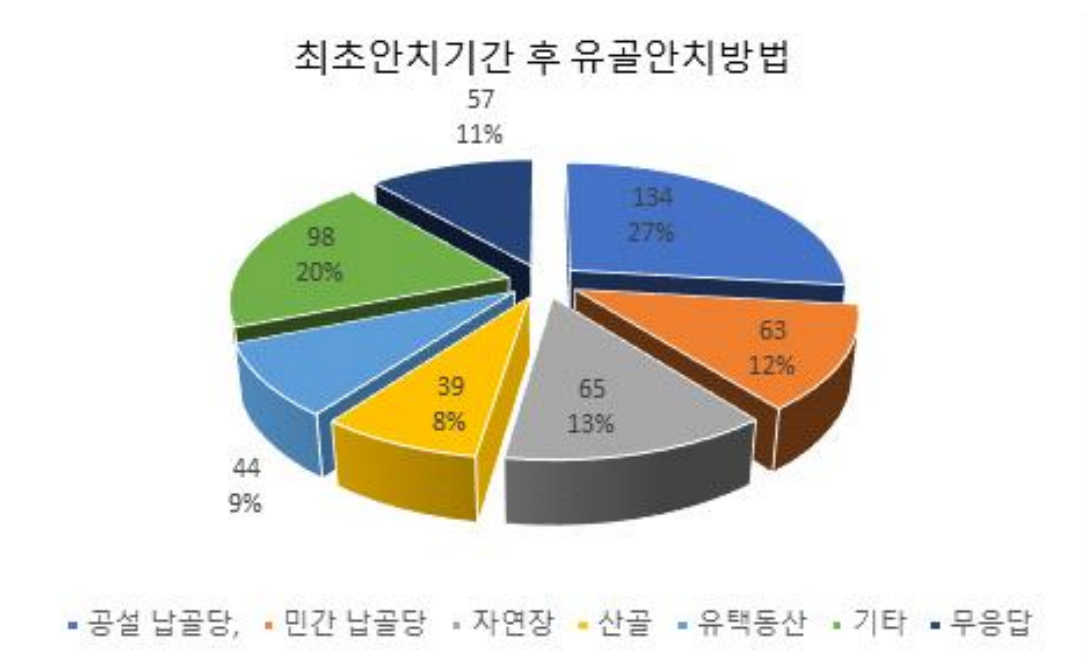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공설 납골당	민간 납골당	자연장	산골	유택 동산	기타	무응답
전체		500	100	225	92	56	41	34	51	1
주 소 지	인천시	366	73	198	50	42	25	19	32	0
	그외지역	134	27	27	42	14	16	15	19	1
사 망 자 와 관 계	부모	26	5	11	5	2	1	3	4	0
	자녀	387	77	186	69	45	32	16	38	1
	형제자매	35	7	9	6	3	5	9	3	0
	손자녀	23	5	8	5	3	1	3	3	0
	기타	29	6	11	7	3	2	3	3	0
연 령	10대	7	1	1	2	0	0	2	2	0
	20대	7	1	3	0	1	1	2	0	0
	30대	9	2	5	4	0	0	0	0	0
	40대	31	6	15	5	2	6	1	2	0
	50대	50	10	23	8	5	3	6	5	0
	60대	82	16	45	17	6	5	6	2	1
	70대	103	21	41	21	9	13	6	13	0
	80대	146	29	63	25	21	10	6	21	0
	90대 이상	65	13	29	10	12	3	5	6	0
종 교	불교	76	15	30	15	7	10	5	9	0
	개신교(기독교)	144	29	71	20	20	13	7	13	0
	천주교	61	12	25	12	11	4	4	5	0
	기타	20	4	10	6	1	0	0	3	0
	없음	199	40	89	39	17	14	18	21	1
사 망 원 인	고령	75	15	37	6	15	4	4	9	0
	병사	374	75	165	78	35	35	23	37	1
	사고사	30	6	14	5	4	1	4	2	0
	기타	20	4	9	2	2	1	3	3	0

2)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

- 최초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는 공설 납골당이 134건(27%)로 가장 많았고, 사설 납골당 63건(12%)가 차지함. 이는 화장 직후 선택하는 장례방법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감소한 것임.
- 반면에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 세 가지 유골 안치방법은 148건(30%)를 차지함.
 - 최초 안치기간에 자연장과 산골, 유택동산을 선택하여 무응답자 43건을 더하면 총 181건이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전체 응답자 500명 기준으로 보면 36%에 해당함.
 - 이와 같은 수치는 여전히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인 47%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초 안치기간 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장, 산골 방법을 선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승화원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과는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자연장, 산골과 같은 순환적 장례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30>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

(단위: 명, %)



-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해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로 분석함.

<표 4-25> 최초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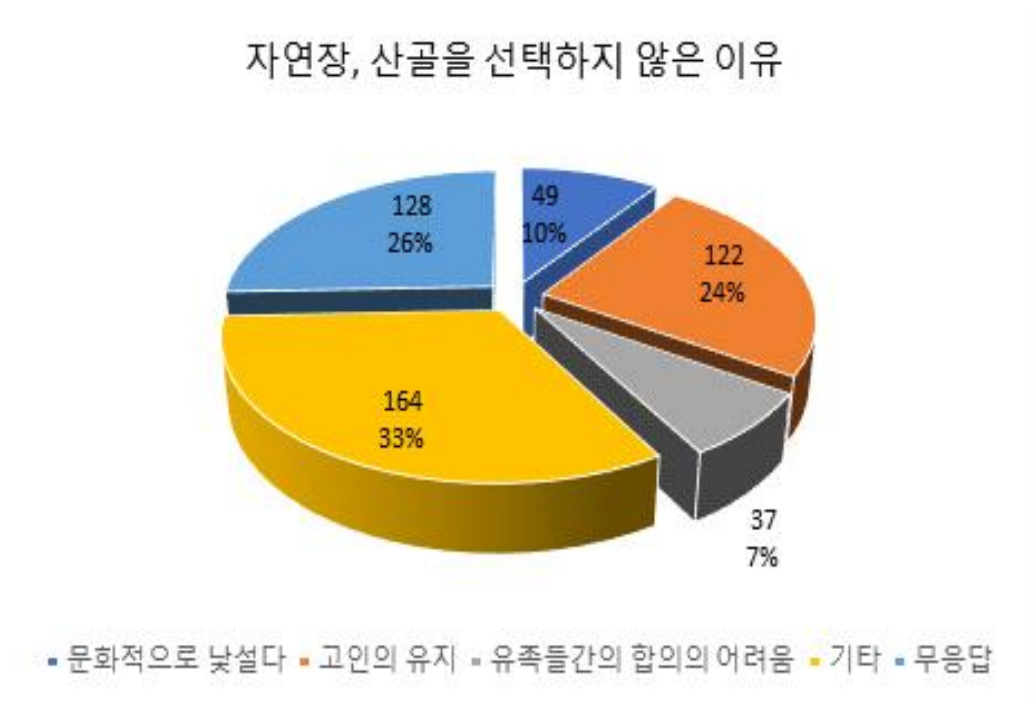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공설 납골당	민간 납골당	자연장	산골	유택 동산	기타	무응답
전체		500	100	134	63	65	39	44	98	57
주 소 지	인천시	366	73	116	37	53	27	31	65	37
	그외지역	134	27	18	26	12	12	13	33	20
사 망 자 와 관 계	부모	26	5	4	4	4	1	2	9	2
	자녀	387	77	115	46	48	30	31	74	43
	형제자매	35	7	4	5	4	5	5	6	6
	손자녀	23	5	5	3	4	3	2	3	3
	기타	29	6	6	5	5	0	4	6	3
연 령	10대	7	1	0	2	1	1	1	2	0
	20대	7	1	1	0	2	0	2	0	2
	30대	9	2	2	3	1	0	0	3	0
	40대	31	6	7	4	5	4	2	6	3
	50대	50	10	18	4	6	3	5	10	4
	60대	82	16	25	14	7	4	9	9	14
	70대	103	21	25	15	10	11	5	24	13
	80대	146	29	43	16	19	10	13	29	16
	90대이상	65	13	13	5	14	6	7	15	5
종 교	불교	76	15	15	13	9	6	8	11	14
	개신교(기독교)	144	29	52	13	18	14	7	30	10
	천주교	61	12	16	9	7	0	6	14	9
	기타	20	4	4	5	3	0	0	6	2
	없음	199	40	47	23	28	19	23	37	22
사 망 원 인	고령	75	15	21	4	17	11	5	12	5
	병사	374	75	104	54	38	25	32	75	46
	사고사	30	6	5	3	6	2	3	9	2
	기타	20	4	4	1	4	1	4	2	4

3)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자연장 또는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인의 유지가 122건(24%)가 많았으며, 문화적으로 낯설다는 응답은 49건(10%)로 응답률이 비교적 낮았음. 따라서 전통적 방법에 대한 선호로 인한 자연장 또는 산골에 대한 기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유족 간 합의문제는 37건(7%)이었으며,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묘지가 있어서 또는 납골당을 미리 준비해서 등이 조사됨.
- 무응답 128건 중에는 화장 후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산골 또는 자연장을 선택한 73건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무응답 건수는 58건(11.6%)로 분석됨.

<그림 4-31>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로 분석함.

<표 4-26>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응답자 및 사망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문화적 으로 낮설다	고인의 유지	유족들 간의 합의의 어려움	기타	무응답
전체		500	100	49	122	37	164	128
주 소 지	인천시	366	73	33	91	31	118	93
	그외지역	134	27	16	31	6	46	35
사 망 자 와 관 계	부모	26	5	0	5	3	11	7
	자녀	387	77	45	96	29	124	93
	형제자매	35	7	1	8	2	12	12
	손자녀	23	5	2	7	3	5	6
	기타	29	6	1	6	0	12	10
연 령	10대	7	1	0	0	0	4	3
	20대	7	1	0	1	0	3	3
	30대	9	2	1	2	2	4	0
	40대	31	6	1	7	0	15	8
	50대	50	10	5	12	1	23	9
	60대	82	16	9	24	9	17	23
	70대	103	21	11	24	8	34	26
	80대	146	29	17	30	14	47	38
	90대 이상	65	13	5	22	3	17	18
종 교	불교	76	15	16	17	5	12	26
	개신교(기독교)	144	29	12	45	14	38	35
	천주교	61	12	6	18	5	19	13
	기타	20	4	1	4	3	10	2
	없음	199	40	14	38	10	85	52
사 망 원 인	고령	75	15	5	19	9	17	25
	병사	374	75	38	95	24	127	90
	사고사	30	6	3	4	2	11	10
	기타	20	4	3	3	2	9	3

제 5 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요전망

제5장 인천시 장사시설 수요전망

제1절 분석개요

- 인천시 장사시설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 추계함.
 - 먼저 ① 인천시 사망자 수를 추계하고 이후 ② 화장 수요를 추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③ 화장 후 처리 시설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침.
 - 2018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향후 20년 이후인 2038년까지 장례추계를 실시하였음. 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행하고 화장률 및 화장후 처리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기 때문에 기준년도 이후 10년 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현재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시행하였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부문의 시설의 수급을 중심으로 분석함.
-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를 적용하였음.
 - 사망자 수의 추계의 기준자료가 되는 장래인구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적인 추계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음.
 - 화장에 대한 수요추정에 기초가 되는 화장 선호도 자료는 본 과제에서 수행한 인천시민의식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음.
 - 화장시설 수요는 인천시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발생하는 수요도 함께 고려함. 이는 인천가족공원 이용객의 상당수가 인천시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수요에 이러한 실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화장 후 안치방식에 대한 수요는 인천가족공원의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였음.
 - 단,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실제 인천가족공원의 시설별 안치 건수 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준년도에 맞춰 설문조사 결과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제2절 사망자 추계

1. 장래인구 기초자료

- 인천시 장사시설의 수요추계의 첫 단계는 장래사망자 인구를 추계하는 것임.
 - 사망자 추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장래추계 인구가 있음.
- 통계청의 『2015-204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세를 고려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임.
 - 2015년 등록센서스 시도별 인구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며 인구성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 시나리오와 인구성장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고위, 저위 시나리오 결과를 함께 공표함.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함. 출생, 사망관련 정보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순이동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의 지역개발 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 개발사업 유형별 계획인구와 외부 유입률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의 단계별 계획인구를 제시함.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계획인구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의 연도별 인구를 먼저 추계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함.
 - 목표연도별 계획인구 사이의 인구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간하였음. 예를 들면 아래 표의 2020년 인구가 310만 명이고 2025년의 인구는 332만 명이므로 인구는 두 기간의 인구의 격차를 계산하고 두 기간 동안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함.
 - 또한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2040년 인구를 340만 명으로 가정하여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남녀 비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가운데 중위 시나리오의 비율을 적용함.

- 사망자 수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통해 추계한 연도별 인구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각 연도 사망률을 곱하여 산출함.

<표 5-1>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연도별 계획인구

(단위: 만 명)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추계인구	298	310	332	350

자료 : 인천광역시청(2015)

2. 인천시 인구전망에 따른 사망자 추계

- 먼저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인천시의 연도별 사망자를 추계함.
 - 사망률 정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 중위 시나리오의 인천광역시 사망률은 2018년에 5.2%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 6.3%, 2030년에 7.2%로 전망됨.
 - 2020년 추계인구는 2,978,706명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16,383명으로 전망되며 남자가 8,236명, 여자가 8,147명임.
 - 2030년 추계인구는 3,151,654명이고 사망자 수는 22,692명으로 전망되며 남자가 11,373명, 여자가 11,319명임.

<표 5-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추계

(단위: 년, 명, %)

연도(년)	인구(명)			사망자(명)			사망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8	2,942,005	1,480,018	1,461,987	15,298	7,696	7,602	5.2
2019	2,960,748	1,488,938	1,471,810	15,988	8,040	7,948	5.4
2020	2,978,706	1,497,462	1,481,244	16,383	8,236	8,147	5.5
2021	3,001,025	1,508,251	1,492,774	17,106	8,597	8,509	5.7
2022	3,022,197	1,518,429	1,503,768	17,529	8,807	8,722	5.8
2023	3,042,322	1,528,063	1,514,259	18,254	9,168	9,086	6.0
2024	3,061,433	1,537,179	1,524,254	18,981	9,531	9,450	6.2
2025	3,079,506	1,545,774	1,533,732	19,401	9,738	9,663	6.3
2026	3,096,456	1,553,808	1,542,648	20,127	10,100	10,027	6.5
2027	3,112,212	1,561,236	1,550,976	20,852	10,460	10,392	6.7
2028	3,126,737	1,568,074	1,558,663	21,262	10,663	10,599	6.8
2029	3,139,933	1,574,244	1,565,689	21,980	11,020	10,960	7.0
2030	3,151,654	1,579,613	1,572,041	22,692	11,373	11,319	7.2
2031	3,161,786	1,584,123	1,577,663	23,713	11,881	11,832	7.5
2032	3,170,434	1,587,848	1,582,586	24,412	12,226	12,186	7.7
2033	3,177,508	1,590,743	1,586,765	25,102	12,567	12,535	7.9
2034	3,182,934	1,592,776	1,590,158	25,782	12,901	12,880	8.1
2035	3,186,661	1,593,911	1,592,750	26,768	13,389	13,379	8.4
2036	3,188,657	1,594,124	1,594,533	27,422	13,709	13,713	8.6
2037	3,188,947	1,593,444	1,595,503	28,382	14,182	14,200	8.9
2038	3,187,604	1,591,938	1,595,666	29,326	14,646	14,680	9.2

○ 두 번째 방식으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자 수를 추계함.

- 사망률 정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의 값을 동일하게 적용.
- 2020년 추계인구는 3,100,000명이며 사망자 수는 17,050명으로 전망되며 남자가 8,571명, 여자가 8,479명임.
- 2030년 추계인구는 3,500,000명이며 사망자 수는 25,200명으로 전망되며 남자가 12,630명, 여자가 12,570명임.

<표 5-3>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기준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추계

(단위: 년, 명, %)

연도(년)	인구(명)			사망자(명)			사망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8	3,012,000	1,515,230	1,496,770	15,662	7,879	7,783	5.2
2019	3,056,000	1,536,840	1,519,160	16,502	8,299	8,203	5.4
2020	3,100,000	1,558,439	1,541,561	17,050	8,571	8,479	5.5
2021	3,144,000	1,580,107	1,563,893	17,921	9,007	8,914	5.7
2022	3,188,000	1,601,733	1,586,267	18,490	9,290	9,200	5.8
2023	3,232,000	1,623,332	1,608,668	19,392	9,740	9,652	6.0
2024	3,276,000	1,644,915	1,631,085	20,311	10,198	10,113	6.2
2025	3,320,000	1,666,491	1,653,509	20,916	10,499	10,417	6.3
2026	3,356,000	1,684,048	1,671,952	21,814	10,946	10,868	6.5
2027	3,392,000	1,701,591	1,690,409	22,726	11,401	11,326	6.7
2028	3,428,000	1,719,159	1,708,841	23,310	11,690	11,620	6.8
2029	3,464,000	1,736,719	1,727,281	24,248	12,157	12,091	7.0
2030	3,500,000	1,754,204	1,745,796	25,200	12,630	12,570	7.2
2031	3,490,000	1,748,565	1,741,435	26,175	13,114	13,061	7.5
2032	3,480,000	1,742,888	1,737,112	26,796	13,420	13,376	7.7
2033	3,470,000	1,737,172	1,732,828	27,413	13,724	13,689	7.9
2034	3,460,000	1,731,423	1,728,577	28,026	14,025	14,001	8.1
2035	3,450,000	1,725,628	1,724,372	28,980	14,495	14,485	8.4
2036	3,440,000	1,719,779	1,720,221	29,584	14,790	14,794	8.6
2037	3,430,000	1,713,893	1,716,107	30,527	15,254	15,273	8.9
2038	3,420,000	1,708,000	1,712,000	31,464	15,714	15,750	9.2

○ 장사시설의 수요추정에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 자료를 비교해보면,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기준점이 되는 2015년 인구는 2,882,868명으로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 2,925,815명에 비해 42,947명 과소하며 2017년 장래인구추계도 주민등록 인구에 비해 25,495명 과소함.
- 따라서 과소추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추계된 사망자 수 자료를 활용함.

제3절 화장 규모 추계 및 수급진단

1. 인천시 화장 선호도 및 수요추정 근거

- 사망자 수 전망자료, 인천시의 시민의식조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20년 기간 동안의 화장 규모를 추계하고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시설의 수급을 진단함.
 - 화장 수요의 추계는 먼저 인천시의 사망자 수 및 화장률 전망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 관내 화장 수요를 측정함.
 -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사망자가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관내와 관외 수요를 모두 포함한 총 수요를 추계함.
- 화장률의 기준자료는 전국 화장률의 증가율, 2018년 시민의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 2018년 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81.6%가 선호하는 장사방식으로 화장을 선택함. 남성의 화장 선호율은 78.6%이고 여성의 화장 선호율은 84.3%임.
 -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의 2016년 화장률이 82.7%인 것을 고려할 때,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 평균 화장률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는 전국 화장률이 2020년에 87.8%, 2027년에 9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인천시의 화장률 또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함.
 -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는 인천시 화장률이 2015년 90.2%, 2016년 91.2%로 전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
 - 본 분석에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우선에 두고 전국 화장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8년 화장률을 95%로 가정하고 선형으로 화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수요를 관내와 관외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함.
 - 인천시 관내 화장 수요는 위에서 제시한 화장률 선호도 자료와 사망자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인천시 관외 지역의 인천가족공원 화장 수요는 현재 관외 지역의 화장 건수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추계함.
- 인천가족공원 화장 건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천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망자와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망자(개장 제외)의 비율은 약 66:33임.
- 향후 관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장수요는 지난 5년간 관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망자의 비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표 5-4> 인천가족공원 화장 건수 현황

(단위: 년, 건)

연도 (년)	화장건수 (건)	화장건수(건)					
		관내			관외		
	전체	소계	일반	개장	소계	일반	개장
2018. 06. 말	12,996	8,534	6,684	1,850	4,462	4,311	151
2017	23,783	16,003	12,583	3,420	7,780	6,912	868
2016	20,018	13,591	12,214	1,377	6,427	6,181	246
2015	19,603	13,451	11,604	1,847	6,152	5,971	181
2014	21,097	14,973	11,381	3,592	6,124	5,701	423
2013	18,221	12,510	10,973	1,537	5,711	5,479	232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개장으로 인한 화장건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 개장으로 인한 화장 건수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장 건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개장으로 인한 화장건수의 비중은 15.3%에서 2038년에 5%로 축소될 것으로 가정함.
- 인천가족공원에는 현재 20기의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화장로의 적정운영은 1일 3-4회 운영으로 알려져 있음. 인천가족공원은 1일 8회 그리고 1회 9기의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1기의 화장로는 예비시설임.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1일 처리 능력은 72기/일임.
- 연간가동일수를 360일로 적용할 때 연간 운영 가능한 화장구수는 약 25,920구로 추정됨.
- 개장 유골에 대해서는 1일 2회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1일 처리 능력은 18기/일임. 개장 유골에 관한 연간 운영 가능한 화장구수는 6,480구로 추정됨.

<표 5-5>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화장시설 규모

설치연도	대상화장로	사용기간	비 고
2004. 09.	2대	13년/02개월	화장로 : 20기 ※ 처리능력 : 72기/일 (회차당 1기 정비)
2007. 12.	6대	9년/11개월	
2008. 07.	5대	9년/04개월	
2011. 05.	5대	6년/06개월	
2017. 06.	2대	05개월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2. 화장 규모 전망

- 인천시 사망자 수 및 화장률 전망 자료를 근거로 화장 규모를 2038년까지 추계함.
- 2018년에는 화장 수요는 12,754건이며, 2022년에는 15,559건, 2025년에 18,948건, 그리고 2030년에 22,573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6> 인천시 관내 화장수요 연도별 추계

(단위: 년, %, 건)

연도(년)	화장률(%)		화장 규모(건)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8	78.6	84.3	12,754	6,193	6,561
2019	79.4	84.8	13,550	6,591	6,959
2020	80.2	85.4	14,116	6,878	7,238
2021	81.1	85.9	14,958	7,301	7,658
2022	81.9	86.4	15,559	7,607	7,953
2023	82.7	87.0	16,450	8,055	8,395
2024	83.5	87.5	17,367	8,518	8,850
2025	84.3	88.0	18,027	8,855	9,172
2026	85.2	88.6	18,948	9,322	9,627
2027	86.0	89.1	19,895	9,802	10,093
2028	86.8	89.7	20,565	10,147	10,417
2029	87.6	90.2	21,556	10,652	10,904
2030	88.4	90.7	22,573	11,170	11,403
2031	89.3	91.3	23,624	11,706	11,919
2032	90.1	91.8	24,367	12,089	12,278
2033	90.9	92.3	25,113	12,475	12,639
2034	91.7	92.9	25,865	12,863	13,002
2035	92.5	93.4	26,942	13,414	13,528
2036	93.4	93.9	27,704	13,808	13,896
2037	94.2	94.5	28,794	14,366	14,428
2038	95.0	95.0	29,891	14,928	14,963

○ 인천시 관내 화장 수요 전망 값을 기준으로 관외 그리고 개장으로 인한 화장 수요를 추가적으로 추계함.

- 인천시 관내 및 관외 수요를 포함한 화장 수요는 2018년 19,307건에서 2027년에 30,117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 관내, 관외, 그리고 개장을 모두 포함한 총 화장 수요는 2018년 22,266건에서 2027년에 33,4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7> 인천시 관내, 관외, 개장을 포함한 총 화장 수요 추계

(단위: 년, 건)

연도(년)	총 화장수요 (사망자 및 개장 유골)	사망자 기준 화장 수요		개장
		관내	관외	
2018	22,266	12,754	6,553	2,958
2019	23,555	13,550	6,962	3,042
2020	24,433	14,116	7,253	3,064
2021	25,780	14,958	7,686	3,136
2022	26,700	15,559	7,995	3,146
2023	28,106	16,450	8,452	3,204
2024	29,544	17,367	8,924	3,253
2025	30,531	18,027	9,262	3,242
2026	31,952	18,948	9,736	3,267
2027	33,400	19,895	10,222	3,282
2028	34,371	20,565	10,566	3,240
2029	35,868	21,556	11,076	3,236
2030	37,392	22,573	11,599	3,220
2031	38,957	23,624	12,139	3,195
2032	40,000	24,367	12,520	3,114
2033	41,039	25,113	12,904	3,022
2034	42,075	25,865	13,290	2,920
2035	43,626	26,942	13,843	2,841
2036	44,654	27,704	14,235	2,715
2037	46,197	28,794	14,795	2,608
2038	47,512	29,891	15,358	2,262

3. 화장시설 수급진단

- 사망자 및 개장 유골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로의 개수를 연차별로 추정함.
- 인천가족공원은 매일 1-8회 차는 사망자에 대해 화장을 실시하고 9-10회 차는 개장유골에 대해 화장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요와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수요를 구분하여 분석함.
- 사망자의 화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에 화장로가 증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에 필요한 화장로 수는 14.9기이며 2024년에는 현재 인천가족공원 20기 화장로를 넘어선 20.3기의 화장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개장 유골은 현재 화장로 시설 규모 내에서 계속 화장 가능할 것으로 추계됨.

<표 5-8> 인천시 화장로 수급 전망

(단위: 년, 건, 기)

연도(년)	사망자 화장 수요 (관내 및 관외)		개장 유골	
	화장 수요(건)	필요 화장로(기)	화장 수요(건)	필요 화장로(기)
2018	19,308	14.9	2,958	9.1
2019	20,513	15.8	3,042	9.4
2020	21,369	16.5	3,064	9.5
2021	22,644	17.5	3,136	9.7
2022	23,554	18.2	3,146	9.7
2023	24,902	19.2	3,204	9.9
2024	26,291	20.3	3,253	10.0
2025	27,289	21.1	3,242	10.0
2026	28,684	22.1	3,267	10.1
2027	30,118	23.2	3,282	10.1
2028	31,131	24.0	3,240	10.0
2029	32,632	25.2	3,236	10.0
2030	34,172	26.4	3,220	9.9
2031	35,763	27.6	3,195	9.9
2032	36,886	28.5	3,114	9.6
2033	38,017	29.3	3,022	9.3
2034	39,155	30.2	2,920	9.0
2035	40,785	31.5	2,841	8.8
2036	41,939	32.4	2,715	8.4
2037	43,589	33.6	2,608	8.0
2038	45,249	34.9	2,262	7.0

제4절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추계 및 수급전망

1. 화장 후 안치유형별 수요 추정 및 수급진단 근거

- 인천시 사망자 수 추계 결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한 유골에 대한 안치방식 설문조사 결과, 인천가족공원의 이용실태를 근거로 유형별 안치방식을 추계함.
- 관외 및 개장과 관련된 화장 수요를 제외하고 인천시 사망자 수 추계 결과를 적용함.
 - 제3절 화장 규모 추계 및 수급진단에서는 관내, 관외, 개장을 포함한 화장 수요를 모두 추계하여 화장시설 수급을 진단함.
 - 화장로의 경우 관외 사망자 및 개장 유골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봉안시설, 자연장 등과 같은 화장 후 안치는 인천시민 즉, 관내 수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추계 및 수급전망은 <표 5-3> 인천시 사망자 수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석함.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에 의거한 화장 후 안치방식의 선택은 다음과 같음.
 - 공설 봉안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는 45.1%이며 민간(사설) 봉안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는 18.4%임.
 -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자연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11.2%이며, 산골과 유택동산은 각각 8.2%와 6.8%, 기타는 10.2%로 나타남.

<표 5-9>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안치방식 조사결과

(단위: 명, %)

안치방식	빈도(명)	비중(%)
1. 공설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225	45.1
2. 민간(사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92	18.4
3.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56	11.2
4. 산, 강 또는 바다에 뿌림(산골)	41	8.2
5. 유택동산에 모심	34	6.8
6. 기타	51	10.2
소계	499	

- 인천가족공원의 실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화장건수에 대비 봉안당 이용 건수의 비중은 최근 5년간 34.5%로 설문조사에 비해 낮은 편임.
- 또한 자연장지 수요는 약 1일 3건으로 전체 화장건수의 약 5.3% 수준임.
- 관외의 화장시설 사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을 사용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0> 인천가족공원 이용 실태

(단위: 년, 건, %)

연도(년)	화장 건수(건)	봉안당 이용 건수(건)	봉안당 이용비율 (%)
2018. 06. 말	12,996	3,760	28.9
2017	23,783	7,221	30.4
2016	20,018	6,666	33.3
2015	19,603	6,397	32.6
2014	21,097	7,631	36.2
2013	18,221	7,271	39.9
2012	15,480	6,762	43.7
2011	12,074	6,241	51.7
2010	10,301	5,252	51.0
2009	10,817	4,783	44.2
2008	10,937	5,097	46.6
최근 5년 봉안당 이용비율 평균			34.5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 추계는 대안 1과 대안 2로 구분하여 추계함.
- 대안 1은 인천가족공원의 승화원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실제 인천가족공원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하여 적용함.
 - 공설 봉안시설 이용률은 최근 5년도 봉안당 이용률 34.5%에 맞춰 조정하였고, 자연장지는 1일 3건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률인 5.3%를 적용함.
 - 자연장, 민간시설, 유택동산 관련 이용률은 인천가족공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함.
- 대안 2는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자의 설문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안치방식의 장래 수요를 추정함.
 - 봉안시설, 자연장, 민간시설, 유택동산 관련 이용률은 인천가족공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함. 즉, 공설 봉안당 이용률은 45.1%, 자연장 이용률은 11.2% 등을 적용함.

- 화장이후 유형별 봉안시설의 수급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의 가용 봉안 규모를 검토함.
- 현재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의 총 봉안 능력은 123,871구이고 기봉안 실적은 107,140구이며 봉안가능기수는 30,210임(외국인 시설 제외). 2019년 완공을 목표로 39,000구 규모의 봉안시설이 건설 중임.
 - 따라서 2020년 이후의 가용 봉안시설 규모는 63,617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장지의 경우 총봉안능력은 11,066구이고 기봉안실적은 5,473구이며 봉안가능기수는 5,593구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4,000구 규모의 자연장지 시설이 건설 중임.
 - 따라서 2020년 이후의 가용 자연장지 규모는 19,593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5-11>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

(단위: 구)

구분	계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총봉안능력	123,871	112,805	11,066	-
기봉안실적	107,140	88,188	5,473	13,479
봉안가능기수	30,210	24,617	5,593	-
예정 (2019년)	-	39,000	14,000	-
2020년 이후 가용 봉안 규모	-	63,617	19,593	-

자료 : 인천가족공원(2018)

2. 화장 후 처리 유형별 수요 추계

- [대안 1] 인천가족공원 실제 이용실태를 근거로 하여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를 2038년까지 추계함.
- 공설 봉안시설의 2018년 수요는 5,399건이며 2022년에는 6,374건, 2025년에 7,211건, 2030년에 8,687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사설) 봉안시설의 2018년 수요는 2,888건이며 2022년에는 3,409건, 2025년에 3,856건, 2030년에 4,646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장지의 2018년 수요는 830건이며 2022년에는 980건, 2025년에 1,109건, 2030년에 1,336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2>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 추계 : 대안 1

(단위: 년, 건)

연도(년)	유형별 봉안방식					
	공설 봉안당	사설 봉안당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	기타
2018	5,399	2,888	830	1,287	1,067	1,601
2019	5,689	3,043	875	1,356	1,124	1,687
2020	5,878	3,143	904	1,401	1,162	1,743
2021	6,178	3,304	950	1,472	1,221	1,832
2022	6,374	3,409	980	1,519	1,260	1,890
2023	6,685	3,575	1,028	1,593	1,321	1,982
2024	7,002	3,745	1,076	1,669	1,384	2,076
2025	7,211	3,856	1,109	1,719	1,425	2,138
2026	7,520	4,022	1,156	1,792	1,486	2,229
2027	7,835	4,190	1,204	1,867	1,548	2,323
2028	8,036	4,298	1,235	1,915	1,588	2,382
2029	8,359	4,471	1,285	1,992	1,652	2,478
2030	8,687	4,646	1,336	2,071	1,717	2,576
2031	9,024	4,826	1,387	2,151	1,783	2,675
2032	9,238	4,940	1,420	2,202	1,826	2,739
2033	9,450	5,054	1,453	2,252	1,868	2,802
2034	9,662	5,167	1,485	2,303	1,910	2,864
2035	9,991	5,343	1,536	2,381	1,975	2,962
2036	10,199	5,454	1,568	2,431	2,016	3,024
2037	10,524	5,628	1,618	2,508	2,080	3,120
2038	10,847	5,801	1,668	2,585	2,144	3,216

○ [대안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자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를 2038년까지 추계함.

- 공설 봉안시설의 2018년 수요는 7,062건이며 2022년에는 8,337건, 2025년에 9,431건, 2030년에 11,363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사설) 봉안시설의 2018년 수요는 2,888건이며 2022년에는 3,409건, 2025년에 3,856건, 2030년에 4,646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장지의 2018년 수요는 1,758건이며 2022년에는 2,075건, 2025년에 2,347건, 2030년에 2,828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3>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수요 추계 : 대안 2

(단위: 년, 건)

연도(년)	유형별 봉안방식					
	공설 봉안당	사설 봉안당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	기타
2018	7,062	2,888	1,758	1,287	1,067	1,601
2019	7,441	3,043	1,852	1,356	1,124	1,687
2020	7,688	3,143	1,913	1,401	1,162	1,743
2021	8,081	3,304	2,011	1,472	1,221	1,832
2022	8,337	3,409	2,075	1,519	1,260	1,890
2023	8,744	3,575	2,176	1,593	1,321	1,982
2024	9,158	3,745	2,279	1,669	1,384	2,076
2025	9,431	3,856	2,347	1,719	1,425	2,138
2026	9,836	4,022	2,448	1,792	1,486	2,229
2027	10,247	4,190	2,550	1,867	1,548	2,323
2028	10,511	4,298	2,616	1,915	1,588	2,382
2029	10,933	4,471	2,721	1,992	1,652	2,478
2030	11,363	4,646	2,828	2,071	1,717	2,576
2031	11,802	4,826	2,937	2,151	1,783	2,675
2032	12,082	4,940	3,007	2,202	1,826	2,739
2033	12,361	5,054	3,076	2,252	1,868	2,802
2034	12,637	5,167	3,145	2,303	1,910	2,864
2035	13,067	5,343	3,252	2,381	1,975	2,962
2036	13,339	5,454	3,320	2,431	2,016	3,024
2037	13,765	5,628	3,426	2,508	2,080	3,120
2038	14,187	5,801	3,531	2,585	2,144	3,216

3.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진단

○ 공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누적 안치 건수를 <표 5-11>의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과 비교하여 시설 포화 시기를 검토함.

- 대안 1의 경우 봉안시설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5,399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 65,772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을 근거로 2020년 이후 인천가족공원의 가용 봉안 규모가 63,617구임을 고려할 때, 2027년경에 봉안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1에 따른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830건에서 2034년 19,714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34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2의 경우 봉안시설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7,062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 65,942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25년경에 봉안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2에 따른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1,758건에서 2027년 21,411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27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4> 화장 후 유형별 시설 수급

(단위: 년, 건)

연도(년)	대안 1 유형별 누적 봉안 건수		대안 2 유형별 누적 봉안 건수	
	공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 봉안당	자연장
2018	5,399	830	7,062	1,758
2019	11,089	1,705	14,503	3,610
2020	16,966	2,608	22,191	5,523
2021	23,144	3,558	30,272	7,534
2022	29,519	4,538	38,609	9,609
2023	36,204	5,566	47,353	11,786
2024	43,206	6,642	56,511	14,065
2025	50,417	7,751	65,942	16,412
2026	57,937	8,907	75,778	18,860
2027	65,772	10,112	86,026	21,411
2028	73,808	11,347	96,536	24,027
2029	82,167	12,632	107,470	26,748
2030	90,854	13,968	118,832	29,576
2031	99,878	15,355	130,635	32,514
2032	109,116	16,775	142,717	35,521
2033	118,566	18,228	155,078	38,597
2034	128,228	19,714	167,715	41,742
2035	138,218	21,250	180,782	44,995
2036	148,417	22,817	194,121	48,315
2037	158,941	24,435	207,886	51,741
2038	169,788	26,103	222,073	55,272

제 6 장

장사시설의 순환 사용을 통한 수요 조절

제6장 장사시설의 순환 사용을 통한 수요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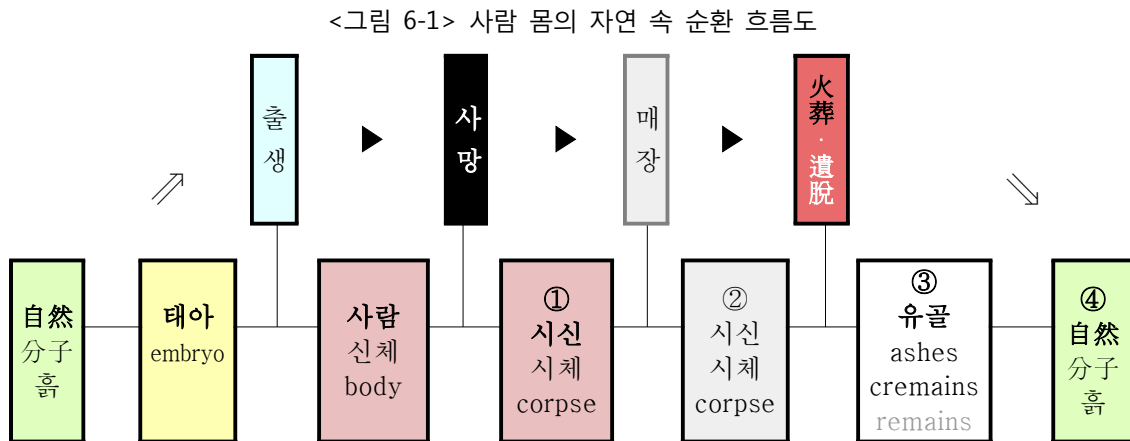
제1절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순환적 접근

-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여 수요에 대응하는 것임.
 - 따라서 기존 시설의 잔여분과 적절한 크기의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수급대책을 완료하는 경우가 흔함.
- 문제는 순환(循環) 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새로운 시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사시설을 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영구(永久) 사용’이 바탕에 깔린 경우가 많다 보니 한번 사용한 그 자리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함. 또한 타인이 사용했던 곳과 타인과의 시설 공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임.
- 따라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의 “순환” 사용 또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시설 “공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시설 수급계획은 장사시설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시설의 순환 사용과 현세대 구성원 간 및 미래 세대와도 공유를 전제로 한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

제2절 개념의 정립 등

1. 순환의 개념

- 순환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순환(循環)이란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것, 또는 그런 과정이라 말함.
 - 영어로는 circulation이라 하고, 같은 뜻의 영어 cycle은 ‘윤회(輪廻)하다’와 연결됨.
 - 일례로 ‘물 순환’이란 물이 바다와 땅, 대기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나 눈으로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는 현상임.
- 이처럼 자연 순환의 큰 틀 속에서 인간의 육신 또한 다음 <그림 6-1>과 같이 자연에서의 탄생, 그리고 사망 분해 후 자연회귀를 무한 반복함.



-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 온 사람이 사망하면, ① 시신(屍身, corpse)으로 바뀜. ② 시신을 매장해도 분류가 바뀌지 않음. ②를 거치지 않고, 화장(火葬)을 하면 ③ 유골(遺骨)이 되는데 영어로는 ashes, cremains가 되며, 화장을 거치지 않은 유골은 remains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음. 유골을 자연 등에 뿌리기 쉽도록 분말 화시킨 것을 골분(骨粉) 또는 분골(粉骨)이라고도 함. 묻든 뿌리든 유골은 자연 속에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④ 본래의 분자로 환원될 뿐임.

- 결국, 인천가족공원에서 장사된 시신은 유족들이 원해서 외부로 반출하지 않은 한, 그 위치가 어디든, 공원 내에서 자연으로 환원되는 것임. 시설 유형별로 사용기한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 표지(명패)만 떼어낼 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원히 가족공원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임.
-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시민 고객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이를 반영해 마련하는 수급계획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계획이 될 것임.
-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바탕을 지닌 인천가족공원은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영원히 공유하는 명소가 될 것임.
- 인천가족공원이라는 소중한 공공자산을 현재와 같이 소수가 오랫동안 점유하는 폐단을 불식하게 될 것임.

2. 장사시설 수급 조절의 수단

- 사용 결과가 누적되는 수용형 장사시설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장사시설 토지의 소모로 귀결됨.
- 수급관리상 장사시설 토지의 활용도나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은 추가 공급 외에 수급을 조절 또는 통제하는 방법은 비슷함.
- 일반적인 수단은 다음 <표 6-1>과 같이 ① 시설 사용자의 자격 제한, ② 시설 사용기한 등의 조정, ③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 경제적인 제재 등이 사용됨.
- 보다 전문적인 수단으로는 ④ 시설의 선호도 관리, ⑤ 토지의 효율성 제고 ⑥ 대체 수단의 제공, ⑦ 기타 등이 있음.

<표 6-1> 장사시설 수급관리의 제 수단

구분	내용	비고(기대효과)
① 사용자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기본적인 수급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자체 관할 구역 주민과 그밖에 사람들을 구분하여 전자는 무제한 사용하고, 후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임. 같은 지역 주민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여 제한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함. 일례로 미성년 사망자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의 봉안시설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연고화할 가능성이 큰 불필요한 시설 수요 발생을 억제하기도 함. 	수요 감축
② 사용기한 등의 조정	(별도)	회전을 제고
③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별도)	수요 관리
④ 시설의 선호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장사시설 중에 봉안당의 시설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름. 수준 높은 시설에 양질의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화장 후 행하여지는 장사시설 수요의 50% 이상을 점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또 국내 일부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은 주위환경이나 내부 조경 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름. 이런 우수성이 오히려 시설의 적절한 수급관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함. 시설의 선호도는 시설 측면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기간이나 사용제한 등의 사용제도를 통해서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음. 	수요 관리
⑤ 토지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1기당 사용 면적을 축소하는 것인데, 공공부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임. 반면 이 점을 너무 강조하면 시설의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측면의 조화를 위해 면밀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임. 일부에서는 입체 또는 중층 사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함. 	효율성 제고
⑥ 대체 수단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변화에 따라 종전 우리사회에서 금기시했던 곳까지 장사를 치르는 영역으로 들어옴. 대표적인 것이 나무 그늘, 뿌리 부분에 수목장을 하는 것이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바다 산골), 유골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장 등으로까지 다양해지고 있음. 우리 자연장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Rose Garden, Garden of Remembrance, 프랑스의 jardin du souvenir, 스웨덴의 Minneslund 등과 같은 고품격 산골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장사시설 수요를 감축시키는 것도 같은 방법임. 	수요 감축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해서 생활 주변에 두는 것 등 과학문명의 발전은 장사에서 다양한 방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3. 장사시설 사용기간 설정의 연원

-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늦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관습이나 법규는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즉, ‘영구매장제’였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15년 단위로 총 4회 최대 60년까지 묘지를 사용하는 ‘시한부매장제’ (일부에서는 ‘한시적 매장제’라고 함)가 법으로 정해짐.
 - 이에 따라 다수의 공설·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등의 사용기간이 이와 같이 정해짐.
 - 2017년에 이르러 같은 60년이지만 30년 단위 2회 매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자 이번에도 다수의 시군 공설묘지와 봉안시설 등의 사용기간 조정이 뒤를 이음.
- 시한부매장제도의 단초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음.
 - 오래된 유럽 묘지의 시작은 중세 이전부터의 교회 부속묘지에서 출발함.
 - 기독교 부활신앙에 따라 사후에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의 영역인 교회에 시신을 묻고 부활의 때를 기다림.
 - 세월이 흐른 후 교회묘지에 더 이상 매장할 땅이 없게 되었지만 교회라는 특성상 무한정 묘역을 확장할 수도 없게 됨.
 - 이로 인해 부득이 매장한 지 오래된 묘를 개장하여 수습된 유골은 따로 안치하고, 그 땅은 새로운 시신을 매장하는 즉 묘지의 재사용제도가 자리 잡게 됨.
 - 오스트리아 일부 산악지역에서는 표토(表土)가 부족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이 제도의 정착이 빨랐다는 설이 존재함.
 - 그 결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묘지)에는 유골안치소가 있어 그곳에는 수많은 유골이 차곡차곡 쌓여갔는데 이런 장소를 ossuary라고 부름. 심지어 건축할 때 상들리에까지도 사람 뼈로 장식한 체코의 Sedlec Ossuary교회(일명 ‘해골성당’)를 포함해, 오늘날 유럽에는 몇몇 사람 뼈로 장식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함.
 - 근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에는 시민혁명의 시대가 도래함.
 - 이에 따라 종전 교회에서 담당하던 묘지를 포함한 장례업무가 시민사회 즉, 지자체의 의무로 옮겨오게 되었고, 교회부속묘지 대부분도 도시묘지로 전환됨.
 - 이 과정에서 시한부 매장제도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각 도시의 조례(법률)로 명문화됨.

- 유럽묘지의 시한부묘지제도를 살펴보면, 매장기한은 5년, 10년, 15년, 20년, 28년 등 다양함.
 - 최초의 기본 사용기간은 사망자 복지차원에서 묘지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배정해줌.
 - 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가족(선택, 개별)묘지의 경우 유족이 비용을 부담하고 계속 사용을 원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유럽이 재사용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보다 묘혈(墓穴)을 더 깊게 파고 묻은 다음 그 위에 새로운 관을 매장하는 방법과 발굴된 유골을 모아서 따로 안치소(공간)에 쌓아두는 등의 유형이 있음.
 - 본인이나 유족의 의사에 반해 한 번 묻혔던 묘지의 영역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묘지 내 어딘가에서 분해되어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감.
 - 즉 유럽묘지는 기본적으로 시신 또는 유골을 그 묘지 안에 영구히 안장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6-2>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교회묘지의 유골안치소



- 시한부매장제도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묘지들에서 변천·발달해 온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한 역사가 불과 15년여에 지나지 않음.
 - 도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서양묘지에서의 묘지 순환 사용과 사후 유골 처리 방식 같은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하여 아직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 장사문화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대해 순환사용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 번 이곳에 장사되면 영구히 존재하는 그런 관념과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규상 최대 사용기한이 지나면 분묘 개장, 유골의 이동 안장 등을 해야 함. 이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어느 곳에 봉안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법령에서는 장소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무연고 시신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봉안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들의 조례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4.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기간 조정결과 검토

- ‘사용기간’이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날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기간’은 시효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며,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155조).
- 기간의 계산방법은 자연법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장사시설에서의 사용기간은 후자인 역법적 계산방법을 사용하며, 보통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해 역(曆)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함(『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이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년도에 기산일의 전일을 만기로 함.
 - 예를 들어 2018년 8월 30일 봉안당에 안치하였다면, 9월 1일부터 사용기간이 시작되고, 15년 후인 2033년 8월 30일에 사용기간이 만료됨.
- 문제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계산방법이 아닌, 최초 사용기간과 이후 기간연장의 적절성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분묘설치기간은 3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이와 비교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묘,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표 6-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의 사용기간 규정

구분	내용
제16조 (분묘의 사용기간 등)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4>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제21조의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5-01-12>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법률대로 30년이지만, 현재 인천가족공원에서 매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연장 규정이 없음. 때문에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시설은 30년간 1회만 사용할 수 있음.
- 종전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한 총 30년간으로 되어 있었으며, 자연장지는 20년 사용 후 1차에 한하여 연장함으로써 총 40년간 안장할 수 있었음.
- 위 2가지 시설 사용기간을 1차 30년으로 통일함으로서 관리상 편의는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고객인 시민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였을까?” 하는 부분과 “사용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 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관념과 주어진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봄으로서 적절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음 <표 6-3>는 선진 장사시설 관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독일어권 주요 도시들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에 관해 비교한 것임.
- 독일어권 주요도시들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경우 대체로 20년 또는 25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사후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장사시설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

- 특히 독일의 경우,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이라는 현격히 다른 환경 속에서 양측의 시스템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음.
- 가족들이 대를 이어 승계 사용하는 묘지는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도 있음.

<표 6-3> 독일어권 도시들의 묘지 사용기간 비교

국가별	도시명	시설구분	사용 기간	연장여부	기타	조사 시점
스위스	루체른	Reihengrab* Erwachsene 성인	20년	불가	무료	2009.7
		Reihengrab Kinder 아동	10년	불가	무료	“
		Urnenreihengrab 봉안묘	10년	불가	무료	“
		Familiengrab 가족묘	25년	가능	유료	“
		Einzelgrab 개인묘	20년	가능	유료	“
	베른	Urne Reihengrab 봉안묘	20년	불가	유료	2014.7
		Urne Familiengrab 가족봉안묘	40년	가능	유료	“
		Urnnische 봉안당	20년	가능	유료	“
	툰	Urnnischengrab einzeln	20년	가능	무료	“
		Urnnischengrab Familien	20년	가능	유료	“
		Urnenreihengrab	20년	불가	무료	“
	체르마트	모든 사용기간	25년	가족용은 가능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든 사용기간	10년	연장가능	유료	“
	인스부르크	Reihengrab 매장묘	10년	1회 연장	총20년	“
		Urnnische 봉안당	10년	1회 연장	총20년	“
리히텐슈타인	파두즈	Reihengrab 매장묘	25년	없음		2014.7
		Urnnischen 봉안당	25년	없음	무료	“
		Urnengraber 봉안묘	25년	없음	무료	“
독일	원헨	대체로 10년, 일부 15년		선택형은 가능		2009.7
	라이프치히	Reihengrab 매장묘	20년	불가	유료	2010.7
		Wahlgrabstätten 선택묘	20년	가능		“
	드레스덴	Erdwahlgrab 개인매장	20년	5년 단위 연장		“
		Reihengrab 매장묘	20년	불가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모든 사용기간	20년	가능	유료	2013.12
		5세 이하와 무연고자	15년			
		Bergen, Enkheim, Rödelheim 묘지매장	35년	가능	유료	2013.12
		5세 이하와 무연고자	20년			
	마인츠	5세 이하 6세부터	15년 20년	-	-	2016. 7

자료 : 각 도시 및 묘지 홈페이지

※ 독일어 Reihen은 배열, 병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때문에 종전 몇몇 독일의 장사제도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방식을 ‘병렬묘지’와 같이 표현함.

하지만 현지조사와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순서대로 장소를 지정(배정)해주고 임의대로 장소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 다음 <표 6-4>는 우리나라 전국 주요 도시의 봉안당(시설) 사용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 등을 비교한 것임.

- 창원 등 일부 지방도시를 제외하고, 대체로 총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서울·부산·울산과 용인시의 경우 봉안시설의 총사용기간은 모두 30년으로 같지만, 연장 사용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단축하고 역으로 연장 가능횟수는 3회 또는 2회로 늘어놓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에서는 기간연장 신청 시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더 받도록 하고 있음.

<표 6-4> 전국 주요도시 봉안당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 등 비교

(단위: 년, 천원, 회)

구분	인천	서울	수원	성남	용인	울산	강릉	창원	순천	세종	부산
1차 사용기간	30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950	200	300	100	300	330	291	170	180	270	120
	300	100	10		150		110			110	
연장횟수 사용기간	-	3회	1회	1회	3회	3회	제한 없음	3회	3회	1회	3회
	-	5년	15년	15년	5년	5년	15년	15년	15년	15년	5년
	-	100	300	100	150	110	291	170	180	110	60
총사용 기간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제한 없음	60년	60년	30년	30년

자료 ; 해당 자치단체 조례 또는 장사시설 홈페이지(2018.8.3일 조사)

※ 관내 주민이 봉안당 개인당을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함.

- 1차 사용기간 : 년수/사용료/관리료 (금액단위 ; 천원)

- 연장횟수 사용기간 : 횟수/년수/금액 (금액단위 ; 천원)

- 이와 같이 한번 연장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가능 횟수를 3회로 늘이면, 같은 15년 연장이라도 단 한 번에 그치던 “봉안당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5년마다 두 번 더 반복하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도입 시행은 처음부터 무연고화할 가능성이 있었거나, 도중에 봉안당의 관리를 포기해야 할 사정이 생겼거나, 해외 이주와 같이 신상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 사용자를 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당해 유골을 신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봉안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고인이 사망한지 이미 15년 이상 지나는 동안 추모하는 마음이 희석되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낀다면 유족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망설이게 될 것임.

- 따라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그리고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연계 시키면 봉안시설의 수급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3>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만월당



- 화장이 보편화되고 최근 화장 후 장사 추이를 감안할 때, 장사시설 수급계획 중에서는 봉안시설 수급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는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함.
 -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0~15년 단위로 재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간이 만료된 자연장지를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연구·확립해야 함.
- 이러한 사용기간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은 보다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
 - 현대는 두 번 이별하는 시대임.
 - 다수의 노인들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을 하게 됨.
 - 남은 가족은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조차도 입원할 때 이미 가족들과 1차 이별을 겪으며, 짧으면 몇 년에서 긴 경우 10년 이상의 긴 입원 기간을 거쳐 두 번째 이별인 사망과 장례를 접하게 됨.
 - 상주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은 고령사회에서 사망자는 최소 70세에서 최고 90세 혹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장사를 치르는 상주 또한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은퇴로 인한 경제력 상실, 건강악화 등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주들에게 봉안당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할 경우, 30년 동안은 물론 그 이후까지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짧은 장례기간동안 장사와 관련된 사항을 완전하게 대비하기는 쉽지 않음.
- 국내의 장례는 대체로 3일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그 이틀 후 삼우(三虞)제를 지내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됨. 명칭은 3일장이라 해도 실제로는 만 2일(48시간)에도 미치지 못함.
-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여 장례방법부터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 장지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대비하기란 쉽지 않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 여러 착오를 발견하기도 함.
- 때문에 서양의 화장장에 있는 임시(일시) 봉안시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임시봉안시설은 임시로 유골을 안치한 후 유족들이 장사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장사와 관련한 착오를 겪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피안장자의 흔적은 어디로 보내어지고, 그 후손들은 어디에서 추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입장에서 30년 후에 비록 고인의 명패 등은 사라지더라도 고인을 회상할 곳은 해당 장사시설임.

제3절 국내·외 우수 사례

1. 유럽의 시한부 장사시설

1) 스위스 루체른시립묘지

- 루체른 시는 스위스 중부 루체른 주에 있는 주도이며, 2016년 12월말 기준 인구 81,592명의 도시임. 루체른 호수의 서쪽 편, 알프스 산맥의 필라투스 산기슭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임.
- 루체른 시에는 4개소의 시립묘지와 함께, 평온의 묘지라는 의미의 프리덴탈묘지(Friedhof Friedental)가 있음.
 - 공공녹지인 프리덴탈묘지는 종교에 상관없는 공통적인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애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
 - 지역 호적사무소에서 고인의 의사에 따라 화장 또는 매장 등을 확인하고, 매장묘역 또는 전용묘역 등과 같은 매장 방식 및 장소, 장례 시간 등을 결정함.

<그림 6-4> 프리덴탈묘지의 정문



자료 : 루체른 시청 <https://www.stadtluzern.ch/>

- 프리덴탈묘지는 매장과 화장 후 봉안 모두 매장묘역 혹은 전용묘역을 사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용제도는 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스위스 여러 도시 묘지에서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

<표 6-5> 스위스 루체른 프리덴탈묘지 묘역구분

구분	내용	묘역별 사용기간
배정묘역 (Reihengrä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후에 시에서 무료로 묘를 배정해주는 묘역으로 사전 예약이 불가함. • 어떤 경우든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함. • 구획별로 사용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구획은 일괄 정비한 다음, 2~3년간 안정화 기간을 둔 후에 새롭게 사용함. • 유족이 유골 인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개장 후 집단안치소에 합동 안치함. • 모든 개별 분묘의 관리는 유족의 책임 하에 관리되며, 유족의 희망에 따라 대행업체를 정하거나 시에서 관리를 대행해 주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 20년 - 성인무덤(Reihengrab Erwachsene) • 사용기간 10년 - 아동무덤(Reihengrab Kinder), 유골함 봉안묘(Urnenreihengrab), 공동봉안묘(Gemeinschaftsgrab)
전용묘역 (Privatgrä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지만 사전 예약으로 묘소를 선택할 수 있음. • 모든 전용 묘는 가족이 원하면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 15년 - 가족봉안묘 • 사용기간 20년 - 개인묘(Einzelgrab), 실내 개인묘(Hallengrab einzel), 평면 묘(Plattengrab) • 사용기간 25년 - 가족묘(Familiengrab), 실내 가족묘(Hallenfamiliengrab)

자료 : 루체른 시립묘지 <https://www.stadtluzern.ch/thema/159#FriedhofFriedental/>

○ 스위스 루체른시립묘지에는 공동봉안묘가 마련되어 있음.

- 공동봉안묘(Gemeinschaftsgrab)는 1989년부터 1992년간에 걸쳐 건축가 Joseph Gasser와 조각가 Charles Gerig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국내의 유택동산과 유사함.
- 묘지 정문 근처의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 화강암 피라미드 형상으로 건립됨.
- 공동봉안묘의 각 구성물이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바닥에 깔린 둥근 원판은 영원, 무한, 보편성을 상징하고, 정사각형의 단들은 물질적인 존재를 표현하며, 입체적인 정방형은 생명이 솟아오르는 물질을 묘사하는 것임.
 - 따라서 사각형과 정방형이 포함된 원은 물질인 사람의 몸은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라 할 수 있음.
 - 밝은색 화강암으로 만든 네 개의 솟아오르는 삼각형 지주는 영적인 결합을 표현함. 이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내, 자기 극복, 확고한 의지의 상징임.
 - 꼭대기의 홍석(虹石)은 일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팔면체로서 기둥과 결합하여 피라미드 모습을 완성함. 이 보석은 우주의 영적인 기운을 모아 피라미드의 기둥을 통해 지하 묘실로 전달된다는 의미임.

- 안장 시 향아리 없이 매장되며, 고인의 유골은 익명으로 공동 묘 바닥에 모임.
- 지하에 있는 역피라미드의 묘실에는 1만 2천구~1만 5천구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천체를 상징하는 원형의 청동제 공동 유골향아리로 되어 있음.
- 묘실에 유골을 넣는 입구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꽃봉오리 형태로 제작하여 닫아 두었고, 그 위에는 투명한 재질의 커버를 씌움(ARCHITEKT JOSEPH GASSER <http://www.architekt-gasser.ch/Oeffentliche%20unten.htm/>).

<그림 6-5> 스위스 루체른시립묘지의 공동봉안묘



자료 : ARCHITEKT JOSEPH GASSER <http://www.architekt-gasser.ch/Oeffentliche%20unten.htm/>

- 혼자 매장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 무덤 관리와 비싼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동봉안묘는 건립 이후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스위스의 각 묘지마다 하나 이상의 공동봉안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태, 사용방법에 있어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국내의 유골을 뿌리는 산골장소 즉 유택동산과 유사한 공동봉안묘, 자연장에 가까운 공동봉안묘, 고인의 기록을 일정 기간 남길 수 있거나 전혀 이름을 남길 수 없는 공동봉안묘 등이 있음.

2) 독일 마인츠 시립묘지

- 2016년 기준 인구 213,528명의 마인츠 시는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도로써, 라인강과 지류인 마인강이 만나는 지점에 발달한 도시임. 구텐베르크의 출생지로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으며, 가톨릭의 대주교구, 프로테스탄트의 교구장이 있는 종교 도시이기도 함.
- 마인츠 시의 총 14개소 묘지 중에 남부지역의 장례를 담당하는 7개소의 묘지 Hauptfriedhof einschl Urnenhain(화장장 소재), Bretzenheim, Ebersheim, Hechtsheim, Laubenheim, Marienborn, Weisenau가 있으며, 북부지역 장례를 담당하는 Waldfriedhof Mombach, Drais, Finthen, Gonsenheim, West 묘지가 있음.
- Hauptfriedhof의 오래된 나무들과 넓은 길은 마인츠 묘지의 특징을 잘 보여줌.
- 묘지는 생의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자 슬픔과 기억의 장소인 동시에, 시민들이 산책하는 장소임. 대체로 묘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녹색 오아시스 역할을 담당하며, 역사적·건축학적·예술적·원예적 관점에서 의미를 제공하는 장소임.
- 묘지관리를 담당하는 Wirtschaftsbetrieb Mainz가 있음.
- 국내 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조직으로, 유대인묘역(jüdische), 전쟁묘역(Kriegsgräber), 명예묘역(Ehrengräber) 등 묘지 내 보호대상 기념물과 역사적인 묘석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묘지의 녹지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한 휴게장소로서의 묘지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무덤을 시민에게 제공함.
-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무덤으로는 특수한 무덤 양식의 선택형 매장 및 봉안묘역, 사산아를 매장하는 공동묘역, 지정 또는 선택하는 공동봉안묘역, 다양한 문화권의 무덤, 봉안담, 나무무덤 등이 있음.

- 시신 또는 유골의 묘지 안장기간은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 5세 이하의 사망자는 15년 안장이 가능함.
 - 6세 이상의 사망자는 20년 안장이 가능함.
- 독일의 경우 국내 수목형 자연장지와 유사한 무덤을 나무무덤으로 표현함.
 - 나무무덤(Baumgräber)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오래된 소나무에 둘러싸인 안식 장소로, 나무 및 뿌리 부근에 고인의 유골을 안장함.
 - 개별 안장 또는 2구 합장을 하며 한 나무에 8기를 안장함.
 - 개별 안장은 20년 동안 유골항아리를 안장할 수 있으며 기간 갱신은 불가능함. 두 개의 항아리까지 안장하는 것은 30년까지 사용권한이 있으며, 한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함. 개별 안장 및 2구 합장 모두 묘지관리비는 없음.
 - 특수강합금 공동 추모시설에 알맞은 유리로 구성된 명패 표시를 현무암 기둥에 달 수 있음.
 - 모든 나무와 사용 기록은 보존 관리되므로 고인의 마지막 휴식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줌.

<그림 6-6> 마인츠 시립묘지의 나무무덤



자료 : Genossenschaft der Friedhofsgärtner <http://www.genfrie.de/memoriangarten/mainz.php/>

- 독일 마인츠 시는 마인츠 추모정원을 운영하고 있음.
 - 마인츠 추모정원(Memoriar-Garten in Mainz)은 품격 높은 추모정원으로, 독일 공공묘지 내에 나타난 새로운 운영방식 중 하나임.
 - 개개인이 조성한 안식장소는 고인을 추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이나 장소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장기간 무덤 관리를 맡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마인츠 추모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성됨.

- 2015년 4월에 마인츠 묘지원예사 협회(ARGE Mainzer Friedhofsgärtner)와 마인츠 시 운영조직(Wirtschaftsbetrieb Mainz), 라인란트팔츠 주 지역 묘지원예사 협동조합 간에 협력을 체결함. 이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말 마인츠-몸바흐 산림묘지에 Sonnenfeld(태양들판)이라고 불리는 약 2,000㎡ 규모의 대형 묘역을 구성하고 마인츠 추모정원을 건립함.
- 마인츠 추모정원은 마인츠 시의 모든 시민 및 외부의 친척도 이용 가능하며, 묘역에서는 공동봉안묘, 지정봉안묘 등 다양한 장법이 가능함.
 - 공동봉안묘(Urnengemeinschaft) : 자연장과 유사함.
 - 지정봉안묘(Urnenreihengräber) : 묘지관리소에서 순서대로 안장 위치를 배정함.
 - 선택봉안묘(Urnenwahlgräber) : 유족이 안장 장소를 선택함.
 - 배정토장묘(Erdreihengräber)
 - 선택토장묘(Erdwahlgräber)
- 마인츠 추모정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수준 높은 조경의 세련된 토장 또는 봉안묘를 갖추.
 - 장기간 숙련되고 전문적인 자격 있는 묘지원예사에 의해 모든 시설이 관리됨.
 - 항구적인 분묘 관리 협정에 따라 후속 비용 없이 관리를 보장함.
 - 추모 모뉴먼트(묘석, Erinnerungsstein)를 포함함.
 - 신탁에 의해 분묘관리비 불입금을 보장함.
 - 서비스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함.
 - 망각을 위한 매력있고 저렴한 마지막 안식 장소를 제공하며 익명 매장은 없음.

<그림 6-7> 마인츠 추모정원의 묘역



자료 : 마인츠 추모정원 <http://www.memoriam-garten.de/index.php?id=53/>

2. 유럽의 장지 공유

1) 독일의 익명 또는 공동묘

- 유럽의 경우 대부분 묘지를 아름다운 공원 형태로 꾸밈.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 묘지는 묘지 전체가 하나의 큰 숲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화장률 70%를 넘어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독일에는 ‘사람은 숲에서 나서 숲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음. 이는 사후에 숲으로 즉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뜻임.
 - 실제로 독일 내에는 숲 묘지(Waldfriedhof)라는 이름을 가진 묘지가 많으며, 녹지 공간으로서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묘지를 분류할 때 영국 등의 정원묘지, 미국의 전원묘지, 프랑스의 경관묘지와 함께, 독일의 묘지는 산림(Forest)묘지로 구분함.
- 독일 묘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독일의 묘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토장묘와 더불어 화장묘의 기본인 봉안묘임.
 - 묘역 중에는 잔디 또는 화초 밑에 원통 모양의 구덩이를 파고 생분해성 유골함 아리에 담거나 골분을 그대로 안장하는 묘역이 있음. 이러한 곳은 대체로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넓은 잔디밭 또는 다년생 풀과 꽃으로 꾸며진 정원이거나 화초밭과 같음.
 - 묘역에는 Anonyme(익명), Urnen(유골함아리), Gräb(분묘), Bestattung(매장·장례), Gemeinschaft(공동체·공동사회), Stätte·Anlage(장소·시설) 중에서 3개 이상의 단어가 합성된 용어를 사용함. 예를 들어 Anonymurnengrāb(익명봉안묘역), Urnengemeinschaftanlage(공동봉안묘역) 등이 있음.
- 독일에는 공동화장묘로 익명 또는 공동묘가 있음.
 - 익명 또는 공동묘는 이름만 다를 뿐 실제 모습은 구별이 쉽지 않음.
 - 두 유형의 공동화장묘 모두 유골을 묻는 꽃·잔디밭과 추모 모뉴먼트, 추모공간으로 구성됨.
 - 이 중 상당수는 건축가나 예술가들의 손을 빌어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기도 함.
 - 익명묘는 익명묘역 또는 익명묘로 표현됨.
 - 구서독의 핵심 경제도시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중앙묘지(Hauptfriedhof)에서는 Anonyme Grabstätte(익명묘역)이라 하고, 하이델베르크와 뮌헨 시립묘지에서

는 Anonyme Grab(익명 묘)라고 표현함.

- 익명묘는 고인이 어떤 표지도 남기지 않는 익명을 원했다는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임.
- 1970년대부터 가족의 해제로 화장이 늘어나면서 비용문제 등으로 익명 봉안묘 사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교인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임.
- 공동묘는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보급됨.
- 사회주의 체제였던 구동독지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화장을 장려하면서, 공동체 묘지를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표현’으로 보고 확대 보급함.
- 그 결과 공동묘역이 구동독지역에서 가장 흔한 분묘형태가 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도 높은 선호도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작센과 튀링겐 지방에서는 공동묘가 30~40%를 차지함.
- 구동독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 및 드레스덴 시립묘지 등에서는 이런 곳을 Urnengemeinschaftsanlage(UGA, 공동봉안묘역)로 표현하며 사자(死者)들의 ‘공동’임을 분명히 함.
- 공동묘는 대체로 묘지 안의 입구나 전체 구역 중에 핵심적인 부분에 위치시킴. 높은 수준의 공동추모비 혹은 조형물을 세워 구심점 역할과 함께 추모객들에게 자신도 공동 묘에 안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심는 역할을 함.
- 구동독지역 묘지에는 같은 공동묘지임에도 블록 단위로 연도를 구분하여 유골을 안장하고 있는 곳이 많음. 20년 단위로 묘지를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그림 6-8> 독일의 익명 또는 공동묘역



※ 왼쪽부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라인벡, 뮌헨시립묘지임.

- 프랑크푸르트 중앙묘지의 익명묘역이 10여년 간 1곳에서 5곳으로 증가한 것처럼 구서독 지역에서 묘지의 익명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구동독지역의 묘지에서는 익명성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반(半)익명 공동봉안묘역이 그 예임.
- 드레스덴과 츠비카우 시립묘지 등에는 크지 않은 규모의 사용구역을 연도별로 구획하여 사용 및 관리함. 20~30명 단위로 안장하고 고인의 이름 등을 새기는 공동명패를 설치하여 관리함.
- 공동봉안묘역임에도 묘지를 순환하여 재사용하기 위하여 20년 내외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음.

<그림 6-9> 독일 츠비카우 중앙묘지의 공동봉안묘역 및 반익명공동묘역



- 독일의 수목장림은 자연산림에 설치되어 있음.
- 자연산림에 설치된 독일 수목장림은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독일로 이전된 Friedwald와 Ruhewald 등의 상표를 지닌 민간 기업 등에서 국공유림을 대부분 받아 설치된 곳임.
- 국내의 경우 2008년에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서양묘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친화적인 봉안묘 종류와 함께 독일묘지의 “Baumgrab”라는 방식과 “Friedwald”라는 민간 수목장림을 혼합하여 채택한 것임.
- 근래에는 도시 인근 자연림을 이용한 수목장림을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그 예로 비스바덴 시의 Bestattungswald ‘Terra Levis’ (수목장림 ‘테라 레비스’)가 있음.
-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시립묘지에 연접한 산림에 익명의 수목장림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연 속 영면을 보장함.
- 이와 유사하지만 독일 묘지 내부에 있는 기존의 수목을 이용하여 수목장 형태의 봉안묘를 조성한 것들은 Baumgraber, Baumbestattung 등과 같이 표현함.

- 개인 또는 가족만 사용하는 ‘가족목’ 과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목’ 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그림 6-10> 뮌헨 Waldfriedhof의 Baumgraber



※ 독일 묘지 내부에 있는 기존 수목을 이용한 수목장이며, 오른쪽 하단은 안내표지석임.

- 독일 묘지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산 자들과 가까워지고 있음.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묘지를 조성하고, 유족들을 더 긴밀하게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죽음과 사라짐을 삶의 일부분으로 상징화하는 자연친화적인 묘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
 - 모든 묘지의 공동봉안묘역은 잘 조성된 녹지 배경을 가지며, 개별 영역의 구분이 없음에도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음.

2) 스웨덴의 미네스룬드

- 스웨덴 장묘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톡홀름과 Tranås 시를 제외한 전국의 장례 및 묘지관리업무를 스웨덴 국교회(Svenska kyrkan)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임.
 - 스웨덴 국교회는 기독교 루터파의 한 분파로, 약 7백만 명의 세례교인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교회임. 2000년까지 국교회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음.
 - 스웨덴 국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교구협의회에서 장례업무 및 묘지의 설치·운영을 담당함(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hurch_of_Sweden).
- 스웨덴에서는 미네스룬드(Minneslund)라는 공동봉안묘역이 각 묘지마다 한 곳이 상 설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묘지에 고별식장인 채플부터 다양한 유형의 매장지와 봉안묘역 등을 설치하여 선택을 도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중심 기능을 하는 묘지에는 화장장까지 설치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함.
- 각 묘지마다 한 곳 이상 설치되어 있는 미네스룬드라는 공동봉안묘역은 20세기 중반에 새로 등장한 화장묘의 일종임.
- ‘추모의 작은 숲(땅)’이라는 의미의 미네스룬드는 1959년 스웨덴 남단 말뫼 등에서 처음 제안됨.
- 1961년 스톡홀름 시립묘지 스콧스키르코고덴(Skogskyrkogården, 일명 우드랜드) 묘지에 첫 번째 미네스룬드가 마련되었으며, 1965년부터 예테보리의 Kvibergs 묘지에도 설치됨.
-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화장묘(askgravlund)와 미네스룬드가 등장하고 있어, 화장묘들이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스웨덴 국교회 www.svenskakyrkan.se/).
- 미네스룬드의 외형은 스톡홀름의 우드랜드묘지와 같이 인공 숲도 있지만, 대체로 품위 있는 추모비를 중심으로 한 추모 및 참배 공간, 그리고 수목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잔디정원 형태가 가장 대표적임.
- 추모공간에는 헌화를 할 수 있는 시설, 벤치 및 촛대 등 참배 추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완비되어 있음. 대체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크고 질 높은 조각품과 수경시설 등을 지닌 곳이 많음.

<그림 6-11> 우드랜드 미네스룬드의 정상부



※ 뒤에 보이는 숲에 유골을 묻거나 뿌림.

- 미네스룬드에서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생분해성 항아리에 담아서 안장하며 일체의 이름을 남길 수 없음.
- 묘지 관리인이 직접 안장 또는 산골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유골을 안장한 지점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의 토지 공유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스톡홀름 우드랜드묘지의 미네스룬드에서는 안장 또는 뿌릴 때 유족들의 근거리 입회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성을 유지함.

○ 스웨덴에서 미네스룬드가 발달하게 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음.

- 일찍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적인 묘를 원하지 않거나 묘지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됨. 이에 따라 고인 또는 유족들이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공동 안장방법으로서 미네스룬드가 자리매김하게 됨.
- 평등 및 사회연대 의식이 강한 스웨덴 국민의식의 영향으로 미네스룬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음.

(1) 말땀 림함(Malmö Limhamn) 묘지의 미네스룬드

○ 말땀은 스웨덴 최남단 스코네 주의 주도로서, 외레순 해협 연안에 있어 항만과 해군 기지를 갖추고 있음.

○ 1897년에 설치된 림함묘지는 말땀 시에서 큰 묘지 중에 하나이며, 여러 단계에 걸쳐 확장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음.

- 1964년에 묘지 안에 고별식장 및 화장장이 건립되었고, 1967년에 미네스룬드가 설치됨.
- 미네스룬드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명인 칼 밀레(Carl Milles, 1875~1955)의 “신의 손”이라는 조각품을 복제한 것을 설치해 둠.
- 다른 미네스룬드와 같이 넓은 잔디밭에 유골을 묻고 추모공간에서 추모하는 방식을 가짐.
- 조각을 중심으로 한 추모공간에는 수경공간과 벤치, 공동으로 헌화하는 작은 수로를 만들어 두어 제단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
- 큰 수목으로 둘러싸인 잔디밭 안장 공간, 품위 있는 조형물, 물이 흐르는 공동 헌화대, 벤치와 야외 쉼대 등과 같은 구성은 스웨덴묘지 미네스룬드의 표준적인 모습임.

<그림 6-12> 말뚝 림함묘지의 미네스룬드



(2) 외케러 회너(Öckerö Hönö) 묘지의 미네스룬드

- 회너(Hönö)섬은 스웨덴 남서부 베스트라예탈란드 주 예테보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외케러(Öckerö)시에 속해 있으며, 면적 약 3km²에 2015년 기준 인구 5천 명인 작은 섬임.
- 섬의 동쪽 1952년에 설립된 회너묘지(Hönö kyrkogård)는 외케러 시의 2개 묘지 중에 하나이며 800여 무덤이 있음.
 - 회너묘지에는 고별식 채플과 함께 2016년에 개설한 합동봉안묘역(askgravlund)이 있음(svenskakyrkan <https://www.svenskakyrkan.se/ockero/kyrkogard/>).
 - 2011년 회너묘지의 미네스룬드를 새로 조성 시 이미 사용 중이던 기존 구역을 그대로 둔 채 조성을 진행함.
 - 완성된 시설을 살펴보면 원형의 화강석 벽체로 자연의 토양과 조경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며, 자연 그대로의 인동덩굴과 담장으로 덮여 있는 담장으로 미네스룬드의 외곽을 둘러쌌.
 - 유골을 안장하는 공간의 잔디와 지표면에 자연 석판을 깔아 다리 형상을 연출하였으며, 관상수와 잔디가 식재된 길을 따라 걸으면 해변까지 연결되도록 함.
 - 미네스룬드의 앞부분에 바다를 상징하는 사계절 녹색의 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년생 풀과 잔디, 화강암 등으로 전체공간을 꾸밈.
 - 인구 5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의 묘지에 이와 같은 우수한 익명 합동봉안묘역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만함.

<그림 6-13> 스웨덴 욱케러 회노(Öckerö Höno) 묘지의 미네스룬드

(3) 노르웨이 오슬로 알파세트묘지의 민네룬드(minnelund)

-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인접 국가인 만큼 언어와 관습 등이 스웨덴과 상당히 유사하며, 노르웨이의 민네룬드 또한 스웨덴의 미네스룬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노르웨이의 민네룬드는 스웨덴의 미네스룬드와 같이 공동추모비는 설치하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고 안장하는 공간임.
 - 사망 및 화장한 후 빠르면 1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전에 묘지에서 책임을 지고 민네룬드에 안장하는데, 묘지관리소에서만 유골항아리의 정확한 안장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
 - 단, 노르웨이의 경우 이름을 남기는 기명 민네룬드(Navnet minnelund)가 있어 설치된 메모리얼의 명패에 고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으며, 안장한 위치를 알 수도 있음. 사산아와 유아를 위한 특별한 유아용 민네룬드가 따로 설치된 곳도 있음.
- 오슬로 시립 알파세트 공공묘지(Alfaset gravlund)는 1950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묘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된 곳임.
 - 알파세트 공공묘지의 민네룬드 이름은 “알파세트의 정원”임.
 - 흐르는 물과 원형의 수반을 지닌 수경공간을 조성하였고, 그 주위를 넓은 잔디와 수목으로 둘러쌘.

- 정원 아래편 추모공간의 추모조형물은 “실루엣” 이라고 부르며 조각가 니코 비더버그(Nicolaus Wiederberg)가 1999년 6월에 제작한 것임.

<그림 6-14> 노르웨이 오슬로의 알파세트 정원(Alfasetparken)



3. 홍콩의 봉안 수요 감축 정책

1) 홍콩 산골의 운영주체 및 일반현황

- 장사방법은 크게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화장’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지정된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림
 - 정부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추모의 정원(紀念花園, Gardens of Re-membrance)에 유골을 뿌림
 - 정부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골안치시설(Columbarium)에 유골을 안치
 - 화장장의 납골묘에 유골을 안치
 - 집에서 유골을 보관
 - 유골 임시보관서비스를 이용
- 홍콩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법 등 외에 산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지정된 강, 바다 혹은 추모의 정원에 유골을 뿌리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이처럼 지정된 강, 바다 혹은 추모의 정원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삶의 재생(life regeneration)”, “자연으로 돌아감(returning to nature)” 개념을 주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음.

○ 홍콩의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이하 “FEHD” 로 표기)는 홍콩의 장사를 지원·관리하는 핵심 정부기관임.

- FEHD는 Cape Collinson, Diamond Hill 등에 위치한 장사시설을 운영·관리함.
- FEHD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골을 뿌리는 살방골회(撒放骨灰)를 장려함.
- 즉 “추모의 정원” 이라고 불리는 산골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홍콩 앞바다에 산골” 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

2) 추모의 정원

○ 홍콩 화장시설 등에 마련되어 있는 산골 장소는 紀念花園(Gardens of Remembrance; 약칭 GoR)이며 “추모의 정원” 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추모의 정원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은 해양장과 함께 최근 인지도를 얻은 환경친화적 장사방법임.

- 꽃이 핀 정원에 유골이 뿌려지길 원하는 고인, 조용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유족 등에게 선호됨.
- 2016년을 기준으로 FEHD는 8개의 장사시설에 11개의 추모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그 중 한 곳에 무료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추모의 정원 이용을 원할 시 신청자 등이 화장유골의 반출허가서를 가지고 묘지와 화장장관리처 중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우편 또는 FAX로도 신청 가능함.
- 유골을 뿌리기 전에 추모의 정원에서 간단한 의례 준비도 가능함. 고별의례가 끝나면 유족 앞에서 화장장의 직원이 산골 도구를 이용하여 정중하게 유골을 뿌려줌.
-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추모의 정원에 있는 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1) 케이프 콜린슨(Cape Collinson) 화장장 추모의 정원

- 1962년에 개관한 케이프 콜린슨 화장장은 홍콩섬과 동쪽 지역 케이프콜린슨 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 케이프 콜린슨 꽃과 차이완(柴灣, Chai Wan) 지역 내의 묘지들과 인접한 곳에 있으며, 묘지 내에는 다수의 화장처리시설과 유골처리시설 등이 있음.
 - 평일에는 셰크오 버스터미널(石澳巴士, Shek O Bus Terminus)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본 버스는 케이프콜린슨 화장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음. 버스 정류장에는 가족 및 친구를 그리워 하는 정자(思親亭)라고 표시되어 있음.
 - 장례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FEHD는 화장장을 2단계로 증축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완공함. 이를 통해 본래 건축물에 10개 새로운 화장시설과 부속설비들을 증축하였음.
 - 새롭게 조성된 화장시설에는 공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디젤 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 2007년 12월 11일 FEHD에서는 케이프 콜린슨 화장장에 추모의 정원을 개설함.
- 케이프 콜린슨 화장장의 추모의 정원은 900㎡의 면적에 꽃과 나무의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명패를 부착할 수 있는 벽을 마련함.
 - 명패를 부착할 수 있는 벽을 중심으로 전면에 추모의식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긴 표석, 그 주변의 잔디 및 수목 식재공간을 마련하고 산골을 행하고 있음.
 - 작은 공간이지만 간결한 가운데 고품격의 제반 시설을 마련하여 덩으로써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와 상심한 유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임.

<그림 6-15> 케이프 콜린슨 화장장 추모의 정원

(2) 다이아몬드 힐(Diamond Hill) 화장장 추모의 정원

-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은 미래 지향의 화장터 개발 취지로 설계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구성함.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서적 욕구와 감정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
 - 아트리움 광장의 화분에 있는 둥근 돌은 건설 중 현장에서 발굴된 돌로, 새롭게 조각 중심으로 설계되었음.
 - 백합 연못에서 재활용되는 물은 생명의 순환계를 의미함.
 -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입구에 既濟(완전하고 완성됨, 죽음)와 未濟(불완전하고 끝이 없음)의 기호를 시용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끝없는 진화를 암시함.
 -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은 자연친화적인 추모공간을 지향하며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생활시설 또한 있는 것이 특징임. 이는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추모의 정원은 2012년에 개설됨.
 - 2,000㎡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홍콩 정청에서 관리하는 추모의 정원 중 가장 큰 규모임.
 - 다양한 꽃과 식물로 가꾸어져 있으며 추모의 벽에는 고인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부착하여 추모공간을 구성함.
 - 주민들은 직접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곳에 유골을 뿌릴 수 있음.

<그림 6-16>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화장시설 및 추모의 정원



(3) 위홉셱(Wo Hop Shek) 화장장 추모의 정원

- 위홉셱 화장장은 홍콩 판링(Fanling)에 위치함.
 - 1950년 홍콩 신계지의 공동묘지가 홍콩섬의 수용력 한계치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위홉셱에 새로운 장사공간을 조성한 것임.

- 100m에서 300m가 넘는 언덕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워홉섹 화장장(Wo Hop Shek Crematorium) 근처에 워홉섹 공동묘지(Wo Hop Shek Cemetery)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매장, 화장 등 전반적인 장사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 홍콩 워홉섹 화장장에서는 2013년에 추모의 정원을 개설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도 확장하여 개설 중임.
- 워홉섹 키우타우 길(Kiu Tau Road) 봉안당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서양식 추모의 정원과 중국식 추모의 정원을 구성함.
 - 서쪽 편인 봉안당 5구역에는 서양식 추모의 정원을 구성함. 꽃과 식물, 석재 동물조각 등으로 정원을 꾸미고 고인의 명판을 부착하는 추모의 벽을 세움.
 - 동쪽 편에는 중국식 추모의 정원을 구성함.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자란 대나무, 매화와 버드나무를 옮겨 심음.

<그림 6-17> 워홉섹 화장장 추모의 정원



3) 홍콩 앞바다에 산골

-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 즉, 해양장은 최근 인지도를 얻은 장사방법임.
- 홍콩 앞바다에 산골을 한 유명한 사례로 전 중국의 최고지도였던 덩샤오핑의 사례가 있음. 1997년 3월 19일 사망한 덩샤오핑의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홍콩 앞바다에 비행기로 뿌림.
 - FEHD에서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양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중) 圓滿人生 回歸自然, 回歸自然 生生不息
 - (영) Returning to Nature at the End of Life's Journey
- Return to Nature What Nature Creates

- 홍콩에서 바다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홍콩 행정청에서 정한 3곳의 해역 중 한 곳을 골라 신고를 하고 유족들이 자신의 배를 이용하여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 후 유골을 뿌리는 방법임.
 - 둘째, 홍콩 FEHD에서 제공하는 무료페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 후 유골을 뿌리는 방법임.
 - 본래 바다 산골을 위해 장소 협의, 허가 신청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았으나, 2007년 7월부터 3곳의 산골 가능 해역을 미리 지정해두고 간단한 신청 절차를 밟아 산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홍콩에서 바다에 산골이 가능한 장소로 지정한 해역 3곳은 탐문 동쪽해역(East of Tap Mun), 퉁룽차우 동쪽해역(East of Tung Lung Chau), 서람마해협 남쪽해역(South of West Lamma Channel)임.

<그림 6-18> 홍콩의 바다 산골 지정 해역



	Designated Area No. 1	Designated Area No. 2	Designated Area No. 3
	East of Tap Mun	East of Tung Lung Chau	South of West Lamma Channel
(1)	22-30.83N 114-24.1E	22-15.38N 114-18.7E	22-10.50N 114-01.0E
(2)	22-30.83N 114-27.0E	22-15.38N 114-20.1E	22-10.50N 114-06.0E
(3)	22-29.36N 114-27.0E	22-14.18N 114-20.1E	22-09.00N 114-06.0E
(4)	22-29.36N 114-24.1E	22-14.18N 114-18.7E	22-09.00N 114-01.0E

자료 : 홍콩특별행정구 식물환경위생서 <http://www.fehd.gov.hk/>

- FEHD에서는 2010년 1월 2일부터 바다에 산골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페리서비스를 시작함.
-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도에 맞춰 2012년 1월 14일부터는 보다 큰 선박을 사용하여 매주 6회 무료도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지정한 날 오전 9시에 유골을 산골하는 시민들을 위해 North Point(East) 여객선 페리선착장에서 서람마해협 남쪽해역 또는 통룽차우 동쪽해역까지 무료페리서비스를 제공함.
- 그동안 몇몇 NGO 및 민간 기업이 유료페리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왔으나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함. 이에 바다 산골을 장려하기 위해 홍콩 행정당국에서 직접 비용부담 없이 산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그림 6-19> 무료페리서비스 선박

- 각각의 페리 운행에는 25명의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각 신청자는 가족, 친척 및 친구 등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과 함께 배를 탈 수 있음.
- 페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추모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유골과 약간의 생화 꽃잎을 제외하고 다른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됨.
- 홍콩 당국에서는 무료페리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안내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음.

<표 6-6> 무료페리서비스 이용신청자 유의사항

구분	내용
1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은 North Point (East) Passenger Ferry 부두임.
2	각각의 신청자는 10명의 가족 또는 친척을 동반할 수 있음.
3	만약 필요하다면, 배를 타기 전에 배 멀미약을 먹기 바람.
4	신청자는 자신의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5	선상에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6	참가자는 선상에서 바다에 산골 할 때 소량의 생화 꽃잎만을 같이 던질 수 있으며, 한사람이 3개의 선향(幼香, joss sticks)을 태울 수가 있지만, 촛불을 켜거나 종이돈(冥鏹, joss paper)을 태울 수는 없음.
7	선상의 청결을 유지해 주기 바람.
8	FEHD 직원 및 계약된 서비스 요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함.
9	승선 시간 및 제한된 이용인원을 준수하기 바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FEHD에서 승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음.
10	이 무료 페리서비스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FEHD가 보유함.
11	출발하기 2시간 전에 기상이 나빠진다는 예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 홍콩기상대에서 태풍 예보, 폭풍우 예보 등, 그날의 예정은 취소됨.

자료 : 홍콩특별행정구 식물환경위생서 <http://www.fehd.gov.hk/>

4. 일본 대도시의 새로운 수요 대응

1) 영대공양묘 및 합장식묘지의 발전배경

-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화, 생활양식의 비정주화(非定住化) 등으로 인해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장묘관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됨.
 - 비혼으로 인해 자녀가 없거나, 가까운 혈족이 없거나, 극소수인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묘의 관리 부담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늘어나게 됨.
 - 이처럼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후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묘 혹은 가문의 묘 등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본 전반에서 사회문제로 대두함.
- 사찰·민영영원(사설공원묘지) 등의 영대공양묘(永代供養墓)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지지를 얻게 됨.
 - 영대공양묘는 후손의 유무에 관계 없이 미리 생전에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99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 공양(제사)을 시행한다는 점, 관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됨.

- 그리고 영대공양묘의 필요성과 방식을 시정촌의 공설묘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합장식묘지(合葬式墓地)를 구성함. 이러한 합장식묘지 또한 영대공양묘와 함께 일본 장사관련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지지를 얻음.

2) 민간의 ‘영대공양묘’

- 종래의 묘는 묘를 승계하는 사람이 끊어지면 일정한 기간의 절차를 거쳐 무연분묘로서 개장·처리됨.
 - 때문에 묘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묘를 쓰는 것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고, 묘를 쓴다고 해도 일정 기간 후 무연분묘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
 - 무연분묘의 증가는 묘의 사용자뿐 아니라 묘지관리자에게도 문제를 야기함. 무연분묘의 증가는 묘지관리비 체납으로 이어져 묘지 운영·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임.
- 따라서 묘의 승계자가 없더라도 사찰이나 영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랜 세월을 걸쳐 공양(제사) 관리를 하는 영대공양묘가 일본 전국에서 발전하게 됨.
 - 사찰에서 영대공양묘를 개설한 중요한 이유는 종교재단으로서 묘의 승계자가 없는 사람, 혹은 승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사후를 맡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 것임.
 - 새로운 묘의 형태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1980년대에 사찰 혹은 사찰 부속 영원에서 선구적인 영대공양묘가 개설됨.
 - 영대공양묘는 주로 사찰에 의해서 개설되어 왔기 때문에 불교적인 이름과 이미지로 정착됨.
 - 또한 대체로 큰 납골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사식(合祀式)이므로 운영주체에 따라 합사묘(合祀墓), 영대납골당(永代納骨堂), 영대제사탑(永代祭祀塔), 구회일처묘(俱會一處墓), 생전개인묘(生前個人墓)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 영대공양묘의 형태는 큰 무덤 형태부터 봉안당 형태까지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함.
 - 본격적인 영대공양묘의 태동은 1989년 니가타(新潟) 묘쿄지(妙光寺)의 “안온묘(安穩廟)”였으며 원형 고분을 형상화한 큰 무덤 형태였음.
 - 그밖에는 대체로 봉안당과 같이 상자모양의 건물을 세우고, 그 내벽이나 외벽 석판에 납골한 사람의 이름을 새김. 이러한 봉안당 형태의 것들은 이후 건물 내에 참배시설을 갖추는 등 건물 자체가 상당히 개선됨.

-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 혹은 반지하에 유골함아리를 안치하는 선반이 있는 납골실을 두고, 그 위 지상에는 불상·조각상·탑·비 등 불교 상징물을 세운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종교 분위기를 배제한 것도 있음.

<그림 6-20> 일본 민간의 영대공양묘



- 일찍이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저항감을 가졌던 것처럼 영대공양묘가 등장하던 당시에는 이곳에 납골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었음.
- 초기 영대공양묘는 단순히 유골을 수장할 뿐 무연탑 즉, 무연고자 납골시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외형도 허술하여 안심하고 맡기기에는 미비하였고, 관리·공양 시스템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림 6-21> 초기 영대공양묘



- 그러나 점차 영대공양묘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희망하는 계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해가 갈수록 수준 높은 형태가 건립됨.
- 또한 공양 기간이나 공양 방법, 납골 방법 등도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만큼의 시스템이 정착됨.
- 최근에는 우리의 봉안담이나 자연장지 같은 방식으로 영대공양묘를 설치한 곳도 등장함.

<그림 6-22> 최근 영대공양묘



- 영대공양묘에 납골하는 방법 또한 다양함.
 - 영대공양묘에 납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음부터 항아리 없이 유골을 들어내 흙에 합장하는 방법이 있음. 이와 같이 합장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음.
 - 항아리에 담긴 채 안치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개별적으로 안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골을 꺼내 합사함.
 - 한편 분골(分骨)이라고 불리는 방식은 유골 일부를 담은 소형 항아리를 일정 기간 혹은 오랜 기간 안치하고 나머지 유골은 합사하는 방법임.

3) 공영묘지의 ‘합장식묘지’

- 1990년대 초 영대공양묘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던 시기에, 영대공양묘와 유사한 개념의 합장식묘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공설)묘지에 개설되기 시작함.
- 일본 최초의 공영묘지 합장식묘지는 1993년 개설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히노(日野)공원묘지의 합장식납골시설임.
- 그 후 도쿄의 고다이라(小平)영원에도 합장식묘지가 설치되어 1998년부터 사용자 모집을 개시함.

- 이러한 합장식묘지는 영대공양묘와 같이 승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음.
 - 공영이므로 민영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종교, 제사 등이 자유로움.
 - 영대공양묘와 달리 시설 이용 자격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제한함.
 - 종교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영대공양묘 사용료에는 묘소 관리뿐만 아니라, 공양(제사)을 지내는 종교적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비해 공영묘지의 합장식묘지에는 공양 같은 종교의식은 없지만 매년 특정한 날에 묘지관리자가 헌화를 하거나 유족들의 합동 참배일을 정하여 두고 같이 참배하도록 함.
- 일본 내 주요 합장식묘지로 요코하마 히노영원, 도쿄도 코다이라영원, 사이타마시 오모이테노사토 시영영원 등의 합장식묘지가 있음.
 - 요코하마 히노영원의 경우 날개를 형상화한 큰 모뉴먼트가 있고, 그 아래 부분에 2층의 지하 납골실로 구성되어 있음.
 - 도쿄도 코다이라영원에는 원형 고분을 형상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지하에 3천위를 수장할 수 있는 납골실이 있음. 그리고 다마(多磨)영원에도 거의 같은 형태의 합장식묘지가 개설되었음.
 - 2002년에는 사이타마시 오모이테노사토(思い出の里) 시영영원에 합장식묘지가 개설됨. 이곳은 정면에 인공 시냇물을 배치하는 등 건축과 조경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임.

<그림 6-23> 사이타마시 오모이테노사토 시영영원의 합장식묘지



- 이후 이치카와시와 오사카시에도 같은 합장식묘소가 개설되고, 요코하마시에도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추진하는 등 공영 합장식묘지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토의 후카쿠사보엔(深草墓園)과 같이 종전에 일본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던 유사한 시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신원 불명의 무연고유골을 수장하는 시설이었음. 이에 비해 요코하마 등지에 개설된 합장식묘지는 승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어 민간의 영대공양묘와 같은 형태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공영묘지에 합장식묘지가 증가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합장식묘지의 확대는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둘째, 무연고 묘의 증가를 억제하여 공공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셋째, 합장식묘지의 경우 기존 묘지를 활용할 수 있어 건립용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1) 교토시 후카쿠사보엔(京都市 深草墓園)의 합장식묘지

- 후카쿠사보엔은 1958년 7월 종래의 묘지형식과 다른 봉안당 형식의 “시민의 무덤(市民のお墓)”으로써 개설됨.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교토 시민 1만 3천 명이 종파와 관계없이 후카쿠사보엔에 영면하고 있음.
 - 교토시 후시미구 후카쿠사 세키호지야마초(伏見区深草石峰寺山町)에 위치하며, 평온하면서도 풍부한 녹음을 지닌 21,260㎡의 대지 위에 158.67㎡의 봉안당과 39.93㎡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음.
 - 교토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묘원 내부 및 주변 환경 등을 전면 정비하였으며 지정관리자를 두고 위탁 관리하고 있음.
 - 본래 이 시설은 무연고자나 영세한 서민들을 위하여 건립된 것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른 도시의 합장식묘지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됨.
- 후카쿠사보엔 합장식묘지는 두 가지의 유골 안치방식을 가지고 있음.
 - 영구납골은 폭 약 5m, 높이 2m의 조(槽, 사각형 물탱크 모양)에 향아리 없이 납골(합사)하는 방식임. 영구납골된 유골은 반환이 불가함.

- 단기납골은 유골항아리 채 3년간 수장하는 방식임.

○ 교토시 후카쿠사보엔의 영구납골 이용수가 최근 5년간 70% 증가함.

- 묘지 유지비 부담이 없고 묘를 계승해야 할 자녀가 없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영구납골 이용수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영구납골의 이점으로 사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점, 시립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점, 매년 3월과 9월에 시와 주민들이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점, 전철역에서 약 500m 거리로 접근이 편리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음.

<그림 6-24> 교토시 후카쿠사보엔의 합장식묘지



(2) 이이모리영원(飯盛靈園)의 합장식묘지

○ 이이모리영원은 오사카부(大阪府) 내의 카도마(門真)·모리구치(守口)·시조우나와테(四條畷)·다이토(大東)의 4개시의 광역 장사시설임.

- 4개시가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광역 특별자치단체인 일부사무조합을 결성하고, 공영 장의사업 운영부터 묘지·화장장까지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설한 것임.
- 핵가족화나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식의 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합은 2007년 4월에 무지개언덕이라는 의미의 “니지노오카” 합장식묘지를 개설함.
- 니지노오카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영면하는 안락한 동산으로 조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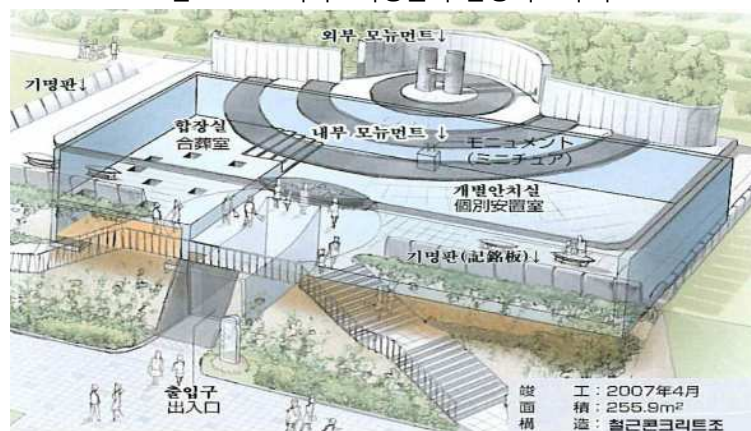
<그림 6-25> 이이모리영원의 합장식묘지



○ 이이모리영원의 합장식묘지인 니지노오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시설 위 중앙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즉,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2개 기둥의 심별모뉴먼트는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 손바닥의 모양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임.
- 태양광선이 심별모뉴먼트에 비치면 프리즘 역할을 하여 무지개를 볼 수 있음.
- 또한 위 공간 바닥에 원형으로 퍼져 나가는 커다란 동심원은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감싸는 것을 이미지화한 것임.
- 그리고 상징조형물 정면에 공동 현화대가 놓여있고, 그 좌우에는 고인의 이름 등을 새길 수 있는 공동기명판이 설치되어 있음.
- 반지하 매장실 면적은 255.9㎡이고, 합장실과 개별안치실(봉안당)은 2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음.

<그림 6-26> 이이모리영원의 합장식묘지 구조



- 니지노오카의 유골 안치방식은 유골용기에 담지 않고 합장하는 방식과 유골함 등 용기에 담은 채로 매장하는 개별안치로 구분됨.
 - 개별안치는 10년간 유골함에 담은 채로 매장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한 후 조합에서 합장함. 단, 안치 기간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안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나, 부부인 경우 상하 나란히 안치가 가능함.
 -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조합에서 지정하는 날에 일괄 안치하며, 유골은 안치할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함.
 - 원칙적으로 매장한 유골은 반환할 수 없고, 안치는 조합직원이 행하며, 조합직원 외에는 누구도 매장실에 들어갈 수 없음.
- 니지노오카는 매년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유족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 헌화 중심의 위령제를 거행하며 꽃은 영원 조합에서 무료로 제공함. 그밖에 참배는 위쪽 모뉴먼트 정면 헌화대 등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추모할 수 있음 (이이모리영원조합 <http://iimorireienkumiai.shijonawate.osaka.jp/>).

(3) 오사카시 우리와리영원(瓜破霊園)의 합장식묘지

- 28만 m² 부지의 우리와리영원은 오사카시에서 가장 큰 시립공원묘지로서 전통적인 묘소부터 화장로 30기의 초대형 화장장 및 장례식장까지 병설되어 있음.
- 오사카시에서는 2010년 3월에 우리와리영원 내 연못에 합장식묘지를 새롭게 개설함. 우리와리영원 합장식묘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연못 수면에 떠 있는 추도의 언덕(追悼の丘)이라는 인공섬 지하에 안치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위 섬 가운데에 둥근 모뉴먼트를 설치함.
 - 중심에 놓인 구형 모뉴먼트는 영혼을 표현함과 동시에 고인이 살던 지구를 형상화한 것임.
 - 섬 지하에는 합장실과 봉안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골의 안치나 합사는 관리소 직원이 행하며 누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음.
 - 이와 같은 독특한 형태적인 특징을 제외하면 태동 배경 및 본질 등에서는 다른 합장식묘지와 같음.
- 시설의 규모는 면적 244m²(지상 1층, 지하 1층)에 합장실 24,000위, 개별 납골단 4,000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임.
 - 개별 납골단은 도서관 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빌랙(mobil rack) 방식이며, 안치단에 유골항아리를 각각 안치함.

- 사각형 콘크리트 합장실에는 유골을 지정한 포대에 담아 합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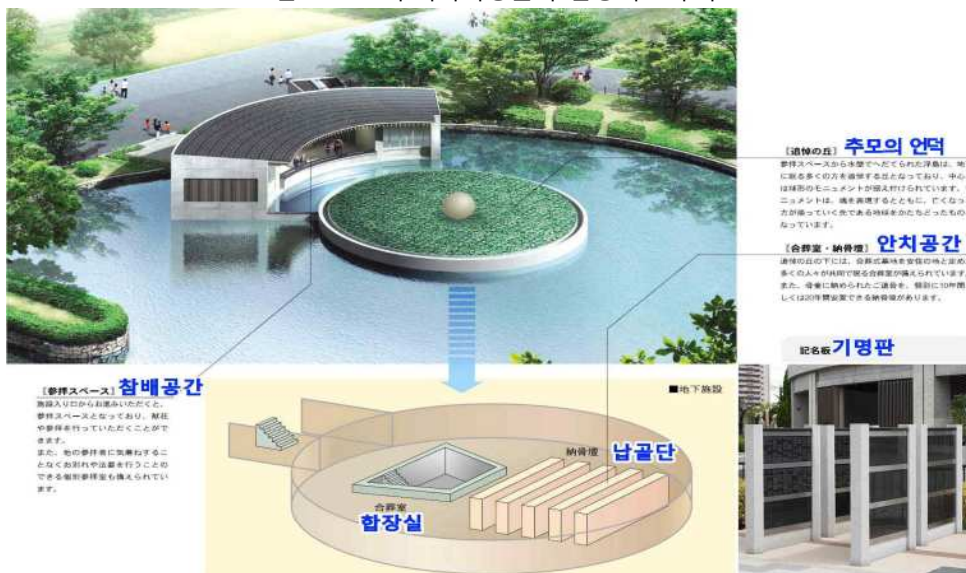
<그림 6-27> 우리와리영원의 합장식모지



※ 오른쪽 하단은 합장용 포대임.

- 시설 정면에 마련된 참배홀에서만 헌화와 참배를 할 수 있음.
- 참배홀 좌측에는 가족끼리 종교행사 등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개별 참배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용료는 유료이며 사전예약이 필요함.
- 매년 10월 1일에 공동 헌화식이 참배홀에서 거행됨.
- 이름을 새기는 기명판(記銘板)에는 이곳에 영면한 사람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새길 수 있음. 납골한 후에 새기며 생전에는 기명할 수 없음.

<그림 6-28> 우리와리영원의 합장식모지 구조



자료 : 우리와리영원에서 제공한 팸플릿을 바탕으로 재구성

- 우리와리영원 합장식묘지의 유골 안치방식은 다른 합장식묘지들과 유사함.
 - 단, 생전 신청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함.
 - 직접합장형은 유골을 향아리에서 꺼내 포대에 담아 합장실에 공동 매장함.
 - 유골을 향아리에 넣은 상태로 안치할 경우 10년 혹은 20년간 납골단에 안치하고, 기간 종료 후 유골을 골호에서 꺼내어 합장실에 공동 매장함.
 - 합장실에 공동 매장된 유골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납골단에 안치된 유골은 다른 영원으로 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음(오사카시 환경사업협회 <http://www.kankyujigyou.or.jp/business/cemetery/uriwari/>).

(4) 도쿄 고다이라영원(小平霊園)의 합장식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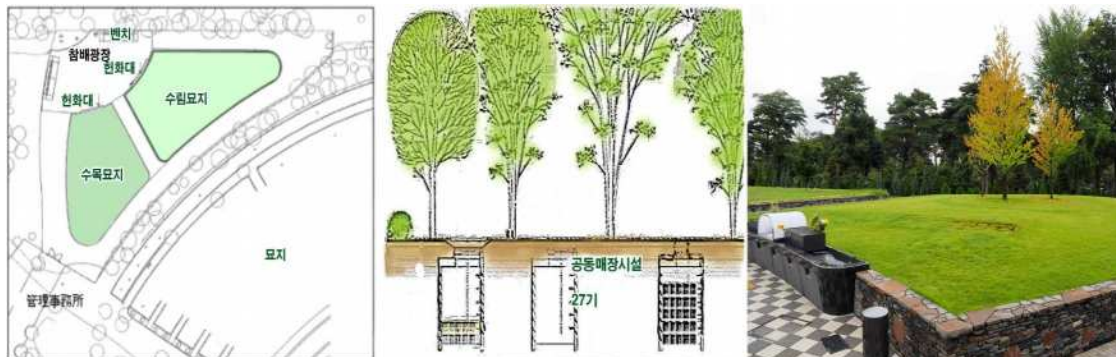
- 8개의 도쿄 도영영원 중 다마(多磨)영원, 하치오지(八柱)영원, 고다이라(小平)영원에 합장묘인 합장매장시설이 있음.
- 고다이라영원은 1948년 5월 1일에 개원한 비교적 젊은 영원이며, 총면적 653,545㎡에 약 4만 기의 묘소를 보유하고 있음.
 - 명승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묘지로서 부지의 약 절반 정도는 묘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수림과 초지, 느티나무길 등 풍부한 녹지공원으로 구성됨.
 - 고다이라영원에는 합장묘 2기와 수림형 합장매장시설 및 수목형 합장매장시설이 있음. 합장묘나 수림묘지 등에서 매년 10월 1일에 공동 헌화식을 한다는 점은 다른 도시들과 같음.
 - 영원 내에는 일본의 전통적 묘지부터 새로운 형식의 묘소인 잔디묘지 및 벽형매장시설이 있고, 최근에는 소형잔디매장시설이 설치됨.

<그림 6-29> 도쿄 고다이라영원의 합장식묘지



- 도쿄도에서는 고다이라영원 내 묘지들과 같은 수림형 합장매장시설 및 수목형 합장매장시설에 대한 높은 호응이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도쿄도공원심의회는 도쿄도에 『도립영원에 있어서의 새로운 묘소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함.
 - 본 보고서는 묘지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도영영원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식의 수림묘지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후 설치한 수림묘지는 사후에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수 도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림 아래에 공동매장시설을 마련하고 유골이 직접 흙에 접하는 형태로 매장하는 방식으로 시행함.
 - 공동매장시설은 바닥이 없는 콘크리트 box로 제작하여 매설함.
 - 면적 834㎡에 매장 예정 기수 10,700위 규모로 계획하고, 묘소·헌화대, 참배광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묘소 내 수목은 백목련·산딸나무·나트트바키(노각나무 한 종류)·자귀나무·단풍나무 등을 식재함.
 - 유골 안장 방식은 수림의 아래에 마련한 공동매장시설에 27위의 유골을 한꺼번에 매장함.
 - 2012년 8월부터 1차분 500위의 사용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 수의 16.3배에 달하는 높은 호응을 보임.
 - 이와 비교해 수목묘지는 상징이 되는 추모목 주변에 유골을 개별적으로 30년간 매장한 후 공동매장하는 방식임.
 - 2014년부터 사용에 들어갔으며 이곳 또한 도쿄도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음.

<그림 6-30> 도쿄 고다이라영원의 수림형 합장매장시설 및 수목형 합장매장시설



※ 왼쪽부터 배치도, 단면도, 실제 모습임.

5. 울산광역시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

- 울산하늘공원은 2003년에 착수하여 2013년에 개원한 종합장사시설임.
 - 울산하늘공원은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의 비교적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함.
 - 총면적 98,026㎡에 달하는 종합장사시설로서 장례식장부터 화장시설, 봉안당과 자연장지까지 갖추고 있어 장례 전반을 치를 수 있는 장사시설임.
- 울산하늘공원의 시설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장례식장 : 2,963㎡, 빈소 및 접객실 각 5실, 염습실 1실, 안치실 2실
 - 화장시설 : 7,957㎡, 화장로 10기, 고별실 4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10실, 탈상실 1실, 공동대기실 겸 카페 등
 - 봉안당 : 2,420㎡, 제례실 4실, 20,016구 규모의 봉안실, 휴게실, 사이버추모실 등
 - 부대시설 : 유택동산, 옥외제레단, 분수대, LPG저장 탱크, 쓰레기분리수거장, 녹지창고, 주차장, 도로 등

<그림 6-31> 울산하늘공원 구조



- 울산하늘공원에서 자연장지는 특히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연장지의 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보여줌.
 - 자연장지의 규모는 30,087㎡이며 잔디형 9,307㎡, 수목형 2,000㎡임.
 - 자연장지에는 총 60,500구의 안장이 가능하며, 이 중 잔디형에는 57,770구(개인 57,490구, 부부 280구), 수목형에는 2,730구의 안장이 가능함.
 - 자연장지는 화장시설 등과 분리되어 독립된 장지처럼 배치되어 있음.

-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총 30년이며 연장이 불가능함.
-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장지 공간을 좁은 면적으로 개별 분리하지 않고 철저히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함. 장지를 구획별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수목형 자연장지의 사용을 서두르지 않고, 개원 후 4년이 경과한 다음 수목이 활착되기를 기다렸다가 사용을 시작함.

<그림 6-32>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



-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잔디형·수목형, 관내주민·관외주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됨.

<표 6-7>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의 사용료

(단위: 년, 원)

구분	사용기간(년)	사용료(원)	
		관내주민	관외주민
잔디형	30년	300,000	1,000,000
수목형	30년	1,400,000	사용불가

자료 : 울산하늘공원 <http://www.skypark.or.kr/>

-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의 안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정도의 원형 시계방향으로 순차적 안장함.
 -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약 15cm 정도의 공간에 안장함.
 - 구역 내에 미리 파놓은 광중에 골분, 마사토와 같은 흙을 섞어서 안장함. 따라서 안장 후에는 유골 반환이 불가능함.
 - 안장이 끝나면 미리 떼놓은 잔디로 덮음.
 - 안장 후 공동 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하며 약 5일 정도가 소요됨.

- 자연장지의 보호를 위해 장지 내 출입, 분향, 음식물 반입은 불가능하고, 제례는 관리사무실 옆 제례실을 이용해야 함.
- 헌화할 경우는 가급적 생화만 헌화하도록 권장함(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울산누리 <http://blog.ulsan.go.kr/6828/>).

6. 국내 · 외 사례의 시사점

- 유럽 및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하여 그들의 장지 공유 및 공동 추모 체계를 살펴볼 수 있음.
- 공간적으로 보면 현세대의 사람들이 같이 영면하는 것, 시간적으로 보면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은 공간을 함께 쓰고 추모하는 것을 의미함.
- 장지 공유 및 공동 추모 체계가 발전하게 된 배경은 현대 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 · 1인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변동임. 이러한 사회변동은 묘지를 가꾸고 돌보는 사람의 감소를 가져옴.
- 묘지를 돌보는 사람의 감소는 묘지관리비 수입 감소, 묘지의 운영난 등을 야기함.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 마인츠 · 하이델베르크 등 독일 공공묘지에서는 사용 만료된 묘지의 재사용 비율이 떨어져,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묘지의 운영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또 공동으로 추모를 하는 방식이 발전하게 됨.

<그림 6-33> 독일 마인츠 시립묘지 중 Waldfriedhof Mombach 묘지



※ 사용 후 반환된 묘지를 초지로 관리하는 모습임.

-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농경시대의 유산이었던 과거 묘지 매장문화가 도시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가족 해체로 인해 쇠퇴하게 된 것임.
 - 최근에는 매장 묘지에서 화장 납골로의 이행을 지나, 일부에서는 전혀 새로운 장례 방식과 시설 공간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름. 이는 곧 내 사후와 장지를 가족이 아닌 제삼자나 자연에 의탁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함.
- 선진사회에 새로 등장한 장법과 시설은 대체로 저비용 즉, 관리비용 부담 경감, 공동 사용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영구 또는 장기보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여기에 수목장립 이용 및 산골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보존 및 자연 회귀 관념이 추가됨.
- 유럽 및 일본 등은 산골시설을 독립적인 장사시설 및 장법으로 취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합장식묘지는 산골 (겸용) 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합장식묘지 등은 봉안당과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산골시설을 한 곳에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합장식묘지를 산골시설로 보는 이유는 합장이 유골항아리 없이 유골만 쏟아붓거나 쉽게 분해되는 포대에 담아 매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 즉, 합장식묘지는 산골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합장하거나,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합장할 수 있도록 함.
 -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산골에 가까운 합장이나 합사가 상당한 사용료를 받는 독립적인 장사시설 및 장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고인의 기록을 새겨둘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음.
- 이와 비교해 국내 산골시설은 유택동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내의 전국 화장시설은 대부분 유택동산을 설치해 두고 있음.
 - 유택동산은 2001년에 시행된 장사법령을 통해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서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 처음 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유택동산을 설치한 곳도 존재함.
 - 1992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유택동산은 화장 후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는 유골을 버리는 장소로서의 한계를 지님.
 - 그러나 최근 준공된 화장시설에서는 유택동산의 사용료 징수를 시작하고 있어, 단순히 유골을 버리는 장소에서 유골을 뿌리는 장소, 독립적인 장사시설로 발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천·강릉·창원·순천 등과 같은 도시 화장시설에서 유택동산의 사용료 징수를 시작함.
- 산골시설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골을 버리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장사시설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국내의 장사시설 또한 사회적 변동을 반영하여 국내·외 다른 우수 사례들과 같이 장지 공유, 공동 추모 체계를 갖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요한 사실은 유럽, 일본 등 장사시설의 경우 사회변동에 따른 시민의 새로운 욕구를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임.
 - 국외 장사시설의 경우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도 두드러짐.
 - 또한 유럽의 선진 장사시설은 순환 사용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영면 보장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 7 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운영개선방안

제7장 인천시의 장사시설 운영개선방안

제1절 인천가족공원의 운영개선방안

1. 봉안시설 연장기간 · 횟수 조정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은 30년간 1회 사용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시·도의 주요 장사시설과 비교했을 때 인천가족공원과 같이 연장 없이 30년간 안치를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봉안시설 총 사용기간의 경우, 인천가족공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의 주요 장사시설 모두 30년으로 함.
 - 그러나 대부분의 봉안시설은 30년간 사용을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최초 안치기간을 15년으로 두고 본 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장가능 규정을 둠.
 - 서울시, 용인시, 울산시, 부산시의 경우 최초 안치기간을 15년으로 둔 후, 5년씩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총 30년간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시, 성남시, 세종시의 경우 최초 안치기간을 15년으로 둔 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1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통해 총 30년간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와 같이 연장 없이 30년간 이용을 한 번에 결정하도록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최초 안치 시 사용료, 관리료를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음. 이는 도중에 무연고화로 인한 사용료, 관리료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봉안시설 내 유골을 일괄 관리를 할 수 있음.
 - 봉안시설 각 단에 순차적으로 유골을 안치하고, 30년 만료 후 해당 단의 유골

을 일괄적으로 이장처리 등 할 수 있음.

- 연장 가능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봉안시설에 유골을 순차적으로 안치한다고 해도 연장을 결정한 유골, 연장을 하지 않아 이장이 필요한 유골, 신규 안치된 유골이 혼재됨.

○ 그러나 봉안시설의 순환 및 장사시설 전체의 순환을 위해서는 봉안시설의 연장 기간 및 횟수의 조정이 필요함.

- 최초 안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연장 가능 규정을 둘 경우, 봉안시설을 계속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 이는 도중에 해외 이주, 경제적 어려움, 상주의 고령화 등으로 유골의 관리가 어려운 유족들로 하여금 연장을 고민하도록 하며, 무연고화 유골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정리를 가능하도록 함.
- 인천가족공원은 조성사업을 통해 봉안당 추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나,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봉안시설 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봉안시설 확충과 더불어 기존 봉안시설이 효율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봉안시설의 연장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경우, 화장 후 봉안당 안치를 1차적으로 선택했어도 다시 자연장 및 해양장 등의 산골과 같은 안치방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특히 해양장 등의 산골은 일정 기간 후 이장을 필요로 하는 봉안시설과 달리, 별도의 이장 및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련 시설의 건립 또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인 장사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또한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입장에서는 30년 이용을 위한 사용료, 관리료를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후세대는 앞세대의 사용으로 30년 동안 제한되었던 봉안시설의 이용을 보다 앞서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을 한 번에 30년으로 두는 것보다는, 국내·외 다른 장사시설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초 안치기간의 조정 및 연장 가능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2. 단기안치시설 마련

- 이러한 봉안시설의 연장기간·횟수 조정과 병행하여, 단기안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여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 장지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화장한 유골의 안치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유족 간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을 성급하게 결정하기도 함.
- 유족들은 봉안시설의 최초 안치기간을 조정한다고 해도 15년의 기간 동안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재 인천가족공원 규정에 따르면 30년의 기간 동안 유골을 안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함. 이처럼 긴 세월의 유골 안치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들에게 충분한 고려 및 숙고의 시간이 주어져야 함.

○ 단기안치시설의 마련은 유족들에게 화장 후 안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도움.

- 단기안치시설에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화장한 유골을 안치한 후, 자연장, 산골 등 다양한 장사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유족들은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단기안치시설의 운영은 봉안시설에 성급히 안치하기보다는 다양한 안치방법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당 수요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3. 고인과 유족을 위한 공간 확충

○ 인천가족공원은 공원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풍부한 야외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여가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인천가족공원 야외에 벤치, 하천,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인천가족공원을 편안하게 산책하는 장소로 이용함.
- 2018년 5월에는 인천가족공원 내에서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를 개최하여 인천가족공원 둘레길걷기, 영화상영, 체험·참여 프로그램 및 먹거리행사 등을 진행함.
- 이처럼 인천가족공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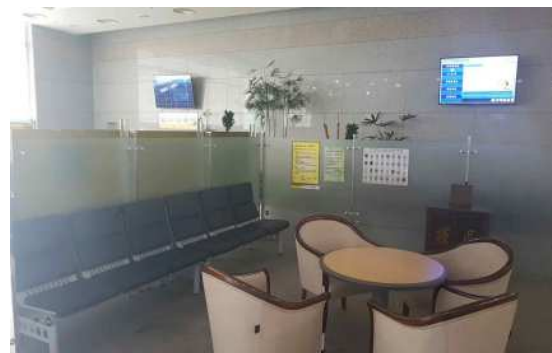
○ 그러나 고인과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유족대기실을 공동 휴게실 형태에서 개별 휴게실 형태로 전환하거나, 좌석 재배치 혹은 칸막이 설치를 통해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함안하늘공원은 개별 휴게실로 유족대기실을 마련함. 채광이 잘 드는 위치에 마루 형태로 마련하여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함.
 - 울산하늘공원에 마련된 유족대기실의 경우 인천가족공원과 마찬가지로 개별 휴게실 형태가 아닌 공개된 공간에 위치해 있음. 그러나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좌석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유족들이 보다 편하게 이동하고 또 다른 유족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함.
 - 이와 비교해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경우 화장시간 동안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유족대기실을 마련해두었으나, TV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석이 일렬 배치된 공동 휴게실 형태임.
 - 공동 휴게실은 다양하고 많은 유족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므로 소음, 잦은 좌석이동 등이 발생하기 쉬워, 유족들이 편안하게 대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유족들의 편안한 대기를 위하여 공동 휴게실의 개선이 필요함.

<그림 7-1> 함안하늘공원 유족대기실



<그림 7-2> 울산하늘공원 유족대기실



- 유족대기실 외에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봉안시설 등의 옥상, 복도공간 및 창문을 통해 보이는 조경 등을 활용하여 유족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미시 추모공원은 화장시설의 3층 옥상정원에 식물들을 심고 2층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건물 밖을 나가지 않아도 옥상정원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족대기실이 있는 2층에는 벤치가 있는 야외테라스를, 1층에는 분수 등을 설치하여 화장시설 전 층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놓음.
 - 춘천 부활성당추모관은 야외정원 방향으로 마련된 봉안당 내 창문을 통하여 야

- 외정원에 심어진 생화, 수목을 보며 유족들이 편안함 및 계절감을 느끼도록 함.
- 이와 비교해 인천가족공원은 풍부한 야외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유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화원, 봉안시설 등의 옥상, 복도공간은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봉안시설 등의 옥상, 복도공간에 식물들을 심고 산책로를 마련하거나,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사면에 화초, 수목을 심음으로써 유족들이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공간 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7-3> 구미시 추모공원 옥상정원



<그림 7-4>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봉안당 내 창문



○ 고인과 유족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춘천 부활성당추모관은 부활성당추모관 내에 기도방, 2층 기도나무 등 유족들이 고인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이 많음. 또한 계단의 빈 벽면에 고인을 위한 기도문 등을 비치함. 이는 유족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정리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공간이 되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작용함.
- 또한 부활성당추모관 시설 전체에 성가가 계속 울리도록 하고 2층 안치실 내 창가에 향초, 기도문을, 3층 성당 앞에는 천당가와 사향가 등을 구비함. 이를 통해 봉안함이 있는 2층 외에도 시설 전체가 고인과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함.
- 인천가족공원의 경우 세월호추모관 내에 기도나무, 추모 동판 등을 비치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가족공원 내에서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는 승화원, 평온당, 추모의 집 등에는 이러한 추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평온당, 추모의 집 등에 추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모공간은 기도나무 설치와 같이 일정한 마련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나, 춘천 부활성당추모관과 같이 복도, 계단의 벽면 등 빈 공간을 활용하여 추모 기도문, 게시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림 7-5>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기도문



<그림 7-6>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게시판



4. 자연장지의 체계화 및 효율화

- 본 연구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봉안시설 안치에 대한 선호보다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자연장이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인천시 장례형태 발전방향으로도 자연장을 선택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안치기간 이후 유골관리방안으로도 자연장으로의 변경을 선택한 비율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실제 자연장 안치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나,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자연장지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필요함은 분명함.
- 인천가족공원은 수목장, 잔디장 그리고 암석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갖고 있음.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의 총 안치능력은 <표 3-9>에 근거할 때 4,754기이며 2019년에 14,000구 안치가 가능한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여 자연장지 안치규모는 약 19,000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인천가족공원, 2018).
- 그러나 자연장지 수급에 대해 추계한 결과, <표 5-14>와 같이 빠르면 2027년, 길면 2034년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1(인천가족공원 실제 이용실태를 근거로 추계)의 경우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830건에서 2034년 19,714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34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2(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추계)의 경우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건수는 2018년 1,758건에서 2027년 21,411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27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장지의 추가조성과 함께, 기존 자연장지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필요함.

○ 자연장지의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으로, 제한된 자연장지 내에 안치 가능한 유골 수를 늘리고 개인별 표식을 공동 표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의 수목장은 나무 한 그루를 중심에 두고 여러 구(12구 혹은 그 이상)의 유골을 모시는 방식임. 언덕형 수목장의 경우 한 그루의 나무 아래 30명 이상의 유골을 모두 모시며 공동 추모비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한 번에 기재함.
- 울산하늘공원의 잔디장은 한 공간에 다수의 유골을 안치하고 추모비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한 번에 기재함. 그리고 수목장 또한 나무 둘레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음.
- 이와 비교해 인천가족공원의 경우, 수목장은 한 그루당 12구를 모시고 잔디장은 일렬로 구획된 지정구역에 안치한 후 개인별 표식을 부여함.

<그림 7-7>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수목장지



<그림 7-8>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 현재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많은 장사시설에서 한 그루의 나무 혹은 지정된 잔디 아래 적은 유골만 안치하는 등 공간을 여유롭게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후속 세대를 고려해 장사시설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 용미리 제1

묘지의 언덕형 수목장과 같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사방법이 활성화되어야 함.

- 또한 개인별 표식에서 공동 표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인천가족공원과 같이 유골이 안치된 곳에 고인의 명패를 각각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를 유족들이 개인 부지로 인식하여 추후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이장 혹은 다른 유골의 안치를 꺼릴 수 있으며, 해당 부지를 봉분 혹은 헌화 등으로 장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울산하늘공원과 같이 안치된 고인들의 명패를 추모비 등에 한 번에 기재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 번에 땅을 덮고 다시 새로운 추모비를 세우면 되므로 장사시설의 순환 및 관리가 용이함.

5. 산골장소의 고품격화

- 현재 인천가족공원 내에 산골장소로 유택동산이 조성되어 있음.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옆에 유택동산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림 3-3> 인천가족공원 현황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유택동산이 지도 내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소규모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 인천가족공원 이용객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음.
 - 즉, 인천가족공원의 유택동산은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중 하나인 산골장소보다는, 무연고화된 유골이나 관리가 어려운 유골을 뿌리는 유골처리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함.
 - 따라서 기존과 같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단지형 유택동산에서 벗어나, 보다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경건을 표할 수 있는 품격있는 산골장소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산골장소의 고품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홍콩의 경우 추모의 정원을 조성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함. 유골을 뿌리는 장소를 단지형태로 마련하지 않고, 화초, 수목 등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정원에 마련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추모의 정원에 있는 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경우 공동묘를 조성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함. 공동묘는 묘지 안의 입구 혹은 묘지 내 핵심 부분에 위치시키며 높은 수준의 공동추모비 혹은 조형물을 세워 품격을 높임.
- 스웨덴의 경우 미네스룬드라는 산골장소를 조성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함. 미네스룬드는 인공 숲을 조성하거나 품위 있는 추모비를 중심으로 조각품, 수경시설, 수목, 잔디정원 등을 갖춘.
- 국내 산골장소로는 용미리 제1묘지의 나비정원이 있음. 나비정원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 유골을 뿌리는 산골장소이며, 나비, 책가방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고 노란 꽃들을 심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임을 느끼도록 함.
- 인천가족공원 또한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인천가족공원의 핵심적인 부분에 아름다운 수목과 조각품 등을 갖추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의한 추모가 가능한 품격 있는 산골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임.

6. 인력의 전문성 확충

- 현재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설공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정 연도가 지나면 다른 시설로 순환보직됨. 이로 인해 인력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사시설 운영, 관리, 사업진행 등의 경우 유족, 상조회사, 고인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함.
- 장사시설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장사 관련 법률, 정책, 사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문업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공단 인력과 마찬가지로 인천가족공원 인력 또한 순환보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인천가족공원 인력은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인천가족공원 내 20년,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부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장사시설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 인력을 대상으로 선진 장사시설 사례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견학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해당 사례지

의 담당자 및 시설과 협약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견학을 추진할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강연부터 장사시설의 실례 및 구체적 사업내용 공유 강연 등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외부 전문가와 인천가족공원 장기근속자 등으로 “인천가족공원 발전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인천가족공원 발전 자문단을 주축으로 하여 인천가족공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거나, 인천가족공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묘지의 운영개선방안

1. 묘지일제조사를 통한 무연분묘 파악

- 2017년 기준 인천시의 공설묘지는 82개소, 그 외 사설묘지는 775개소임.
 - 사설묘지는 법인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인천시 내 법인묘지는 7개소, 개인묘지는 403개소, 가족묘지는 175개소, 종중·문중묘지는 190개소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묘지 내에 다수의 무연분묘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관리비 미납에 따른 묘지관리시설의 운영 문제를 야기하거나, 묘지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 묘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무연분묘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를 통해 무연분묘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제9호는 무연분묘를 묘지의 일제조사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정의함. 그리고 제13조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이러한 무연분묘를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묘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내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불법묘지, 무연분묘로 방치되어 있는 묘지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묘지일제조사는 인천시 각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 함. 인천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묘지의 분포범위가 넓으며, 기초

지자체의 지역성,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일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묘지일제조사는 공설묘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사설묘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함. 사설묘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할 경우 사설묘지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득·검토하여 효과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 외부 자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정수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묘지일제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사진, 면적, 지목, 총 분묘수 및 무연고 여부 등을 포함한 서식이 제안되었으나(인천광역시청, 2007; 이용갑 외, 2013), 일제조사를 추진하기 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 시 필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표 7-1> 묘지일제조사 서식

ID		행정구역코드	
토지소재지			
사진 첨부 원경		사진첨부 근경	
일반 사항			
총면적(㎡)	공부상	토지 소유자	공부상
	조사결과		조사결과
지목	공부상	최종취득일	
	조사결과		
총 분묘수		무연고 여부	무연분묘수
			유연분묘수
공설묘지 이용여부	<input type="checkbox"/> ①만장되어 사용안함 <input type="checkbox"/> ②현재 매장가능 (매장가능기수 :) <input type="checkbox"/> ③타용도 사용()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주변지역 토지 이용용도		묘지 설치년도	
묘지진입시설		구역경계표시	
부대시설 설치현황		관리주체	
기타 사항			

자료 : 인천광역시청(2007); 이용갑 외(2013)

2. 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화

-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은 묘지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설·공동묘지 중 무연분묘의 구역 또는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할 것을 명시함.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유골을 지정된 구역에 집단매장하는 것 대신 자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연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을 명시함.
 - 공설묘지가 자연장지로 전환 시 재개발 비용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시함.
- 무연분묘 또는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할 경우 다음의 이점이 있음.
 - 묘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
 - 묘지의 신규 설치 없이 기존 묘역을 활용하여 안치 가능한 묘역을 확대할 수 있음.
 -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묘지 재개발을 가능하게 함.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32.8%의 시민이 ‘자연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을 선택함.
 - 자연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연장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음.
 - 묘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가능하게 함.
 - 정비 및 관리가 소홀했던 무연분묘 및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미학적인 공간으로 재개발할 수 있음. 이는 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묘지일제조사 결과를 근거로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무연분묘, 잔여 부지 등에 대해 파악한 후, 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흥시, 강릉시, 태백시, 전주시 등의 공설묘지는 묘지의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한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자연장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협의사항, 개선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인천가족공원을 포함한 인천시 내 장사시설 등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자연장지를 비롯한 장사시설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연계해야 함.

- 무연분묘,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여, 인천시민의 자연장지 수요를 보완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함.

- 이와 더불어,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묘지, 공설 묘지의 다른 장지 또한 일정 정도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가족·공동체 묘지 및 납골과 자연장지, 무연고자 묘지, 어린이(사산아 포함) 묘지, 종교 공동체 묘지, 산골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장사방법,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묘지의 운영개선방안

1) 검단묘지공원 추진방안

- 토지소유권자의 동의 확보가 필요함.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에는 종교단체, 문중, 향우회, 양우회, 일반개인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묘지가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소유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단체, 법인, 일반개인 등의 토지가 사업대상지의 95.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단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소유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
- 특히 2014년 발표된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 토지면적의 2/3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함.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의미함(서울시 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 따르면 드림로 북측은 근린공원과 주택단지, 상업시설용지로 조성하고 일부는 개인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제공, 일부는 체비지화하여 사업비를 마련함. 드림로 남측은 전체를 봉안시설로 계획하며 종전 묘지 사용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제공함.
- 2014년에 천주교회, 황해도민회, 인천지구교회 등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와 면담 및 의향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참여를 독려하

고자 하였으나, 양우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미정 및 반대의사를 표명함(인천도시공사, 2014).

- 따라서 인천시는 토지소유권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의향조사를 통해 토지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사업추진을 우선으로 하되, 동의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인천시에 의한 사업 직접추진 혹은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의 대안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검단묘지공원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 논의 및 합의도출이 필요함.

-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내의 토지소유권자 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임. 그러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 논의 및 합의도출이 필요함.
- 지역의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여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함.
 -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욕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신문, 뉴스,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검단묘지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은 1998년에 결정되었음에도 2018년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검단묘지공원의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단묘지공원과 관련된 사업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검단묘지공원과 관련된 사업주체는 크게 인천시, 도시공사, 토지소유자, 민간투자자 등이 있음.
- 2014년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별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역할분담방안을 기초로 하여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표 7-2>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주체별 역할분담방안

주체		주요 역할	갈등요소	해결방안
토지 소유 자	묘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묘지소유자에 대한 소통 및 창구 역할 • 단체별로 재단법인 및 묘지 운영 조직 설립 • 환지계획 수립시 동의 •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출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축소에 대한 부담 • 개별묘지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시 부동산의 정확한 종전·종후가치 판단으로 보상 신뢰 구축 • 봉안시설 기수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 이용 편의 및 쾌적성 증진에 대한 홍보
	일반 및 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지계획 수립시 동의 • 부여된 환지에 대한 자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축소에 대한 불안 및 토지별 관리관계에 대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가 만족할만한 비례율 확보방안 검토 및 환지된 토지에 대한 개별 건축시 지원체계 확보
공 공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토지의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기반시설 운영·관리 • 행정절차 지원(도시기본계획 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 변경 부담 • 묘지공원 및 공원 축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타당한 논리 제시 및 충분한 기부채납, 공설봉안 시설 확보 제시
	도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 설립 및 시행·운영 지원 • 필요시 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 		
민간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 설립 주체 • 전략적(SI), 재무적(FI), 건설투자자(CI)의 역할로서 사업 운영, 재정, 시공 등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및 이윤 추구 정도 • 과도한 사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참여 SPC 설립 및 검단 신도시 개발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 구축

자료 : 인천도시공사(2014)

2) 영종메모리얼파크 추진방안

○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함.

- 2015년에 인천화약 저장고 이전을 완료하면서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 예정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임.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은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봉안당 건립은 영종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봉안당 건립보다 학교, 교통, 의료시설 등 건립이 시급한 시설이 많음 등을 제시함.
-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2018년 4월에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과 함께, 지속적·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의체는 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에 영향을 끼치거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대표로 구성해야 함. 영종메모리얼파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영종하늘도시 조성을 주도하는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인천광역시청의 대표자 및 지역주민 대표자, 외부 자문위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영종메모리얼파크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방향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종메모리얼파크 관련 연구 발주

- 검단묘지공원과 관련해서는 수립계획, 사업화방안 등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메모리얼파크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 영종메모리얼파크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종메모리얼파크 대상지 현황분석,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사례조사, 관련 주체별 욕구분석, 조성계획 및 사업시행방안 도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영종메모리얼파크의 수립계획 혹은 사업화방안을 다루는 연구를 발주함으로써, 영종메모리얼파크의 체계적 추진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의 수행은 영종메모리얼파크의 현 사업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로부터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제3절 해양장의 활성화 방안

1. 해양장의 활성화 필요성

1) 봉안당 수요 감소 방안, 친자연적 장사방안으로서의 해양장

- 2016년 기준 전국 화장률이 82.7%에 이른 국내 상황에서(보건복지부, 2018c),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은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대한 화장 유골 안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사방법 중 하나임(이용갑 외, 2013).
- 봉안당, 자연장지 등은 일정 기간 유골을 지정된 공간에 안치하는 것임.
 - 따라서 유족 및 장사시설 관계자 등은 시설, 유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무연고 유골의 발생, 만장 등으로 시설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봉안당, 자연장지 이용을 원함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해양장은 바다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것임.
 - 따라서 유족 및 장사시설 관계자 등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골 안치공간 등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아 지속적·장기적으로 장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또한 해양장은 자연장과 함께 유골을 온전하게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친자연적 장사방법’이며, 시설 건립과정 상 자연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봉안시설 등과 달리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2) 해양장 관련 자원의 충족

- 특히 인천시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장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실시되고 있어 해양장 해역, 해양장 방법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인천시 인접 해역에서 ‘바다유택동산’, ‘바다장례식장’ 등 이름의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2년 227구, 2009년 716구, 2010년 745구, 2011년 888구, 2012년 1001구 등 해마다 해양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2012; 한겨레, 2014).

- 해양장이 실시되는 해역은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부근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도선이 인천항 항로표지 부표를 확인하고 해양장을 실시함.
- 항로표지 부표를 중심으로 해양장을 실시하는 이유는 유족이 유골을 뿌린 지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어장 및 항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양장은 9번 부표, 13번 부표, 14번 부표, 17번 부표 등에서 이루어지며 2014년에는 19번 부표와 24번 부표에서 집중적으로 해양장이 이루어짐(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2012; 한국일보, 2014).

<그림 7-9> 인천시 해양장 실시 해역



자료 : 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2012

3) 해양장에 대한 시민 선호도 증가

- 해양장과 관련하여 2018년 인천시 시민의식조사 결과, 2013년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해양장에 대한 선호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함.
-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해양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12.8%로 나타남. 이는 2013년에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9.8%보다 3% 증가한 것임.

- 또한 인천시 장례형태의 발전방향으로 해양장을 선택한 비율 또한 2013년 설문조사 결과인 10.6%과 비교해, 2018년 설문조사 결과는 12.2%로 나타나 1.6% 증가함.
- 인천시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의 활성화’를 선택한 비율은 14.4%로, 2013년 설문조사 결과인 10.4%에 비해 증가함.
- 이처럼 해양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해양장을 장사방법 중 하나로 법적 인정하고 해양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장의 활성화 방안

1) 해양장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 해양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화장을 진행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의 해양장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편임.
 - 본 연구에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한 방법으로 산골을 선택한 비율은 8% 수준에 그침.
 - 자연장, 산골, 유택동산을 인천가족공원 안치기간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 선택한 비율은 26%로 나타남.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 4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실제 화장을 진행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시민의식조사에서는 26%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임.
 - 이는 평소 해양장에 대한 선호는 있으나 내·외부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제 장사방법 중 하나로 해양장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임.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의 시민의식조사에서 자연장, 산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고인의 유지’ 및 ‘문화적 낯설다’가 34%로 나타남.
 - 따라서 인천시민의 평소 생각이 실제 장례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의 노력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의 2012년 보고서, 현재 법령 검토 등을 했을 때 해양장은 법적 규제대상이 아님.
 -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의 2012년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장한 유골 즉 화장재가 바다 환경에 위해

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 ①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성분은 화장재에 미량으로 존재함
 - ② 해양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주변 퇴적물의 성분과 유사함
 - ③ 생물독성 실험 결과, 화장재가 주변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장 관련 법령을 검토했을 때 해양장은 법적 규제대상, 불법적인 행위 등이 아님(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7-3> 해양장 관련 법령 검토결과

관련 법령	내용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 포함됨(시행령 제2조) • 공설화장시설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함(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2호) • 매장 또는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6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반대 해석상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임(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장을 하는 입장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존엄하고 소중한 것임. • 즉, 불필요한 것, 버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분은 폐기물의 범주에 해당되기 어려움.
해양환경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음.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음(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명시되지 않음. • 그러나 동 조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의 위반은 아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보기도 어려움.

자료 : 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보고서에서는 ‘해양산분’으로 표기되었으나, 본 연구의 해양장과 같은 의미이므로 해양장으로 용어를 통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장이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
- 따라서 해양장이 환경적, 법적 상 문제가 없는 장사방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양장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해양장이 활성화된 홍콩의 경우 해양장 홍보 팸플릿에 “Let our loved ones join the boundless sea and return to nature”, “Whenever there is the ocean, whenever there is the sound of waves, we reminisce fond memories” 라는 문구를 사용함.
- 사랑하는 이를 나무, 꽃 등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장과 마찬가지로, 해양장은 바다라는 드넓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임.
- 바다, 파도소리는 고인을 추모하고 떠올리게 함.
- 이러한 홍콩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양장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할 수 있는 상징문구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그림 7-10> 홍콩 해양장 관련 홍보 팸플릿



※ 홍콩특별행정구 식물환경위생서에서 발행한 팸플릿으로, 2018. 07. 홍콩 사례조사지를 방문하여 취득한 자료임.

2) 해양장을 포함한 산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매장, 봉안, 자연장 외에 산골 등과 같은 장사방법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매장, 화장, 자연장 등에 대한 개념 및 시설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해양장을 포함한 산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제도화의 미비로 인하여 유택동산, 해양장 등 산골 관련 시설건립 및 장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골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운영·관리방안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함.

○ 해양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는 해양장을 포함한 산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3월 발표된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에 ‘산골 등 변화된 장사 문화 수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자연장 범위를 산골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장례방법을 적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 정비”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산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골 제한지역을 규정” 할 것을 계획함(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8).

○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해양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인천시 차원에서 해양장의 양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해양장 관련 인천시 조례안 내용 구축 및 검토, 해양장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련 자원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같이 인천시 차원에서 해양장을 포함한 산골장지의 위치, 가격, 담당시설, 유의사항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양장 관련 연구를 추가 추진하는 것 또한 해양장의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2012년 보고서 이후, 해양장과 관련된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
 - 해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해양장과 관련한 연구를 향후 추진함으로써 해양장에 대한 현황검토, 시민 대상 욕구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해양장 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인천시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언

1. 시민의식의 전환

- 장사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 화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전국 화장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천시의 화장률은 91.2%이며(보건복지부, 2018c), 본 연구에서 2018년 화장수요를 추계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됨.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 매장은 10.3%로 2013년 조사(이용갑 외, 201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화장률 또한 82.5%로 2013년 조사보다 낮게 나타남. 이처럼 2013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82.5%는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임.
- 인천시는 향후 장례방법으로 화장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봉안시설 안치 외에도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이 다양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순환적, 친환경적, 지속적인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화장 후 유골을 산골이나 자연장 또는 해양장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은 매장문화 또는 문화적 전통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자식의 관리 부담을 줄여줄 화장을 선택하나, 문화적 전통에 따라 유골 또는 골분을 보이는 곳에 안치하고 제사, 추모식, 헌화 등과 같은 일정한 관례가 가능하도록 봉안시설의 안치를 선호하는 것임.
 - 이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천시 경우 봉안시설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봉안시설 관리의 문제 등이 향후 인천시의 장사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문제도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음.
 - 따라서,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해양장, 고품격 산골 등의 순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장사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기존 봉안시설 중심의 장사문화에서 자연장 및 해양장 등의 산골 등 순환을 기조로 하는 장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 시민의식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른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가구월소득 기준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있는 응답자는 자연장보다 공설 납골당(봉안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 자연장을 선택한 비율은 31.0%인 반면, 공설 납골당(봉안당)을 선택한 비율은 34.9%로 나타난 것임. 이는 중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시민의식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화장 후에는 자연장지를 비롯한 순환적 방법보다는 공설 납골당(봉안당)의 안치를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장사시설의 원활한 순환 및 자연친화적·효율적인 장사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천가족공원의 안치기간을 현재 30년에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일상적인 시민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 시민인식개선사업 추진 시 단순히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직접 자연장지, 산골장소 등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음.
 - 자연장 또는 해양장, 산골시설들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사시설 내 장사홍보관 운영 혹은 장례문화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세계의 장사문화 변천, 진화하는 장사산업 소개, 우수한 자연장지 및 산골장지 홍보, 장례용품 및 다양한 장례서비스 소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장지, 산골장소 등의 고품격화를 통해 자연장, 산골 등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음.
-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운동은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사회영역에서 자발적인 시민의식운동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주도 계층인 지도층 인사 및 저명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함.
- 또한, 인천시는 자연장 및 해양장 등의 산골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와 산골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골장소의 경우, 유택동산 외에 추모의 정원, 해양장, 합장식 묘지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산골장소를 확대해야 함.

- 자연장 또는 해양장 등의 산골을 선택하는 시민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의 제휴를 통한 교육사업 실시

- 2018년 현재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이 중요해짐.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선호하는 방법과 실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이 선택하는 방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과 관련하여,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2013년 44.3%에서 2018년 33.2%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안치 등 다른 방법에 비해 선호가 가장 높음. 해양장에 대한 선호 또한 2013년 9.8%에서 2018년 12.8%로 증가함.
 -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함께 시행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 공설 납골당(봉안당)을 45%가 선택하고, 자연장은 11%, 산골은 8%만 선택함.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이 자연장 및 해양장 등의 산골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문화적 생소함’ ‘고인의 유지’ 등의 이유가 봉안시설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사망 당사자의 평소 생각이나 문화적 의식이 자연장 및 해양장 등의 산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자연장, 해양장 등과 같은 순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령층 등에 대한 꾸준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함. 즉,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사업을 노인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웰다잉, 임종노트, 유언작성 및 재산상속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 방법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각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용료, 유의사항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자연장, 해양장 등의 산골에 대한 내용을 교육사업 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노령층이 사후 유골 안치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장, 해양장 등의 산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등에 대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시행과 더불어, 학교 등과의 제휴를 통해 아동,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 죽음, 장사 등은 비현실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음.
 - 그러나 죽음은 삶, 생명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으로 연령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준비, 유골 안치 방법 등에 대한 고려는 오랜 시간 고심하여 천천히 이루어야 할 인생의 과제와 같은 것임.
 -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이 이성발달, 삶의 목표 설정, 청소년 일탈 및 자살방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메모리얼소싸이어티, 2016).
 - 따라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장사 관련 교육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함. 2013년 한 해 동안 87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1회의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함.

<표 7-4>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

구분	활동내용	학습장소
(1) 이별상자 채우기	• 버려야 할 것(나쁜 습관, 단점 등) 작성	홍보교육장
(2) '삶'의 소중함 알기	• 기쁜 일, 소중했던 일에 관한 토의	
(3) 화장진행과정 견학	• 접수실, 봉송, 화장로 등 견학 • 봉안용기 종류 알아보기	승화원 견학
(4) 봉안당 견학	• 봉안시설 및 유족들이 남긴 글 • 자연장(잔디·수목장) 종류 알기	제1추모의집
(5) 생명사랑서약서 작성	• 생명사랑서약서 작성 및 낭독	홍보교육장
(6) 버킷리스트 작성	• 1년 후 본인에게 쓰는 엽서 작성(버킷리스트) • 기념사진 촬영	

자료 : 메모리얼소싸이어티(2016)

- 이러한 견학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SNS, 게임, 유튜브 등 아동, 청소년 등이 활발히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등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사문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임.

3. 종교단체와 협력강화

-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소속 묘지 및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단체 시설을 선호하는 인천시민들이 있음.
- 본 연구의 인천시민 대상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하는 묘지유형으로 종교단체 묘지를 선택한 비율은 6.5%,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으로 종교단체 봉안당에 안치한다는 비율은 4.8%를 차지함.
- 시민의식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종교별로 구분하여 유골 안치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교를 믿는 응답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응답자에 비해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를 믿는 응답자는 공설 납골당(봉안당)을 선호함.
 - 천주교는 교구별로 신자들을 위한 자체 묘지, 봉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종교를 믿는 응답자에 비해 천주교를 믿는 응답자의 종교시설 봉안당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른 묘지, 봉안시설에 비해 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민의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종교단체의 장사시설을 이용하게 됨. 따라서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종교단체의 묘지, 봉안시설 등을 자연장지 및 산골장소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자연장지 및 산골장소로의 전환은 일방적·강제적인 전환이 아닌, 자연장 및 산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종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4. 장사시설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 개선

- 장사시설 곳곳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등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장사시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소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따라서 장사시설 내 정기적인 환경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
- 인천가족공원은 비교적 수목, 잔디 등 넓은 규모의 환경을 잘 정비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뒤, 봉안당 뒤, 만장된 수목장지로 이어지는 길 등과 같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뒤의 경우 정원관리사대기실 부근에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어 미관·안전상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뒤의 경우 경사진 곳에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흙이 비 등에 쓸려 봉안당 바로 뒤에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봉안당에 무리를 주거나, 주변 지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지 길의 경우 잡초, 수목으로 우거진 상황이라 유족 등이 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림 7-11>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뒤편



<그림 7-12>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지 길



- 인천가족공원 외에 인천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대한 환경정비도 필요함. 특히 섬에 마련되어 있는 장사시설의 경우 접근성, 관리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설묘지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예를 들어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의 장봉리 공설묘지는 허가면적 32,231m²의 비교적 넓은 산 면적에 묘지 및 자연장(잔디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입구와 위편 묘지로 올라가는 길 등이 잡초, 수목으로 우거진 상황이라 정비가 필요함.
- 각 분묘에 대한 관리는 유족 등에 일임할 수 있으나 길 등에 대한 정비는 해당 묘지 및 자연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므로 유족 등과 논의하여 관리주체 측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7-13> 장봉리2공설묘지 입구



<그림 7-14> 장봉리2공설묘지 전경



5. 기술발전에 발맞춘 미래의 장사문화 구축

- 현대 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주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
- 장사문화 또한 이러한 기술발전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고인의 형상 혹은 고인과의 추억의 장소 등을 재현할 수 있음.
 - 가상현실·증강현실·대체현실 등을 이용하여 고인과의 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실제로 호주의 Paranormal Games사는 가상현실 프로젝트인 “ELYSIUM”을 통해 고인과의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함(메모리얼소싸이어티, 2016).

<그림 7-15> 가상현실을 이용한 고인과의 대화



자료 : 메모리얼소싸이어티(2016)

-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장례식, 추모식 등 진행 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음. 국내에서 이미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연이 진행된 바 있는데, 2016년에 대구시에서 김광석의 생전 모습을 재현하여 ‘김광석 홀로그램 공연’을 진행하였고, 2018년에는 홀로그램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재하와 현재 활동 중인 가수 스윗소로우가 함께 공연하기도 함.

<그림 7-16> 김광석 홀로그램 공연



자료 : 메모리얼소싸이어티(2016)

<그림 7-17> 스윗소로우와 유재하 홀로그램 공연



자료 : 뉴스토마토(2018)

-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술을 장사문화에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실현가능하고 도입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사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을 검토·도입·접목시켜 새로운 장사문화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기술 관련 분야와의 협업 진행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논문 및 저서

- 국립민속박물관(2014),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김승희, 이원학(2014),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2014~2018)』, 강원도청, 강원발전연구원.
- 메모리얼소싸이어티(2016), 『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2),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8a), 『2018 장사(葬事)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8b),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8c),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8),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2018~2022)』, 서울연구원 최종보고 발표자료.
- 신산철, 김수봉, 최미정(2014), 『강화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강화군청, 늘푸른장사문화원.
- 이기현(2015),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이용갑, 조승헌, 박태호, 윤성복, 최동국(2013),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인천광역시청,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가족공원(2018),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및 안치현황』, 인천가족공원 내부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10), 『IFEZ 1단계 성과 및 2단계 발전전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광역시청(200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2009),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2012),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검단묘지공원조성사업의 타당성』, 인천광역시청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청(20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견 청취 안』, 인천광역시청 지방의회 제출자료.

인천광역시청(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2018a), 『2-2.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 인천광역시청 내부자료.

인천광역시청(2018b), 『2017년도 장사업무통계 조사표』, 인천광역시청 내부자료.

인천도시공사(2014),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공사.

통계청(2017a),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통계청.

통계청(2017b),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a), 『2017년 12월 화장통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b), 『2017년 화장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17c),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설문조사 결과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내부자료.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2012),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루체른 시립묘지 <https://www.stadtluzern.ch/thema/159#FriedhofFriedental/>

루체른 시청 <https://www.stadtluzern.ch/>

마인츠 추모정원 <http://www.memoriam-garten.de/index.php?id=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

스웨덴 국교회 www.svenskakyrkan.se/

오사카시 환경사업협회 <http://www.kankyujigyou.or.jp/business/cemetery/uriwari/>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hurch_of_Sweden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울산누리 <http://blog.ulsan.go.kr/6828/>

울산하늘공원 <http://www.skypark.or.kr/>
 이이모리영원조합 <http://iimoreienkumiai.shijonawate.osaka.jp/>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인천시설공단 <http://www.insiseol.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홍콩특별행정구 식물환경위생서 <http://www.fehd.gov.hk/>
 ARCHITEKT JOSEPH GASSER <http://www.architekt-gasser.ch/Oeffentliche%20unten.htm/>
 Genossenschaft der Friedhofsgärtner <http://www.genfrie.de/memoriangarten/mainz.php/>
 svenskakyrkan <https://www.svenskakyrkan.se/ockero/kyrkogard/>

■ 신문 기사

경향신문(2017), “인천 영종하늘도시 봉안당 건립 갈등”, 2017.11.28.
 뉴스토마토(2018), “‘홀로그램’으로 돌아온 가수 유재하”, 2018.08.28.
 시사인천(2017), “영종하늘도시 봉안당 건립 재추진 ‘논란’”, 2017.11.22.
 시사인천(2018), “영종 하늘도시 주민들, ‘봉안당 건립 반대’ 국민청원”, 2018.04.26.
 한겨레(2014), “죽으면 바다에...해양장 크게 늘어”, 2014.11.23.
 한국일보(2014), “인천 앞바다는 ‘해양장’ 명당...분골 뿌리는 유족몰린다”, 2014.11.24.

부 록

<부록 1>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닐슨컴퍼니입니다.

저희는 인천연구원과 인천광역시의 의뢰를 받아 인천시민의 장례 문화 인식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주관기관		조사 수행기관	
문의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닐슨컴퍼니코리아 [실사총괄] 실사팀 정윤교 차장 ☎ 02-2122-7353		

먼저 조사 대상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SQ1.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구 ② 동구 ③ 남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옹진군

SQ2.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 ① 남성 ② 여성

SQ3. 선생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PART 1. 희망 장사방법 관련

Q1. 선생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장례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 ① 자택 ② 병원 장례식장 ③ 인천장례식장 등 독립장례식장
- ④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 ⑤ 기타()
- ⑥ 잘 모르겠음(생각해본 적 없음)

Q2. 선생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장사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매장 (☞Q3-1로 이동) ② 화장 (☞Q4-1로 이동)
- ③ 잘 모르겠음 (☞Q5로 이동)

Q3-1. 선생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묘지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개인 묘지 ② 가족 묘지 ③ 선산, 종중, 문중 묘지
- ④ 종교단체 묘지 ⑤ 사설법인 묘지 ⑥ 공설(공원) 묘지
- ⑦ 기타 묘지

Q3-2. 선생님께서는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 ② 화장이 싫어서
- ③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 ④ 종교적 이유 때문에
- ⑤ 묘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⑥ 기타()
- ⑦ 기타()

Q4-1. 선생님께서는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인천가족공원 같은 공설 납골당에 안치 ② 민간 납골당에 안치
- ③ 문중·종중 납골당에 안치 ④ 종교단체 납골당에 안치
- ⑤ 화장장 옆에 조성된 유택동산에 안치 ⑥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의 자연장
- ⑦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⑧ 기타()

Q4-2. 선생님께서는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자연환경 보존 ② 관리하기 편해서 ③ 묘지를 구하기 힘들어서
- ④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 ⑥ 기타()

PART 2. 인천시 장례문화에 대한 의견

Q5. 선생님께서는 인천시의 장례 형태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납골당 ②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 등의 자연장
③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④ 기타()

Q6. 선생님께서는 인천시가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설 납골당 신규 증설 ② 민간 납골당 증설
③ 기존 공설 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납골당과 자연장지 등을 갖춘 공원화하고 확장함
④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의 활성화 ⑤ 기타()

Q7. 선생님께서는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의 자연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Q8. 자연장은 나무나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선호하시는 자연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수목형 ② 화초형 ③ 잔디형 ④ 자연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Q9. ‘자연장’ 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 군, 구 소유의 산림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숲을 골라 자연장지를 설치한다
- ② 구, 군에 산재한 집단묘지 등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한다
- ③ 기존의 묘지공원에 추가로 조성한다
- ④ 기타()

Q10. 선생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구, 군에 자연장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적극 찬성 ⑤ 잘 모르겠다

Q11. 선생님께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적극 찬성 ⑤ 잘 모르겠다

Q12. 선생님께서는 후세대를 고려할 때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의 적정한 안치기간은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년 이하 ② 20년 이하 ③ 30년 이하
④ 40년 이하 ⑤ 기타()

Q13. 선생님께서는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의 최초 안치기간인 10년 이후에는 유골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천가족공원 납골당 비용이 크게 인상되더라도 계속 이용
- ② 민간 납골당으로 이전
- ③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의 자연장으로 변경
- ④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으로 변경
- ⑤ 기타()

Q14. 선생님께서는 인천가족공원과 같은 종합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사시설 관련 각종 규제 ②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 ③ 부족한 재정 ④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장사행정
- ⑤ 장사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⑥ 기타()

Q15. 선생님께서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② 민간 부문
③ 민간유치방식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 ④ 기타()

Q16. 선생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장사시설의 이미지 개선 ② 장사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③ 자연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④ 해양장의 활성화
⑤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⑥ 기타()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선생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
|-------------------|-------------------|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 ④ 20년 이상 ~ 30년 미만 |
| ⑤ 30년 이상 | |

DQ2. 실례지만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 졸업 |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졸업 이상 |

DQ3.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불교 | ② 개신교(기독교) |
| ③ 천주교 | ④ 없음 |
| ⑤ 기타() | |

DQ4.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귀댁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설문지

설문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의뢰를 받아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천시민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인천시의 중장기 장사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천 연 구 원

◆ 아래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O, V) 혹은 응답해주시시오.

1. 돌아가신 분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① 인천시(강화, 옹진 포함) ② 그 외 지역

2. 귀하께서는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① 부모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손자녀 ⑤ 기타()

3. 돌아가신 분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4. 돌아가신 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5. 돌아가신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고령 ② 병사 ③ 사고사(교통·재해사고, 기타 사고사 등) ④ 기타()

6. 화장한 유골(골분)은 어떻게 모실 예정입니까?

① 공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② 민간(사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③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④ 강, 산 또는 바다에 뿌림(散骨)
⑤ 유택동산에 모심 ⑥ 기타()

7. 최초 안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화장한 유골(골분)은 어떻게 모실 예정입니까?

① 공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② 민간(사설)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
③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④ 강, 산 또는 바다에 뿌림(散骨)
⑤ 유택동산에 모심 ⑥ 기타()

8. 자연장이나 산골(강, 산 또는 바다에 뿌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적 낯설음 ② 고인의 유지(유언 또는 평소의 생각 등)
③ 유족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④ 기타()

<부록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

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⑦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립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립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임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시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③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을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⑦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청문) 시·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시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시설묘지·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 및 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8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시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화장시설 또는 시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해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 또는 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

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조성자·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 2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 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자
-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 12의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12의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의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12의6.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15. 1. 28.>
- ④ 삭제 <2015. 1. 28.>
- ⑤ 삭제 <2015. 1. 28.>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하 생략

연구진

연구책임

김윤영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참여

최태림 /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이창문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박태호 /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연구위원

김아진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